

IN

Y

P

I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책임연구원

오해섭

공동연구원

맹영임 문호영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문호영(나사렛대학교 · 겸임교수)
- ▶ 연구보조원 : 문정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공급에 비해 충분한 수요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정세의 불안 요인과 유럽경제의 침체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제반 여건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가정신 및 창업 방안에 관한 교육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전정신과 같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의성 차원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2014년 1차 년도에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 국내외 사례조사, 초·중·고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함양과 청소년 창업지원에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가능성과 정책추진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제도와 관련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창조산업분야별 인재육성 방안인 신성장동력, 사회이슈해결, 실용기술활용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정책대안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관련교육 참여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이론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교사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홍보강화, 관련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담당교사제 운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 등 초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4과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혁신, 동아리활동중심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활성화 등 중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3과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비즈쿨 선도학교 역할 재정립, 고등학교-대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삼위일 체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강화 등 고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4과제, 청소년활동과 학교행사활동 연계를 통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활동 활성화,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 제고를 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등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2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기업가정신, 청소년 창업역량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관련교육 참여현황,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 이를 기초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관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이론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 설문조사지 개발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는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정

신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은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참여경험 대비 만족수준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의 3/4 이상은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자청소년과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체험활동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여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전문성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소년 과반수정도는 중학교 때부터 기업가정신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정신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전정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기술, 리더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함.
-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수준은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능력, 자기유능감, 창의력은 전체평균과 비슷하였으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은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 사람들의 행복 보장, 환경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취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미래 취업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 또한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회사)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과

초등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창업에 대한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창업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의 창업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창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기를 원해서로 나타남.

- 창업관심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남학생과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격이 활발할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들의 창업태도수준과 창업역량수준은 모두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일수록,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창업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련활동 중 청소년 참여수준이 가장 높은 활동은 창업교육(수업)이었으며,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창업캠프(비즈쿨캠프)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창업관련 활동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창업교육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창업을 위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산업분야는 요식 관련 산업, 게임 관련 산업, 패션 관련 산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과 중학생은 게임 관련 산업, 여학생은 패션 관련 산업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향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 청소년들의 문화가치와 셀프리더십수준은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과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셀프리더십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화가치 중 남성성을

제외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그리고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은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 이의 하위영역인 성취욕구, 자기 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수준이 높고,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셀프리더십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문화가치 영역 중 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그리고 셀프리더십영역 중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문화가치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과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역량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남성성 수준은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4)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함.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다섯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가 필요함. 여섯째, 교사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함. 일곱째, 학교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함. 여덟째,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함 등으로 나타남.

5) 정책제언

- 설문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기초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홍보강화, 관련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담당교사제 운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 등 초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4과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혁신, 동아리활동중심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활성화 등 중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3과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비즈쿨 선도학교 역할 재정립, 고등학교-대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삼위일체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강화 등 고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4과제, 청소년활동과 학교행사활동 연계를 통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활동 활성화,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 제고를 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등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2과제 등을 제안하였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조사개요	7
1. 표본설계 및 응답자 특성	9
2. 조사도구	16
3. 분석방법	29
III.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분석	31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33
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33
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34
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및 만족도	36
4)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45
5)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50
6)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56
7)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57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64
9)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73
10)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84
2.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86
1)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	86
2)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인식	88

3) 창업 의향	90
4) 창업관심과 도전의식	95
5)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98
6)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100
7) 창업교육 시작 시기	101
8) 창업태도와 창업역량 수준	103
9)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105
10)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114
11) 취업 및 창업하고 싶은 분야	122
12)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127
13)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136
3.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관련인식	138
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138
2)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142
3)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144
4)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153
4. 문화가치수준	155
1) 권력거리	155
2) 남성성	156
3) 불확실성 회피	157
4) 장기지향성	158
5. 셀프리더십수준	159
1)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전략	161
2) 셀프리더십: 자연적보상전략	162
3) 셀프리더십: 건설적사고전략	163

6. 문화가치 · 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164
1) 문화가치 ·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	164
2) 문화가치 ·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	165
7. 소결 및 시사점	170
1) 소결	170
2) 시사점	173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77
1. 연구결과 요약	179
2.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93
부 록	
부록1. 설문조사지: 초등학생용	199
부록2. 설문조사지: 중 · 고등학생용	211

표 목 차

〈표 II-1〉 모집단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및 중학교	9
〈표 II-2〉 모집단 지역별 학생 수: 고등학교	10
〈표 II-3〉 모집단 지역별 학교 수: 고등학교	10
〈표 II-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6,000명)	11
〈표 II-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225개교)	12
〈표 II-6〉 조사완료 학생 수(6,612명)	14
〈표 II-7〉 조사완료 학급 수(222개교)	14
〈표 II-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 II-9〉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17
〈표 II-10〉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	21
〈표 II-11〉 기업가적 역량과 하위요소	23
〈표 II-12〉 개인의 전문역량과 하위요소	24
〈표 II-13〉 창업태도: 용어와 해설	25
〈표 III-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34
〈표 III-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35
〈표 III-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37
〈표 III-4〉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학교	38
〈표 III-5〉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청소년시설	39
〈표 III-6〉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사교육기관	40
〈표 III-7〉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1
〈표 III-8〉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금융기관	42
〈표 III-9〉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	42
〈표 III-10〉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진로·직업체험기관	43
〈표 III-11〉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45
〈표 III-12〉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46

〈표 Ⅲ-13〉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47
〈표 Ⅲ-14〉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49
〈표 Ⅲ-15〉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장래 도움정도	51
〈표 Ⅲ-16〉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정규수업시간 실시	52
〈표 Ⅲ-17〉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전문가 지도	53
〈표 Ⅲ-18〉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수업내용 중요성	54
〈표 Ⅲ-19〉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체험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교육	55
〈표 Ⅲ-20〉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57
〈표 Ⅲ-21〉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전체	59
〈표 Ⅲ-22〉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성취욕구	60
〈표 Ⅲ-23〉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자기통제능력	61
〈표 Ⅲ-24〉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위험감수성	62
〈표 Ⅲ-25〉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창의력	63
〈표 Ⅲ-26〉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자기유능감	64
〈표 Ⅲ-2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도덕성	66
〈표 Ⅲ-2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안전	67
〈표 Ⅲ-2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환경보호	68
〈표 Ⅲ-3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행복	69
〈표 Ⅲ-3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고객 제일주의	71
〈표 Ⅲ-3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책임감	72
〈표 Ⅲ-3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이익	73

〈표 III-34〉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경제교육	75
〈표 III-35〉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리더십	76
〈표 III-36〉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기술	77
〈표 III-37〉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78
〈표 III-38〉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79
〈표 III-39〉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기업체험	80
〈표 III-40〉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	81
〈표 III-41〉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도전정신	82
〈표 III-42〉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	83
〈표 III-43〉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	84
〈표 III-44〉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86
〈표 III-45〉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	88
〈표 III-46〉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89
〈표 III-47〉 창업 의향	91
〈표 III-48〉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93
〈표 III-49〉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95
〈표 III-50〉 창업관심	96
〈표 III-51〉 도전정신	97
〈표 III-52〉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99
〈표 III-53〉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101
〈표 III-54〉 창업교육 시작 시기	102
〈표 III-55〉 창업태도	104
〈표 III-56〉 창업역량	105
〈표 III-57〉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실패 위험	107
〈표 III-58〉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	108

〈표 III-59〉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세금부담	109
〈표 III-60〉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사원 확보의 어려움	109
〈표 III-61〉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110
〈표 III-62〉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심한 경쟁	111
〈표 III-63〉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과도한 업무시간	112
〈표 III-64〉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많은 규제	112
〈표 III-65〉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불확실한 미래	113
〈표 III-66〉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동아리활동	115
〈표 III-67〉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교육(수업)	116
〈표 III-68〉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박람회	117
〈표 III-69〉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아이템)경진대회	119
〈표 III-70〉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멘토링	120
〈표 III-71〉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캠프(비즈쿨캠프)	121
〈표 III-72〉 취업하고 싶은 분야	124
〈표 III-73〉 창업하고 싶은 분야	126
〈표 III-74〉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창업절차와 방법	128
〈표 III-75〉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판매 및 홍보전략	129
〈표 III-76〉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세금관련 기초지식	130
〈표 III-77〉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성공적인 창업사례	131
〈표 III-78〉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132
〈표 III-79〉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업계획서 작성법	132
〈표 III-80〉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관련법과 제도	133
〈표 III-81〉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	134
〈표 III-82〉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올바른 경제관 확립	135
〈표 III-83〉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창업체험학습	136
〈표 III-84〉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137

〈표 III-85〉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140
〈표 III-86〉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141
〈표 III-87〉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143
〈표 III-88〉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	145
〈표 III-89〉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개발	146
〈표 III-90〉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과 도전정신	147
〈표 III-91〉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능력	148
〈표 III-92〉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	149
〈표 III-93〉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할 수 있는 용기	150
〈표 III-94〉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관련 능력	151
〈표 III-95〉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감	152
〈표 III-96〉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154
〈표 III-97〉 권력거리	156
〈표 III-98〉 남성성	157
〈표 III-99〉 불확실성 회피	158
〈표 III-100〉 장기지향성	159
〈표 III-101〉 셀프리더십: 전체	160
〈표 III-102〉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전략	161
〈표 III-103〉 셀프리더십: 자연적보상전략	162
〈표 III-104〉 셀프리더십: 건설적사고전략	163
〈표 III-105〉 문화가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	165
〈표 III-106〉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	166
〈표 III-107〉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성취욕구에 미치는 영향	167
〈표 III-108〉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167
〈표 III-109〉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168
〈표 III-110〉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169
〈표 III-111〉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169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표본추출단계	13
【그림 Ⅱ-2】 조사문항 개발절차	17
【그림 Ⅲ-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33
【그림 Ⅲ-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35
【그림 Ⅲ-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36
【그림 Ⅲ-4】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38
【그림 Ⅲ-5】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44
【그림 Ⅲ-6】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45
【그림 Ⅲ-7】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47
【그림 Ⅲ-8】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48
【그림 Ⅲ-9】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50
【그림 Ⅲ-10】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56
【그림 Ⅲ-11】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58
【그림 Ⅲ-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65
【그림 Ⅲ-13】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74
【그림 Ⅲ-14】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85
【그림 Ⅲ-15】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	87
【그림 Ⅲ-16】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인식	88
【그림 Ⅲ-17】 창업 의향	90
【그림 Ⅲ-18】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91
【그림 Ⅲ-19】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94
【그림 Ⅲ-20】 창업관심과 도전의식	96
【그림 Ⅲ-21】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98
【그림 Ⅲ-22】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100
【그림 Ⅲ-23】 창업교육 시작 시기	101
【그림 Ⅲ-24】 창업태도와 창업역량 수준	103

【그림 Ⅲ-25】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106
【그림 Ⅲ-26】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114
【그림 Ⅲ-27】 취업하고 싶은 분야	122
【그림 Ⅲ-28】 창업하고 싶은 분야	125
【그림 Ⅲ-29】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127
【그림 Ⅲ-30】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137
【그림 Ⅲ-3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139
【그림 Ⅲ-32】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140
【그림 Ⅲ-33】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142
【그림 Ⅲ-34】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144
【그림 Ⅲ-35】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153
【그림 Ⅲ-36】 문화가치수준(영역별)	155
【그림 Ⅲ-37】 셀프리더십수준	160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계는 창의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창업 기업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하규수, 2014: 51).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상으로 첫째, 자기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미래 인재, 둘째,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융합 인재,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인재, 넷째, 소통능력을 가지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다섯째,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하는 평생학습 인재 등을 제시하였다(이승택, 2014: 20).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경제혁신3개년계획 후속조치로 기술창업활성화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과 ‘일자리·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기술창업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기술창업의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방안 중 하나는 ‘생애전주기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로 초·중·고 학교현장에서의 체험형 창업경험 기회 확대, 대학에서 학업과 창업 병행, 일반인 간접창업 및 창업교육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자리·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창업 활성화’ ‘미래 창업시장을 이끌 청년드림기술CEO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창업관련교육시스템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http://www.korea.kr/common/searchPrint.do> 참고).

그러나, 기업가정신은 기업이나 창업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어울리고 교육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일련의 사회적 활동 가운데서 짝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1) 이장은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환경을 한 사회나 국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국가 안에 속하는 사회적 구성원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사람들의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수준을 갖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하규수, 2014: 51).

그러므로 미래 창업 기업가인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청소년기부터 필요한 관련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관련교육 참여현황,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올바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및 창업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관련교육 참여현황,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올바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및 창업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정신과 창업관련 변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관련변인을 도출해 냄으로써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설문조사·분석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및 창업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정책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설문지는 초등학교(5,6)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인식과 역량수준, 관련교육 참여 실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창업관련 일부 문항은 초등학생 제외). 조사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가정신 관련 인식 및 교육 참여경험 ② 창업 관련 인식 및 교육 참여경험 ③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④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 ⑤ 배경변인(성, 학교급, 학년, 지역, 경제수준, 성격 등) 등이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방안 모색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방안을 학교급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이론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

설문조사지 개발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모집단에 대한 표집과 조사설계, 그리고 설문조사 실시는 본원의 통합조사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제 II 장

조사개요

1. 표본설계 및 응답자 특성
2. 조사도구
3. 분석방법

제 II 장 조사개요²⁾

1. 표본설계 및 응답자 특성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다음의 <표 II-1, 2, 3>과 같다.

표 II -1 모집단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7,802	87,339	100,532	99,162	102,625	597	597	382	380	378
경기	120,776	135,839	153,378	149,354	152,096	1,193	1,194	598	598	597
인천	25,810	29,465	33,129	33,052	33,839	238	238	132	134	132
강원	14,178	15,930	17,950	17,856	18,575	330	336	163	163	162
충북	14,838	17,056	18,864	18,754	19,481	262	268	127	127	127
충남	19,992	22,973	25,480	24,897	25,513	415	419	199	198	198
대전	15,405	17,382	19,770	19,393	20,361	145	145	87	87	88
경북	22,311	25,731	29,557	29,478	29,416	413	434	289	289	288
경남	31,372	36,163	40,926	40,638	41,984	471	485	274	273	273
부산	26,867	31,459	35,971	36,052	37,676	300	300	169	170	170
대구	22,893	26,809	30,731	31,258	31,811	218	218	123	123	122
울산	10,897	13,022	14,913	14,978	15,656	120	120	61	61	61
전북	17,852	20,518	23,371	22,857	24,027	376	385	207	208	208
전남	16,835	19,423	22,236	22,160	22,801	419	436	251	249	253
광주	16,204	18,893	21,493	21,159	22,097	150	150	87	86	86
제주	6,346	7,279	8,118	7,786	7,806	107	110	44	43	43
합계	460,378	525,281	596,419	588,834	605,764	5,754	5,835	3,193	3,189	3,186

2) 이 장은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 - 2 모 집 단 지 역 별 학 생 수 : 고 등 학 교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3,565	74,332	76,405	14,710	14,110	14,690	17,516	16,945	17,719	4,118	4,259	4,166
경기	124,983	122,181	122,369	4,378	4,011	3,672	21,335	20,545	21,533	4,027	4,158	4,179
인천	24,258	24,236	25,116	1,904	1,848	1,901	7,753	7,056	7,127	1,084	1,109	1,225
강원	15,007	14,771	14,779	154	153	157	3,717	3,291	3,147	389	362	328
충북	12,263	12,062	12,054	1,615	1,558	1,544	5,504	5,347	5,350	439	383	333
충남	19,291	18,792	18,648	1,972	1,907	1,701	4,905	4,893	4,962	659	532	472
대전	13,300	13,114	13,379	3,172	3,202	3,389	3,746	3,740	3,446	670	657	563
경북	22,029	21,751	21,839	2,722	2,719	2,705	6,554	6,239	6,192	597	573	487
경남	32,099	32,229	32,432	2,956	2,875	3,330	6,280	6,338	6,159	713	705	563
부산	24,521	24,957	25,753	4,072	4,173	4,279	8,808	9,142	9,662	2,029	2,056	1,883
대구	20,189	20,264	21,414	6,098	6,162	6,499	6,728	6,578	6,567	861	877	787
울산	11,718	12,343	12,731	1,010	687	719	3,379	2,953	3,043	355	353	285
전북	17,983	18,075	18,193	1,346	1,352	1,287	4,963	4,844	4,689	583	499	470
전남	14,710	14,604	14,992	2,389	2,389	2,270	6,409	6,206	6,002	473	426	356
광주	17,169	16,515	16,971	1,389	1,366	1,384	3,807	3,723	3,748	325	323	280
제주	6,055	5,826	5,923	223	237	250	1,611	1,558	1,492	145	141	103
합계	449,140	446,052	452,998	50,110	48,749	49,777	113,015	109,398	110,838	17,467	17,413	16,48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 - 3 모 집 단 지 역 별 학 교 수 : 고 등 학 교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3	181	179	44	44	44	74	74	74	17	17	17
경기	342	331	321	13	12	11	72	72	72	18	18	18
인천	79	76	75	7	7	7	29	29	29	7	7	7
강원	88	88	88	1	1	1	24	24	24	4	4	4
충북	45	46	46	6	6	5	27	27	27	4	4	4
충남	76	76	75	9	9	9	30	30	30	6	5	5
대전	37	36	36	9	9	9	12	12	12	4	4	4
경북	123	122	123	11	11	11	52	52	52	6	6	6
경남	137	136	135	10	10	10	37	37	37	6	6	6
부산	79	79	79	15	15	15	40	39	39	10	10	9
대구	50	50	50	17	17	17	20	20	20	5	5	5
울산	35	35	35	4	3	3	11	11	11	3	3	3
전북	92	92	92	5	5	5	31	31	31	4	4	4
전남	87	89	90	8	8	8	48	50	49	5	5	5
광주	47	47	46	5	5	5	12	12	12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520	1,504	1,490	165	163	161	526	527	526	104	103	102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2)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 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조사할 학교 수를 할당하였으며, 할당된 학교 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하였다.

단순비례 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은 초등학교 학생 1,270명, 중학교 학생 2,307명, 고등학교 학생 2,423명으로 총 6,000명(<표 II -4>)이며, 학교수는 225개교(<표 II -5>)로 할당되었다.

표 II - 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6,000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3	389	289	30	126	66
경기	331	586	476	49	51	
인천	71	129	95			
강원	39	70	57	30	59	
충북	41	74	47			
충남	55	98	73			
대전	42	77	51			
경북	62	114	85	54	147	
경남	87	159	125			
부산	75	141	97			
대구	64	121	80			
울산	31	59	47			
전북	49	90	70	28	46	
전남	47	87	57			
광주	45	83	65			
제주	18	31	23			
합계	1,270	2,307	1,737	191	429	66

표 II - 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225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8(4)	12(4)	9(3)	6(2)	6(2)	3(1)
경기	12(6)	21(7)	15(5)	3(1)	1	
인천	2(1)	3(1)	3(1)			
강원	2(1)	3(1)	3(1)	3(1)	2	
충북	2(1)	3(1)	3(1)			
충남	2(1)	3(1)	3(1)			
대전	2(1)	3(1)	3(1)			
경북	2(1)	3(1)	3(1)	6(2)	4	
경남	2(1)	6(1)	3(1)			
부산	2(1)	6(1)	3(1)			
대구	2(1)	3(1)	3(1)			
울산	2(1)	3(1)	3(1)			
전북	2(1)	3(1)	3(1)	3(1)	1	
전남	2(1)	3(1)	3(1)			
광주	2(1)	3(1)	3(1)			
제주	2(1)	3(1)	3(1)			
합계	48(24)	81(27)	66(22)	6(2)	21(7)	3(1)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225(83)개.

3) 표본추출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추출하였다.

학교(PSU) 추출 : 층화집락추출법(지역*교급*학교유형)	• 각 층화기준 광역 내 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 •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 •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함
학급(SSU) 선정	•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자 선정	• 추출 학급 내 재적 학생 전원 조사 원칙 • 각 층 내에서 성별 등에 따른 조정이 되도록 전체 학급의 학생수(성별), 당일 결시자, 조사거절자등 파악

【그림 II -1】 표본추출단계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으며, 사전 학교 선택 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 제외,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조사 시 성별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였다.

4) 조사표본 및 응답자 특성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 실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총 222개 학급, 6,612명으로 다음의 <표 II -6, 7>과 같다.

표 II - 6 조사 완료 학생 수 (6,612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92	369	294	36	152	76
경기	304	616	427	39	91	
인천	50	83	84			
강원	53	92	88	25	82	
충북	45	87	111			
충남	49	95	100			
대전	46	103	92			
경북	51	90	97	60	165	
경남	55	197	92			
부산	48	175	93			
대구	42	105	96			
울산	48	88	99			
전북	45	94	90	34	94	
전남	56	108	93			
광주	52	100	109			
제주	48	96	111			
합계	1,184	2,498	2,076	194	584	76

표 II - 7 조사 완료 학급 수 (222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8	12	9	6	6	3
경기	12	18	15	3	1	
인천	2	3	3			
강원	2	3	3	3	2	
충북	2	3	3			
충남	2	3	3			
대전	2	3	3			
경북	2	3	3	6	4	
경남	2	6	3			
부산	2	6	3			
대구	2	3	3			
울산	2	3	3			
전북	2	3	3	3	1	
전남	2	3	3			
광주	2	3	3			
제주	2	3	3			
합계	48	78	66	6	21	3

표 II -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098	46.9	지역	특별시/광역시	2715	41.1	
	여자	3514	53.1		중소도시	3180	48.1	
학교급	초등학교	1184	17.9		읍면지역	717	10.8	
	중학교	2498	37.8	부의 자영업 여부		안 계심	180	2.7
	고등학교	2930	44.3			예	2438	36.9
성적	상	1866	28.2		아니오	3063	46.3	
	중	2750	41.6	모름/무응답		931	14.1	
	하	1795	27.1	모의 자영업 여부		안 계심	132	2.0
	무응답	201	3.0		예	1483	22.4	
경제 수준	상	2617	39.6		아니오	4158	62.9	
	중	2794	42.3	모름/무응답		839	12.7	
	하	1167	17.6	부의 학력		안 계심	180	2.7
	무응답	34	.5		고졸이하	2007	30.4	
성격	조용함	777	11.8		초대졸~대졸이하	2395	36.2	
	보통	2435	36.8			대학원이상	483	7.3
	활발함	3355	50.7	모름/무응답		1547	23.4	
	무응답	45	.7	모의 학력	안 계심	132	2.0	
부모님 태도	존중하지 않음	521	7.9		고졸이하	2542	38.4	
	보통	1359	20.6		초대졸~대졸이하	2163	32.7	
	존중함	4658	70.4		대학원이상	246	3.7	
	무응답	74	1.1	모름/무응답	1529	23.1		
전체		6612(1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3,098명으로 전체의 46.9%, 여자청소년이 3,514명으로 전체의 53.1%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7.9%(1,184명), 중학생이 37.8%(2,498명), 고등학생이 44.3%(2,930명)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위권이 28.2%(1,866명), 중위권이 41.6%(2,750명), 하위권이 27.1%(1,795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그룹이 39.6%(2,617명), 중간그룹이 42.3%(2,794명), 하위그룹이 17.6%(1,167명)로 중상위그룹의 비율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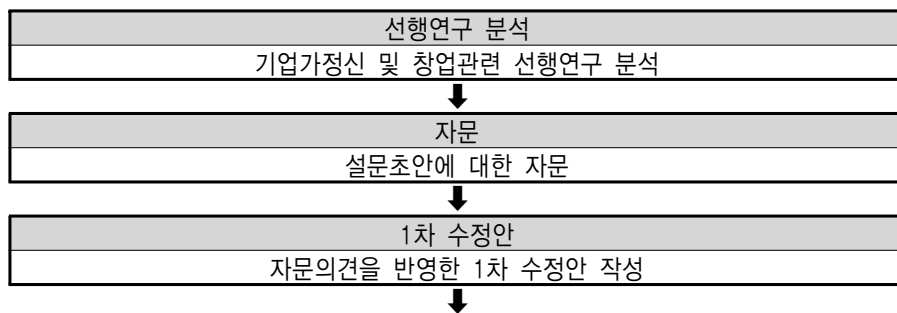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성격별 분포는 활발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0.7%(3,35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보통 36.8%(2,435명), 조용한 성격 11.8%(77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70.4%)이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0.6%(1,359명),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9%(52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청소년이 41.1%(2,715명), 중소도시 48.1%(3,180명), 읍면지역은 10.8%(717명)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모님의 자영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버지 36.9%(2,438명), 어머니 22.4%(1,483명)가 자영업(사업)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 30.4%(2,007명), 초대졸 이상~대졸 이하 36.2%(2,395명), 대학원 이상 7.3%(483명)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이하가 38.4%(2,542명), 초대졸 이상~대졸 이하가 32.7%(2,163명), 대학원 이상이 3.7%(246명)로 확인되었다.

2. 조사도구

1) 조사문항 개발절차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들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 전문가자문 및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조사문항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2】 조사문항 개발절차

설문조사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표 II-9>와 같다.

표 II-9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 영역	세부항목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비고(참고자료)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번호	
배경 변인	성 별	1	SQ1	1	SQ1	
	성 격	1	DQ1	1	DQ1	
	성 적	1	DQ2	1	DQ2	
	부모님 태도	1	DQ3	1	DQ3	자문 후 추가문항
	가정형편	1	DQ4	1	DQ4	
	자영업 여부	1	DQ5	1	DQ5	
	부모님 학력	1	DQ6	1	DQ6	
기업가 정 신 및 기업가 교 육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1	문1	1	문1	자문 후 추가문항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1	문2	1	문2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등	3	문3, 3-1, 3-2	3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3	문4, 4-1, 4-2	3	문 4, 4-1, 4-2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 에 대한 인식	5	문5(1~5)	5	문5(1~5)	한국외국어대학교교연구산학 협력단(2009; 147) 참고
	기업가정신 교육 시기	1	문 6	1	문 6	

조사 영역	세부항목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비고(참고자료)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번호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15	• 성취욕구: 문7(1~4번) • 자기통제능력: 문7(5~6번) • 위험감수성: 문7(7~8번) • 창의력: 문7(9~10번) • 자기유능감: 문7(11~15번)		• 성취욕구: 문7(1~4번) • 자기통제능력: 문7(5~6번) • 위험감수성: 문7(7~8번) • 창의력: 문7(9~10번) • 자기유능감: 문7(11~15번)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2009; 103-111) 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대한인식	7	문 8(1~7번)	7	문 8(1~7번)	안선영 외(2011, 103-104) 참고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대한인식	10	문 9(1~10번)	10	문 9(1~10번)	자문 후 추가문항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1	문 10	1	문 10	자문 후 추가문항
취업/ 창업/ 창업 교육	미래 취업환경 에 대한 인식	1	문 11	1	문 11	박동 외(2010; 191-192) 참고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인식	1	문 12	1	문 12	
	창업 의향	3	문 13, 13-1, 13-2	3	문 13, 13-1, 13-2	
	창업 관심	5	• 창업관심: 문 14(1~3번) • 도전의식: 문 14(4~5번)	5	• 창업관심: 문 14(1~3번) • 도전의식: 문 14(4~5번)	류준호(2011; 184) 참고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1	문 15	1	문 15	박동 외(2010; 191-198) 참고
	아이디어 창업 화 환경에 대한 인식	1	문 16	1	문 16	
	창업교육 시 기	1	문 20	1	문 22	
	창업태도와 창업역량수준	10	• 창업태도: 문17(1~8번) • 창업역량: 문17(9~10번)		• 창업태도: 문17(1~8번) • 창업역량: 문17(9~10번)	• 창업태도: 류준호 (2011; 187) 참고 • 창업역량: 남정인 (2013; 69-70) 참고

조사영역	세부항목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비고(참고자료)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번호	
	창업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	-	9	문 18(1~9번)	남정인(2013; 70-71) 참고
	창업관련활동 참여 여부	7	문 18(1~7번)	7	문 19(1~7번)	
	취업/창업하고 싶은 분야	-	-	2	문 23(1~2번)	박동 외(2010; 191-198) 참고
	창업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	-	10	문 20(1~10번)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1	문 21	1	문 24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운영/계획 주체	2	문 22 22-1	2	문 27, 27-1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필요요소	-	-	1	문 25	
	창업교육효과에 대한 인식	8	문 19 (1~8번)	8	문 21(1~8번)	남춘애(2012; 110-112) 참고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	-	1	문 26	자문 후 추가문항
문화가치	권력거리	4	문 23(1~4번)	4	문 28(1~4번)	정미란(2011; 230) 참고
	남성성	4	문 24(1~4번)	4	문 29(1~4번)	
	불확실성 회피	4	문 25(1~4번)	4	문 30(1~4번)	
	장기지향성	3	문 26(1~3번)	3	문 31(1~3번)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 수준	9	• 행동중심전략: 문27(1~4번) • 자연적보상전략: 문27(5~6번) • 건설적 전략: 문27(7~9번)	9	• 행동중심전략: 문32(1~4번) • 자연적보상전략: 문32(5~6번) • 건설적 전략: 문32(7~9번)	이종찬(2013; 148-149), 노병수(2011; 55-56)참고

2) 조사영역별 관련개념

(1)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리차드 드 캔틸런(Richard de Cantillon)이 기업가들이 경험하는 위험부담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다(김승경·김명희, 2013: 14).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양한 정의들이 등장하는데(Murphy, Liao and Welsch, 2006), Stevenson(1983)은 기업가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 (the pursuit of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esources currently controlled)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의 실천적 핵심을 잘 표현하였으며, 아울러 기업가정신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무조건 위험에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계산된 위험” (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 113). 한편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 (a way of thinking, reasoning, and acting that is opportunity obsessed, holistic in approach, and leadership balanced)으로 정의하여 기업가정신이 접근방법이나 “사고” 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 113).

이 밖에도 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과정에서 리더로서의 공헌자를 기업가로 정의하였으며,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자신의 저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 유용한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는 경영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뱁슨 대학(Babson College)의 론스타드(Ronstadt)교수는 자신의 저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정신이란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이며 이는 마치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때로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티븐슨(H.H. Stevenson)은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을 설립하거나 혁신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송영수, 2010: 6-7).

기업가정신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국내 사회에도 널리 강조됨에 따라 그 범위가 창업(new business creation)으로부터 조직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및 공공 부문 기업가정신(public-sector entrepreneurship)까지 확대되었으며, 창업정신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신사업을 추구하고 조직의 혁신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회와 성과를 창출하는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송영수, 2010: 5-6).

우리사회에서는 “entrepreneurship” 이 “기업가정신” 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창업가에게 필요한 정신 정도의 지극히 한정된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만 entrepreneurship 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1) 변화의 흐름 속에 기회를 포착해 (2) 효율적인 가치창조과정을 통해 (3)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4) 사고방식, 철학, 신념, 능력 등으로 (5) 창업가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 사회활동가와 정치가에게도 적용된다(장영화, 2013: 5).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창업자이든, 조직의 구성원이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가치창조과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역량” 이라고 할 것이다(장영화, 2013: 6).

이상과 같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정의들을 내리고 있으며, 배종태(2009: 3)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 - 10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

연구자	정의	중심내용
Knight(1921)	불확실성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위험감수, 이윤추구
Schumpeter(1934)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	새로운 결합 촉진
McClelland(1961)	개인의 적절한 위험 도전 성향	위험감수
Leibenstein(1970)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직의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과정/활동	비효율성 제거, 가치창출
Casson(1982)	희소자원을 조정하는 의사결정 활동과 과정	자원의 조정
Stevenson(198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	기회추구
Burgelman(1983)	사내벤처(팀)를 창출하는 과정	조직체 창조
Ronstadt(1984)	점진하는 부 창출을 창조하는 역동적 과정	이윤추구
Gartner(1985)	신조직의 창조(과정/활동)	조직체 창조
Drucker(1985)	새로운 부창출 능력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혁신의 한 행동	혁신 (자원의 할당)
Hisrich(1985)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가치창출
Schuler(1986)	사내기업가들의 혁신적, 위험감수적 활동	혁신과 위험수당
Stevenson & Jarillo-Mossi(1986)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가치창출
McMillan & Long(1990)	새로운 성장기업을 구축하는 과정 또는 활동	성장성

Amit, Glosten & Muller(1993)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 하에서 새롭고 독특하고, 가치있는 자원의 조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자원의 조합
Timmons(1994)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	기회추구, 사고/추론/행동방식
Kao(1995)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창출
Lumpkin & Dess(1996)	조직의 신규진입	조직체 창조
Sexton & Smilor(1997)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행위	사업기회 추구하고 성장성
Duane & Hitt(1997)	파악된 기회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자원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	자원수집과 통합 이윤추구
배종태·차민석(200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기회를 추구하는 사고방식, 행동양식

* 자료: 배종태(2009: 3)

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리해보면,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모험 정신과 도전의식, 열정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인 자세로 신사업을 개척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정신(송영수, 2010: 6-7)이라고 할 수 있는 한편, 가치를 창조하는 기회를 인지하고 이러한 기회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이며, 단순히 사고하고 추론하는 것을 넘어선 실천지향적인 행동방식을 의미(김승경·김명희, 2013: 14-15)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배종태·차민석(2009: 113-114)은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a way of thinking, and acting to seize and pursue an opportunity without concern for current resources or capabilities)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

송영수(2010: 7-8)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로 혁신(innovation), 리더십(leadership), 책임의식(responsibility)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혁신 정신이며, 기업가는 혁신가와도 같다는 슈페터의 의견과 일치하며,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개방적 사고(open-mind)와 도전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신사업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이끄는 혁신의 자세를 의미한다. 혁신은 창업 시 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송영수, 2010: 7).

기업가정신의 두 번째 핵심요소는 리더십이며 이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셀프 리더십에서부터 타인을 독려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성공적인 기업가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은 진취적이고 열정이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송영수, 2010: 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혁신을 주도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여 임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이다.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도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송영수, 2010: 8).

(3) 기업가적 역량요소

기업가정신의 주요요소로 기업가적 역량과 전문역량 확보를 설명하기도 한다(벤처스퀘어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2013: 8-10).

① 기업가적 역량 및 하위요소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포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로 요약되며 각 역량별 하위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II - 11 기업가적 역량과 하위요소

구분	하위요소	정의
기 업 가 적 포 부	포부	기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몰입함
	글로벌마인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자신의 관심분야와 사회기회를 해외로 확대함
	자기성찰	자기 스스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해 깊이있게 반성함
	인문, 사회, 문화적 지식	기업가로서 종합적인 관점을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철학, 사상, 역사, 예술, 문화 등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

혁신성	문제해결지향	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
	고객지향	고객의 욕구를 찾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
	관찰력	기존의 현상이나 사물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태도
진취성	도전정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는 태도
	자기주도성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는 태도
	목표지향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위험감수	위험감수	어떤 일에 따르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기회로 추구하는 태도
	모호함에 대한 인내	불확실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내하고자 하는 태도

* 자료: 벤처스퀘어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2013: 9, 김승경 · 김명희, 2013: 15-16.

② 전문역량 및 하위요소

전문역량은 지식재산기반능력, 인지적 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사업화능력으로 요약되며 각 역량별 하위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II - 12 개 인 의 전 문 역 량 과 하 위 요 소

구분	하위요소	정의
지식재산기반능력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패러다임의변화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인식, 지식재산의 개념 이해
	지식재산기반 기술능력	지적재산권 창출에 대한 기술능력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	자신만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초학문 지식 확보
인지적능력	분석적 사고 능력	사물이나 현상의 함축된 의미를 단계적 또는 인과론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 기회, 위협, 개인 및 조직의 강약점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책 마련
대인관계능력	협상능력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격차를 최소화하고 타협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네트워킹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
	팀워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기술사업화능력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기업가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
	시장조사 및 마케팅 능력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의 개발, 가격결정, 판매촉진, 유통 등에 대한 조사, 계획, 조사수행능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능력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 자료: 벤처스퀘어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2013: 10, 김승경 · 김명희, 2013: 16-17.

(4) 창업에 대한 태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창업태도(attitude), 활동(activity), 열망(aspiration)으로 측정하는데,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창업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안선영·김희진, 2011: 15).

표 II - 13 창업태도: 용어와 해설

용어	해설
창업기회인식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창업능력인식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창업의도	5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
실패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직업선택시 창업선호	해당사회(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창업을 선호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언론의 창업관심도	해당 국가에서 공공매체를 통해 자주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 자료: 반성식 외(2010), 안선영·김희진, 2011: 15에서 재인용.

(5)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안선영·김희진, 2011: 15). 홉스테드(Hofstede) 모델로 알려진 VSM(values survey module)에 의하면 문화적 가치지향성을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력거리의 높고 낮음, 여성성 대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인생에 대한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 등 5가지 차원으로 나눈다(권순택, 2004: 45-46). 이들 차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홉스테드(Hofstede)에 의하면 집단주의는 출생부터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 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고 내집단에 헌신하는 대가로 평생토록 보호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성이고, 이에 반해 개인주의는 개인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를 말하며 자기 자신과 가족(핵가족의

좁은 범위)을 스스로 돌보도록 기대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성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는 자아와 타인들 간에 튼튼한 벽이 있고, 가까운 내집단과 그 밖의 타인들(외집단)사이에는 매우 얇은 벽이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타인들을 좀 더 가까운 이웃과 동일시감정(identification)에 의해 연대된다는 것이다(권순택, 2004: 46)

② 높고 낮은 권력거리(high/low power distance)

권력거리란 사람들 사이의 의존관계(dependence)의 척도이다. 이것이 높다는 것은 계층간에 감정적 거리감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뜻 다가가서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기가 어렵다. 반대의견을 내놓고 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의존관계(dependence)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존관계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후자는 심리학에서 반 의존관계(counter-dependence)로 알려져 있다. 마이너스 부호를 지닌 관계이다. 따라서 중립적 형태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극단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권력거리가 낮은 문화에서는, 계층간의 감정적 거리감이 적어서 아랫사람이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며 반대의견도 낼 수 있는 분위기이다. 상호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의하는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e)를 선호한다(권순택, 2004: 49)

③ 강하고 약한 불확실성 회피성향(strong/weak uncertainly avoidance)

불확실성 회피성향이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주관적 감정인데, 이 성향이 강한사회에서는 그만큼 불안 수준과 긴장성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행복지수는 낮은 경향이 있어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강하게 회구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성문율의 필요성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 성향이 약한 사회에서는 모호성은 생활의 일상적인 특징이며 애매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모험에 대해 편하게 느낀다(권순택, 2004: 51-52). 불확실성 회피성향(uncertainly avoidance)은 다른 것에 대한 강한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대해 왔던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므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일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차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권순택, 2004: 54).

(6)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기업가정신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셀프리더십 개념의 주창자인 Manz는 셀프리더십을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 자기효능감을 위한 기술이고 행동통제의 기초이며 자아완성의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김연정·노병수, 2012: 24).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전략 중 행동중심적 전략에 유능한 셀프리더는 독립적, 창조적이며 자신의 일에서 높은 성취감을 갖는 것을 목표로 행동하고, 자연적 보상전략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즐거움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적 보상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의 내용과 방식, 장소 등을 자신이 재설계 하는 것이다. 건설적 사고전략은 성공적 성공의 가시화,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에 대한 평가가 있다(이종찬, 2013: 11).

3)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 문항

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수준 및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만족, 요구수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및 만족도,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기업가정신교육 내용별 선호도, 기업가정신교육을 위한 적정시기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가정신교육 관련문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2009; 147)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②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 역량수준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 역량수준은 5영역(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성취욕구 영역은 다시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적극적·혁신적 활동으로 세분되며, 자기통제능력 영역은 다시 긍정적 사고, 자기신념으로, 위험감수성 영역은 도전의식으로, 창의력 영역은 확산적 사고, 진취성으로, 자기유능감 영역은 자기확신, 자아존중감, 사회적 네트워킹으로 세분된다.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 역량 관련문항은 Dur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s Get Test 2/16, Steven's EP Test 7/ 10/ 19, Carlan's Entrepreneurship Index(1998)

12/ 16, Timmons Model of Entrepreneurship(1987), Hepner(1982)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중소기업 청·창업진흥원(2009; 103-111)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인식수준은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관련문항은 안선영 외(2011; 103-104)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2)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 문항

① 취업·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및 창업교육 경험, 만족, 요구수준

취업·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 창업교육 경험 및 만족도,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창업교육 내용별 선호도, 창업교육을 위한 적정시기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업환경 관련문항은 박동 외(2010; 191-198)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② 창업태도 및 창업역량수준

창업태도는 인지, 감정, 행동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Homer(1990)의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Some Additional Evidence, McaKenzie(1986)의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Keller(1998)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류준호(2011; 187)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창업역량 및 창업 장애요인 관련문항은 Krueger(2003; 411-432)의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y(1991)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남정인(2013; 69-71)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4)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 관련 문항

① 문화가치

문화가치는 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영역으로 세분되어 분석되었으며, 관련문항은 Hofstede(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 in work-related

values. Hofstede(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Hofstede(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정미란(2011; 230)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②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전략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관련문항은 Houghton, J.D. & Neck, C.P.(2002; 672-691), Covin, G.& Slevin D.P.(1990; 123-135), Schumpeter, J.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노병수(2011; 55-56), 이종찬(2013; 148-149)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5) 배경변인

배경변인으로는 성, 학교급, 지역, 경제수준, 성격 등이 활용되었다. 성격, 경제수준은 청소년이 지각한 주관적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인 구분도 가능하나, 전체 응답비율(일반고 31.4%(2,076명), 자율고 2.9%(194명), 특성화고 8.8%(584명), 특수목적고 1.1%(76명)을 고려해 세부분류는 하지 않았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주요 배경변인별 χ^2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사후검증 Scheffe)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배경변인은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경제수준(상, 중, 하), 성격(조용함, 보통, 활발함)이었다. 그리고 ‘문화가치’, ‘셀프리더십’ 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분석은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제 III 장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분석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2.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3.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관련인식
4. 문화가치수준
5. 셀프리더십수준
6.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
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7. 소결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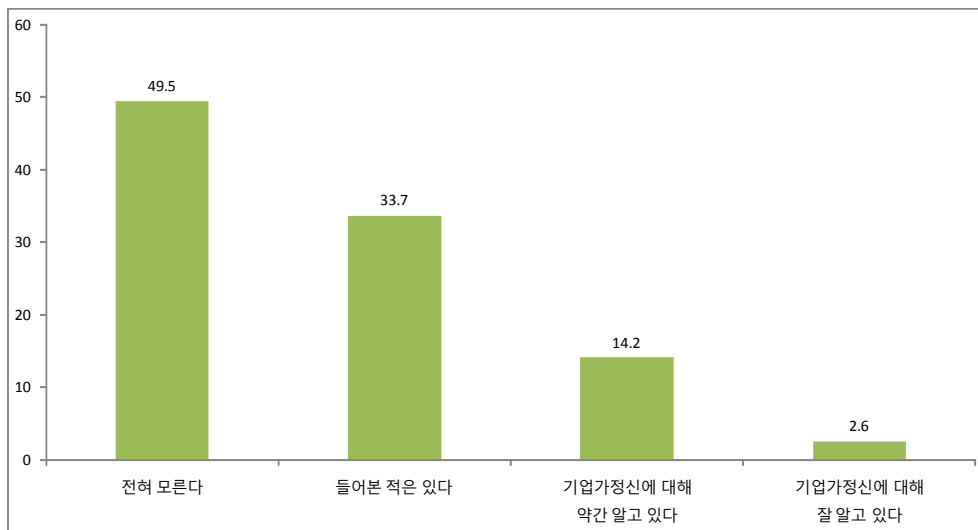
제 III 장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분석³⁾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해 알고 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정도 (49.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들어본 적은 있다’는 청소년이 33.7%, ‘기업가정신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는 청소년이 14.2%, ‘기업가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청소년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3) 이 장은 문호영(나사렛대학교)이 집필하였음.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67, 여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72로,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M=1.86$), 초등학생($M=1.67$), 중학생($M=1.52$)의 순으로 인지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그룹($M=1.77$)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하위그룹($M=1.70$), 중간그룹($M=1.63$)의 순으로 인지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p<.001$).

표 III - 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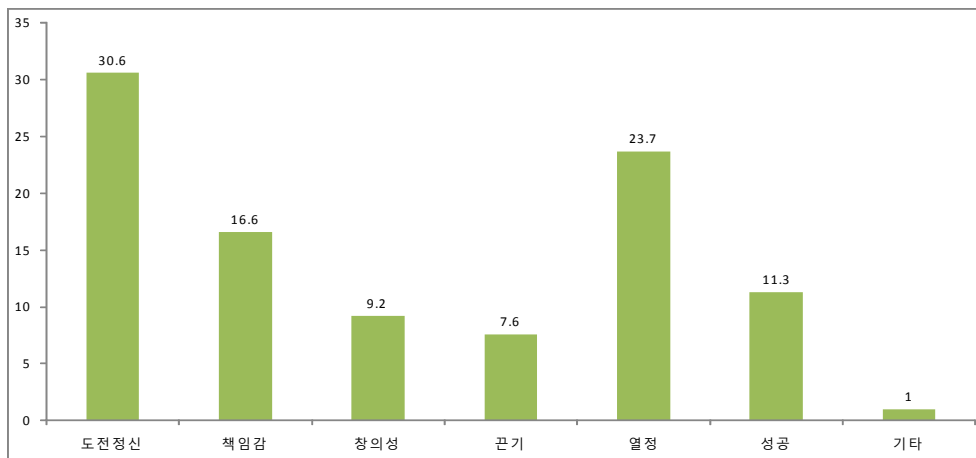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9	1.70	.806		
성별	남자	3095	1.67	.805	$t=-2.625$ $p=.009$	
	여자	3514	1.72	.805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1.67	.783	$F=129.554$ $p=.000$	c>a>b
	중학교 ^b	2496	1.52	.723		
	고등학교 ^c	2930	1.86	.846		
지역	특별시/광역시	2714	1.70	.801	$F=.113$ $p=0.894$	
	중소도시	3178	1.69	.803		
	읍면지역	717	1.71	.834		
경제수준	상 ^a	2616	1.77	.843	$F=21.108$ $p=.000$	a>c>b
	중 ^b	2792	1.63	.768		
	하 ^c	1167	1.70	.799		
성격	조용함	777	1.70	.810	$F=.021$ $p=.979$	
	보통	2435	1.70	.798		
	활발함	3352	1.70	.812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은 있다(2점), 기업가정신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3점), 기업가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4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상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질문하고 복수응답으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III-2]에 제시하였다. 즉, ‘도전정신’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열정’ (23.7%),

‘책임감’ (16.6%), ‘성공’ (11.3%), ‘창의성’ (9.2%), ‘끈기’ (7.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기타’ 응답으로는 ‘회사’, ‘리더십’, ‘이윤 창출’ 등이 연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Ⅲ-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표 Ⅲ-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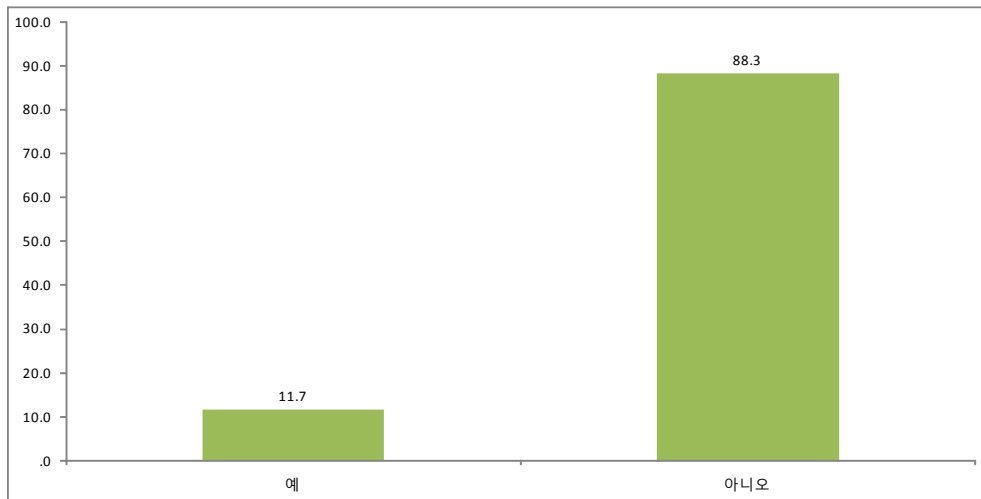
구분		도전정신	책임감	창의성	끈기	열정	성공	기타	전체
전체		30.6	16.6	9.2	7.6	23.7	11.3	1.0	100.0
성별	남자	28.6	16.1	9.9	8.5	23.5	12.2	1.3	100.0
	여자	32.3	17.1	8.7	6.9	23.8	10.5	.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0.8	14.9	6.4	12.2	21.1	13.7	.9	100.0
	중학교	28.5	16.2	7.5	8.9	24.9	13.1	.9	100.0
	고등학교	32.2	17.6	11.9	4.7	23.7	8.8	1.1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30.5	17.0	8.9	7.6	23.2	11.8	1.0	100.0
	중소도시	30.8	16.0	9.4	7.7	24.3	10.8	1.0	100.0
	읍면지역	30.0	17.9	9.7	7.5	22.6	11.6	.6	100.0
경제수준	상	30.1	16.1	9.1	7.9	24.1	11.6	1.1	100.0
	중	31.1	16.5	9.1	7.8	23.4	11.3	.8	100.0
	하	30.6	17.8	9.9	6.4	23.4	10.7	1.2	100.0
성격	조용함	30.4	17.2	10.4	7.3	22.6	10.9	1.1	100.0
	보통	30.1	17.4	9.7	7.3	24.0	10.5	.9	100.0
	활발함	31.1	15.9	8.6	7.9	23.6	11.9	1.0	100.0

구체적으로 성별과 지역, 경제수준 및 성격에 따른 연상이미지의 순위는 유사하였으나, 학교급에 따른 순위는 다소 다르게 보고되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도전정신’ (초 30.8%, 중 28.5%), ‘열정’ (초 21.1%, 중 24.9%), ‘책임감’ (초 14.9%, 중 16.2%), ‘성공’ (초 13.7%, 중 13.1%), ‘끈기’ (초 12.2%, 중 8.9%), ‘창의성’ (초 6.4%, 중 7.5%)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도전정신’ (32.2%), ‘열정’ (23.7%), ‘책임감’ (17.6%), ‘창의성’ (11.9%), ‘성공’ (8.8%), ‘끈기’ (4.7%)의 순으로 대답했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미지로 성공과 끈기를 보다 먼저 생각한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창의성과 성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III-2>).

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및 만족도

(1)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1.7%, ‘아니오’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8.3%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명 중 9명의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기업가정신교육의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참여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과 같이, 성별 및 학교급,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자(12.5%)가 남자(10.8%) 청소년보다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p<.05$), 학교급별로는 중학생(12.2%)과 고등학생(12.7%)이 초등학생(8.1%)보다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그룹(13.7%), 하위그룹(11.6%), 중간그룹(9.9%)의 순으로 참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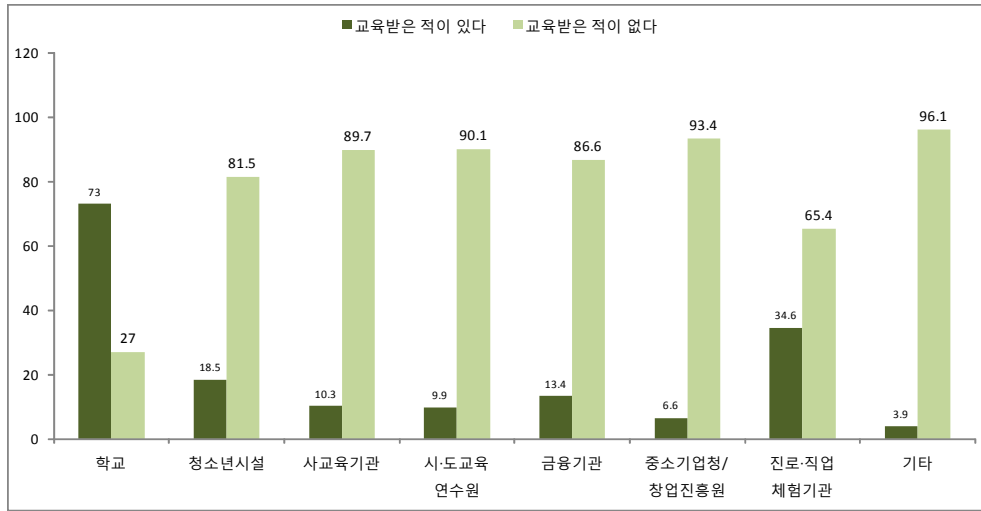
표 III - 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11.7	88.3	100.0	
성별	남자	10.8	89.2	100.0	$\chi^2=4.493$ $p=.034$
	여자	12.5	87.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1	91.9	100.0	$\chi^2=18.417$ $p=.000$
	중학교	12.2	87.8	100.0	
	고등학교	12.7	87.3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11.2	88.8	100.0	$\chi^2=1.360$ $p=.507$
	중소도시	11.9	88.1	100.0	
	읍면지역	12.7	87.3	100.0	
경제수준	상	13.7	86.3	100.0	$\chi^2=18.566$ $p=.000$
	중	9.9	90.1	100.0	
	하	11.6	88.4	100.0	
성격	조용함	11.2	88.8	100.0	$\chi^2=2.555$ $p=.279$
	보통	11.0	89.0	100.0	
	활발함	12.3	87.7	100.0	

(2)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기업가정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장소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참여비율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체험기관’ (34.6%), ‘청소년시설’ (18.5%), ‘금융기관’ (13.4%), ‘사교육기관’ (1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기관 및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에서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Ⅲ-4】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①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학교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 참여경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4>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Ⅲ-4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학교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73.0	27.0	100.0	
성별	남자	68.1	31.9	100.0	$\chi^2=7.306$ $p=.007$
	여자	76.8	23.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6.3	43.8	100.0	$\chi^2=21.415$ $p=.000$
	중학교	70.8	29.2	100.0	
	고등학교	79.1	20.9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69.5	30.5	100.0	$\chi^2=3.539$ $p=.170$
	중소도시	75.9	24.1	100.0	
	읍면지역	72.5	27.5	100.0	
경제수준	상	67.3	32.7	100.0	$\chi^2=11.348$ $p=.003$
	중	76.9	23.1	100.0	
	하	80.0	20.0	100.0	
성격	조용함	70.1	29.9	100.0	$\chi^2=2.660$ $p=.264$
	보통	76.4	23.6	100.0	
	활발함	71.1	28.9	100.0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으며, 남자(68.1%)보다 여자(76.8%) 청소년의 참여경험이 약 9% 정도 높게 나타났다($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79.1%), 중학생(70.8%), 초등학생(56.3%)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하위그룹 청소년의 참여가 8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간그룹(76.9%), 상위그룹(67.3%)의 순으로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②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의 여부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22.4%) 청소년이 여자(15.5%)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시설에서의 교육에 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중학생(25.2%)의 참여율은 초등학생(20.8%)과 고등학생(12.3%)보다 약 4~13% 정도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p<.001$).

표 Ⅲ-5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청소년시설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전체		18.5	81.5	100.0
성별	남자	22.4	77.6	100.0
	여자	15.5	84.5	100.0
		$\chi^2=6.003$ $p=.014$		
학교급	초등학교	20.8	79.2	100.0
	중학교	25.2	74.8	100.0
	고등학교	12.3	87.7	100.0
		$\chi^2=18.982$ $p=.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20.7	79.3	100.0
	중소도시	16.7	83.3	100.0
	읍면지역	18.7	81.3	100.0
		$\chi^2=1.786$ $p=.409$		
경제수준	상	20.7	79.3	100.0
	중	17.0	83.0	100.0
	하	15.6	84.4	100.0
		$\chi^2=2.330$ $p=.312$		
성격	조용함	17.2	82.8	100.0
	보통	16.5	83.5	100.0
	활발함	19.7	80.3	100.0
		$\chi^2=1.168$ $p=.558$		

③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사교육기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사교육기관’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 참여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14.3%) 청소년의 참여경험이 여자(7.3%) 청소년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28.1%), 중학생(11.8%), 고등학생(4.6%) 순으로 교육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이 사교육기관에서 기업가정신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표 III - 6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사교육기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10.3	89.7	100.0	
성별	남자	14.3	85.7	100.0	$\chi^2=10.159$ $p=.001$
	여자	7.3	92.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8.1	71.9	100.0	$\chi^2=46.927$ $p=.000$
	중학교	11.8	88.2	100.0	
	고등학교	4.6	95.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11.5	88.5	100.0	$\chi^2=.942$ $p=.624$
	중소도시	9.3	90.7	100.0	
	읍면지역	11.0	89.0	100.0	
경제수준	상	10.6	89.4	100.0	$\chi^2=2.720$ $p=.257$
	중	11.9	88.1	100.0	
	하	6.7	93.3	100.0	
성격	조용함	8.0	92.0	100.0	$\chi^2=1.835$ $p=.399$
	보통	8.6	91.4	100.0	
	활발함	11.4	88.6	100.0	

④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는 <표 III-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10% 정도의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단,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 13.4%, 여자청소년은 7.3%가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표 Ⅲ - 7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9.9	90.1	100.0	
성별	남자	13.4	86.6	100.0	$\chi^2=8.005$ $p=.005$
	여자	7.3	92.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3.5	86.5	100.0	$\chi^2=2.265$ $p=.322$
	중학교	10.5	89.5	100.0	
	고등학교	8.6	91.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11.1	88.9	100.0	$\chi^2=.826$ $p=.662$
	중소도시	9.3	90.7	100.0	
	읍면지역	8.8	91.2	100.0	
경제수준	상	11.7	88.3	100.0	$\chi^2=2.698$ $p=.259$
	중	7.9	92.1	100.0	
	하	8.9	91.1	100.0	
성격	조용함	5.7	94.3	100.0	$\chi^2=4.382$ $p=.112$
	보통	7.9	92.1	100.0	
	활발함	11.7	88.3	100.0	

⑤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금융기관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과 성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보고되었다(표 Ⅲ-8). 먼저,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에서의 교육 경험은 경제수준이 상위그룹(17.3%)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하위그룹(11.9%), 중간그룹(9.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p < .01$). 성격에 따른 차이는 활발한 청소년의 참여경험이 1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보통(10.1%)과 조용한(9.2%) 성격의 청소년은 활발한 청소년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 .05$).

표 Ⅲ - 8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금융기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13.4	86.6	100.0	
성별	남자	15.8	84.2	100.0	$\chi^2=2.887$ $p=.089$
	여자	11.6	88.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1.5	88.5	100.0	$\chi^2=1.735$ $p=.420$
	중학교	15.4	84.6	100.0	
	고등학교	12.3	87.7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16.1	83.9	100.0	$\chi^2=3.827$ $p=.148$
	중소도시	12.4	87.6	100.0	
	읍면지역	8.8	91.2	100.0	
경제수준	상	17.3	82.7	100.0	$\chi^2=9.598$ $p=.008$
	중	9.0	91.0	100.0	
	하	11.9	88.1	100.0	
성격	조용함	9.2	90.8	100.0	$\chi^2=6.304$ $p=.043$
	보통	10.1	89.9	100.0	
	활발함	16.0	84.0	100.0	

⑥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

표 Ⅲ - 9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6.6	93.4	100.0	
성별	남자	11.0	89.0	100.0	$\chi^2=19.051$ $p=.000$
	여자	3.2	96.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4	89.6	100.0	$\chi^2=2.843$ $p=.241$
	중학교	6.6	93.4	100.0	
	고등학교	5.6	94.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5.6	94.4	100.0	$\chi^2=1.408$ $p=.495$
	중소도시	7.7	92.3	100.0	
	읍면지역	5.5	94.5	100.0	
경제수준	상	7.3	92.7	100.0	$\chi^2=.449$ $p=.799$
	중	6.1	93.9	100.0	
	하	5.9	94.1	100.0	
성격	조용함	5.7	94.3	100.0	$\chi^2=.428$ $p=.807$
	보통	5.6	94.4	100.0	
	활발함	6.8	93.2	100.0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관계없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다만, 성별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청소년의 교육 참여는 11.0%, 여자청소년의 참여는 3.2%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청소년들이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약 8% 가량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⑦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진로·직업체험기관

‘진로·직업체험기관’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의 여부는 청소년의 성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 학교급, 지역,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성별을 보면 여자(31.0%)보다 남자(39.4%) 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p<.05$),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53.1%)의 교육 경험이 중학생(41.0%)과 고등학생(24.7%)보다 약 12%, 28% 높게 보고되었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43.3%)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중소도시(29.1%)와 읍면지역(28.6%)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체험기관에서 참여경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p<.001$),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그룹(40.5%), 중간그룹(30.7%), 하위그룹(27.4%)의 순으로 진로·직업체험기관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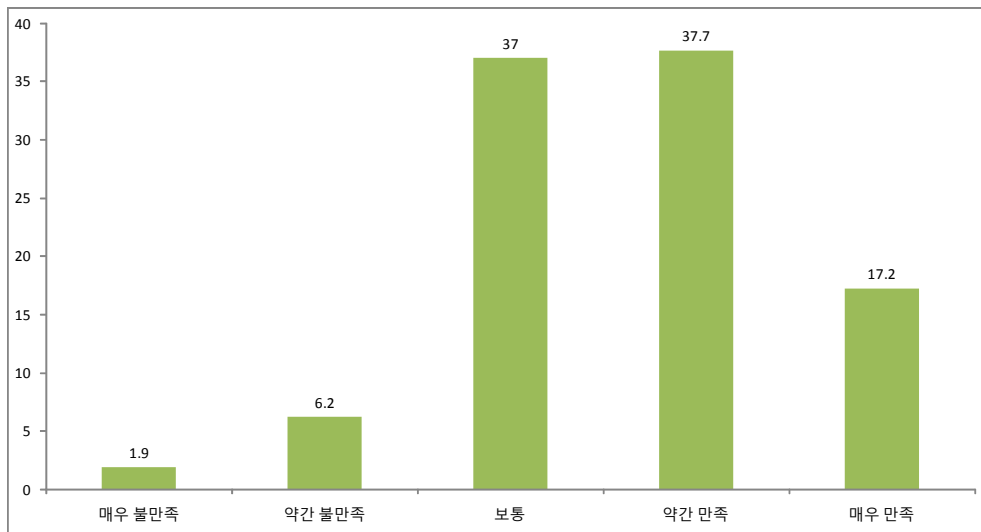
표 Ⅲ - 10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진로·직업체험기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34.6	65.4	100.0	
성별	남자	39.4	60.6	100.0	$\chi^2=5.956$ $p=.015$
	여자	31.0	69.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3.1	46.9	100.0	$\chi^2=36.309$ $p=.000$
	중학교	41.0	59.0	100.0	
	고등학교	24.7	75.3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43.3	56.7	100.0	$\chi^2=16.660$ $p=.000$
	중소도시	29.1	70.9	100.0	
	읍면지역	28.6	71.4	100.0	
경제수준	상	40.5	59.5	100.0	$\chi^2=10.462$ $p=.005$
	중	30.7	69.3	100.0	
	하	27.4	72.6	100.0	
성격	조용함	33.3	66.7	100.0	$\chi^2=4.263$ $p=.119$
	보통	30.0	70.0	100.0	
	활발함	37.6	62.4	100.0	

(3)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자세히 보면, 교육내용에 만족한다(약간 만족, 매우 만족)는 청소년이 54.9%, 보통 수준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37.0%를 차지했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는 의견도 소수(8.1%)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5】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의 만족도는 평균 3.62로 나타났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지역, 성격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M=4.00)이 중학생(M=3.62)과 고등학생(M=3.52)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사후검증의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3.72)의 청소년이 하위그룹(M=3.47)의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표 Ⅲ-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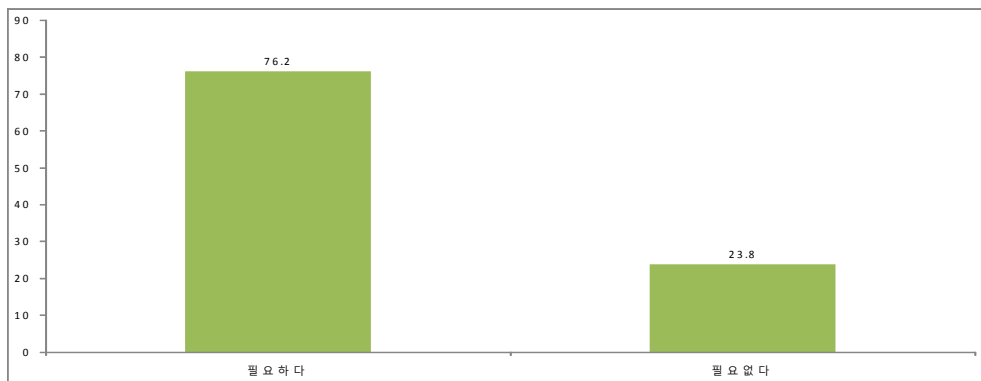
표 Ⅲ - 11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774	3.62	.906		
성별	남자	335	3.64	.944	t=.420 p=.675	
	여자	439	3.61	.877		
학교급	초등학교 ^a	96	4.00	.883	F=10.865 P=.000	a>b,c
	중학교 ^b	305	3.62	.888		
	고등학교 ^c	373	3.52	.903		
지역	특별시/광역시	305	3.70	.914	F=2.220 p=.109	
	중소도시	378	3.58	.883		
	읍면지역	91	3.52	.959		
경제수준	상 ^a	358	3.72	.918	F=4.416 p=.012	a>b
	중	277	3.57	.860		
	하 ^b	135	3.47	.945		
성격	조용함	87	3.74	.869	F=2.236 p=.108	
	보통	267	3.53	.872		
	활발함	412	3.65	.938		

1) 매우 불만족(1점), 약간 불만족(2점), 보통(3점), 약간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2%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8%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3/4 이상은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그림 Ⅲ - 6】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표 III-12>와 같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우선, 성별에 따라 남자청소년의 71.8%, 여자청소년의 80.1%가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그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80.4%), 고등학생(77.5%), 중학생(72.7%)의 순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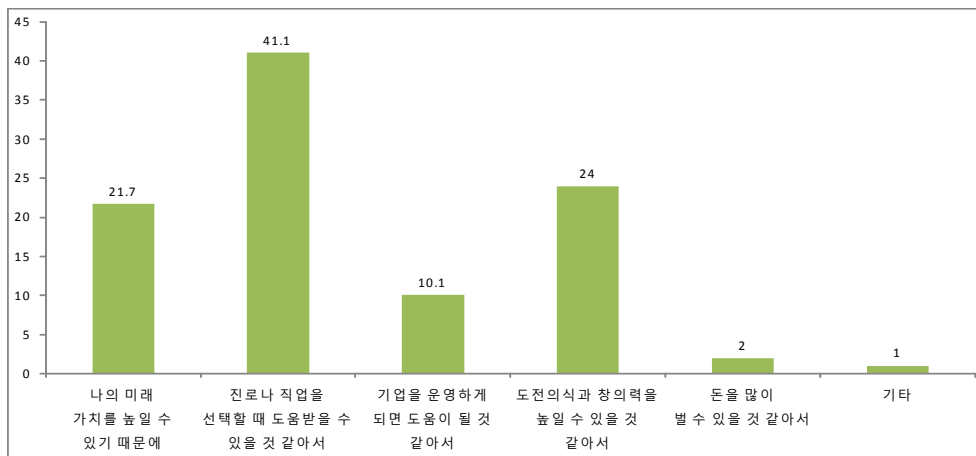
표 III-12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통계치
전체		76.2	23.8	100.0	
성별	남자	71.8	28.2	100.0	$\chi^2=61.101$ $p=.000$
	여자	80.1	19.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0.4	19.6	100.0	$\chi^2=31.155$ $p=.000$
	중학교	72.7	27.3	100.0	
	고등학교	77.5	22.5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76.9	23.1	100.0	$\chi^2=3.477$ $p=.176$
	중소도시	76.2	23.8	100.0	
	읍면지역	73.6	26.4	100.0	
경제수준	상	77.2	22.8	100.0	$\chi^2=2.574$ $p=.276$
	중	75.4	24.6	100.0	
	하	76.5	23.5	100.0	
성격	조용함	76.2	23.8	100.0	$\chi^2=1.392$ $p=.499$
	보통	75.5	24.5	100.0	
	활발함	76.9	23.1	100.0	

(1)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7]과 같다. 청소년들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를 41.1%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를 24.0%,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를 21.7%,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를 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그림 Ⅲ-7】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표 Ⅲ-13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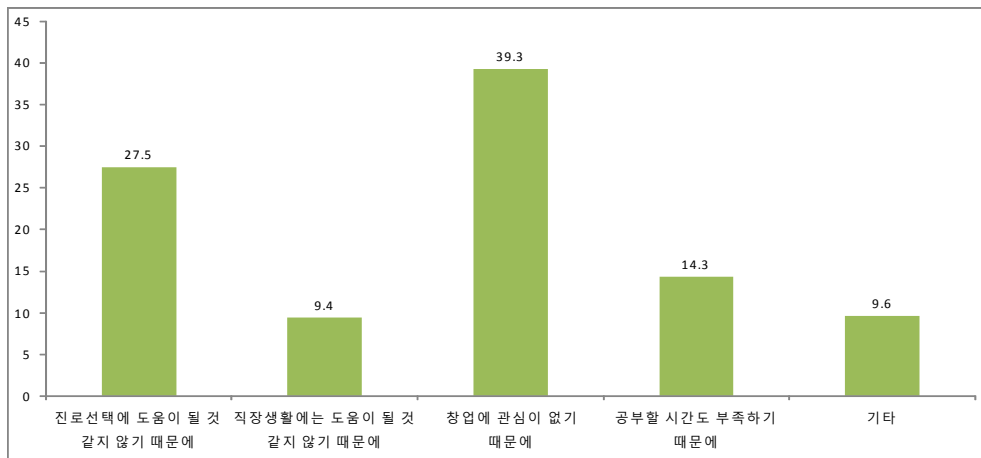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통계치
전체		21.7	41.1	10.1	24.0	2.0	1.0	100.0	
성별	남자	23.2	39.9	10.9	21.5	3.4	1.1	100.0	$\chi^2=54.444$ p=.000
	여자	20.6	42.0	9.6	26.0	1.0	.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6.0	42.9	8.1	19.8	2.9	.4	100.0	$\chi^2=120.482$ p=.000
	중학교	21.7	46.5	8.7	19.8	2.6	.7	100.0	
	고등학교	19.9	36.1	12.2	29.1	1.3	1.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21.4	41.9	10.6	23.0	2.2	1.0	100.0	$\chi^2=7.504$ p=.677
	중소도시	21.7	40.6	10.2	24.7	1.8	1.0	100.0	
	읍면지역	23.3	40.6	8.1	24.6	2.7	.8	100.0	
경제수준	상	23.0	40.7	10.1	23.6	1.8	.8	100.0	$\chi^2=12.998$ p=.224
	중	20.5	41.8	10.6	24.3	2.0	.9	100.0	
	하	21.8	41.0	9.0	23.8	2.6	1.7	100.0	
성격	조용함	20.1	44.8	9.5	22.7	2.2	.7	100.0	$\chi^2=17.479$ p=.064
	보통	19.7	40.7	10.5	25.6	2.3	1.3	100.0	
	활발함	23.5	40.6	10.1	23.1	1.8	.8	100.0	

①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②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기타

이와 함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 39.9%, 여 42.0%)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그 다음 순위로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3.2%),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21.5%)를 생각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26.0%),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0.6%)를 2, 3순위로 보고하였다($p<.001$).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 42.9%, 중 46.5%),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초 26.0%, 중 21.7%),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19.8%)의 순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6.1%),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29.1%),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9.9%)의 순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p<.001$).

(2)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그림 III-8】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가 27.5%로 2순위를 차지했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14.3%), '기타'(9.6%), '직장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9.4%)의 순으로 교육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귀찮아서', '기업가가 꿈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등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었다([그림 Ⅲ-8]).

표 Ⅲ-14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통계치
전체	27.5	9.4	39.3	14.3	9.6	100.0	
성별	남자	28.0	10.3	37.2	14.3	100.0	$\chi^2=4.956$ $p=.292$
	여자	26.8	8.2	41.8	14.3	8.8	
학교급	초등학교	36.1	13.5	25.7	15.7	9.1	$\chi^2=29.941$ $p=.000$
	중학교	23.8	8.6	44.0	14.3	9.2	
	고등학교	28.2	8.7	39.1	13.8	10.1	
지역	특별시/광역시	28.8	8.1	39.5	13.9	9.6	$\chi^2=3.977$ $p=.859$
	중소도시	27.1	9.9	38.9	14.3	9.9	
	읍면지역	24.6	11.8	39.6	15.5	8.6	
경제수준	상	25.4	9.0	39.0	16.7	9.9	$\chi^2=11.316$ $p=.184$
	중	29.6	10.6	39.3	12.8	7.8	
	하	26.5	7.4	41.2	13.6	11.4	
성격	조용함	21.9	11.5	44.8	15.8	6.0	$\chi^2=10.786$ $p=.214$
	보통	28.4	10.1	39.5	13.1	8.9	
	활발함	28.3	8.3	37.9	15.1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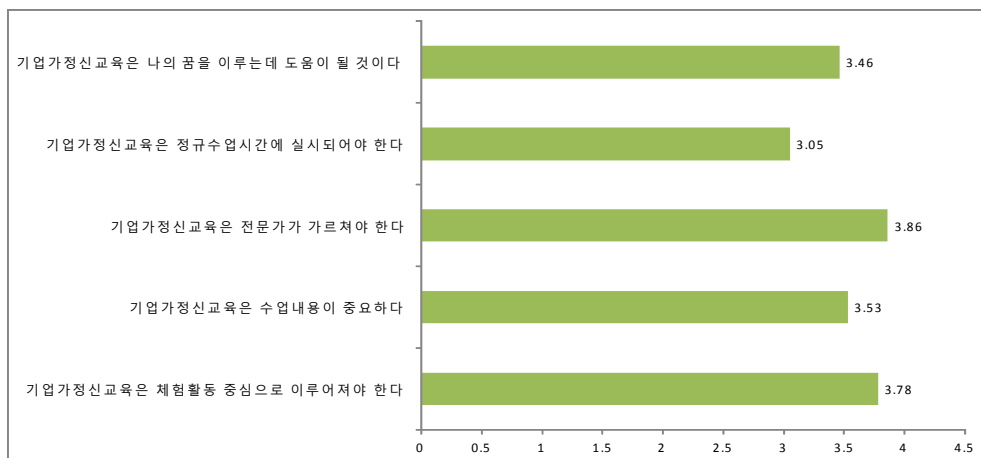
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② 직장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③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④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⑤ 기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지역, 경제수준, 성격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학교급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36.1%),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25.7%),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15.7%), '직장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13.5%) 등의 순으로 교육이 필요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중 44.0%, 39.1%),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중

23.8%, 고 28.2%),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 14.3%, 고 13.8%), ‘기타’ (중 9.2%, 고 10.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p<.001$).

5)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결과 및 방법 등과 관련된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를 평균 3.86, ‘기업가정신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를 평균 3.78로 높게 평가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전문성과 체험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은 수업내용이 중요하다’를 평균 3.53, ‘기업가정신교육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를 평균 3.46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업가정신교육은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평균 3.05의 보통수준으로 분석되었지만, 청소년들은 5가지 항목 중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그림 III-9】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1)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장래 도움정도

첫 번째 항목인 ‘기업가정신교육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표 III-15>와

같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M=3.50) 청소년이 남자(M=3.40) 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교육이 장래의 꿈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평균 3.69, 중학생이 평균 3.44, 고등학생이 평균 3.3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기업가정신교육이 장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p<.001$).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51)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다른 지역(M=3.42)의 청소년에 비해 도움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3.56)인 청소년이 중간(M=3.41) 및 하위그룹(M=3.35)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할수록 기업가정신교육이 장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성격이 활발한(M=3.51) 청소년의 경우 보통(M=3.42)이거나 조용(M=3.37)한 청소년보다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했다($p<.001$).

표 III - 15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장래 도움정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4	3.46	.958		
성별	남자	3087	3.40	1.010	$t=-4.203$ $p=.000$	
	여자	3507	3.50	.908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3.69	.994	$F=46.901$ $p=.000$	a)b,c
	중학교 ^b	2492	3.44	.958		
	고등학교 ^c	2921	3.38	.929		
지역	특별시/광역시 ^d	2702	3.51	.972	$F=6.294$ $p=.002$	a)b
	중소도시 ^b	3176	3.42	.942		
	읍면지역	716	3.42	.972		
경제수준	상 ^a	2611	3.56	.958	$F=25.560$ $p=.000$	a)b,c
	중 ^b	2787	3.41	.946		
	하 ^c	1164	3.35	.959		
성격	조용함 ^a	774	3.37	.989	$F=10.786$ $p=.000$	c)a,b
	보통 ^b	2427	3.42	.928		
	활발함 ^c	3349	3.51	.967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정규수업시간 실시

‘기업가정신교육은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의 항목은 청소년의 성격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10, 여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00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교육이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평균 3.18, 중학생이 평균 3.14, 고등학생이 평균 2.92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정규수업시간의 실시를 강조했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별로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09$), 읍면지역($M=3.04$), 중소도시($M=3.02$)의 순으로 높게 인식했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정규수업시간에 기업가정신교육의 실시를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더불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M=3.12$) 청소년은 중간($M=3.01$)이거나 하위 그룹($M=2.99$)인 청소년보다 기업가정신교육의 정규수업시간 실시를 더 높게 평가했다($p<.001$).

표 III - 16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정규수업시간 실시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3	3.05	1.052		
성별	남자	3086	3.10	1.094	$t=3.917$ $p=.000$	
	여자	3507	3.00	1.011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3.18	1.074	$F=40.376$ $p=.000$	a,b)>c
	중학교 ^b	2492	3.14	1.045		
	고등학교 ^c	2921	2.92	1.034		
지역	특별시/광역시 ^d	2703	3.09	1.057	$F=3.072$ $p=.046$	a)>b
	중소도시 ^b	3174	3.02	1.035		
	읍면지역	716	3.04	1.100		
경제수준	상 ^a	2609	3.12	1.083	$F=9.066$ $p=.000$	a)>b,c
	중 ^b	2788	3.01	1.010		
	하 ^c	1164	2.99	1.070		
성격	조용함	774	3.04	1.092	$F=1.198$ $p=.302$	
	보통	2427	3.03	1.024		
	활발함	3348	3.07	1.06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전문가 지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의 항목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성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M=3.88) 청소년이 남자(M=3.83) 청소년보다 전문가의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p<.05$).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M=3.99)이 초등학생(M=3.75)과 중학생(M=3.74)에 비해 전문가의 지도를 높게 평가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간그룹(M=3.81)보다 상위그룹(M=3.88)과 하위그룹(M=3.94)의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교육을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격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조용한 성격(M=3.94), 활발한 성격(M=3.85), 보통 성격(M=3.84)의 순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사후검증에서는 보통 성격에 비해 조용한 성격의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표 III -17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전문가 지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6	3.86	.994		
성별	남자	3082	3.83	1.063	$t=-2.131$ $p=.033$	
	여자	3504	3.88	.929		
학교급	초등학교 ^a	1178	3.75	1.050	$F=50.667$ $p=.000$	c)a,b
	중학교 ^b	2487	3.74	1.006		
	고등학교 ^c	2921	3.99	.943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0	3.88	.989	$F=1.218$ $p=.296$	
	중소도시	3171	3.84	.993		
	읍면지역	715	3.83	1.021		
경제수준	상 ^a	2606	3.88	1.017	$F=8.588$ $p=.000$	a,c)b
	중 ^b	2784	3.81	.960		
	하 ^c	1163	3.94	1.002		
성격	조용함 ^a	775	3.94	1.007	$F=3.174$ $p=.042$	a)b
	보통 ^b	2426	3.84	.976		
	활발함	3341	3.85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수업내용 중요성

‘기업가정신교육은 수업내용이 중요하다’는 항목은 청소년의 성별과 성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 지역,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M=3.46)에 비해 초등학교(M=3.56)와 고등학교(M=3.57)가 수업내용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별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5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3.48)와 읍면지역(M=3.47)의 청소년보다 수업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01$).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M=3.57) 및 하위그룹(M=3.56) 청소년이 중간그룹(M=3.47) 청소년보다 기업가정신교육의 수업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II - 18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의 수업내용 중요성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7	3.53	.973		
성별	남자	3081	3.51	1.022	t=-1.165 p=.244	
	여자	3506	3.54	.927		
학교급	초등학교 ^a	1179	3.56	.995	F=10.208 p=.000	a,c>b
	중학교 ^b	2490	3.46	.952		
	고등학교 ^c	2918	3.57	.978		
지역	특별시/광역시 ^f	2700	3.59	.965	F=10.827 p=.000	a>b,c
	중소도시 ^b	3172	3.48	.972		
	읍면지역 ^c	715	3.47	.990		
경제수준	상 ^a	2607	3.57	.990	F=7.723 p=.000	a,c>b
	중 ^b	2784	3.47	.938		
	하 ^c	1164	3.56	.998		
성격	조용함	773	3.59	.994	F=1.660 p=.190	
	보통	2425	3.52	.948		
	활발함	3345	3.52	.98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5)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체험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교육

‘기업가정신교육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의 항목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우선, 성별로는 여자(M=3.86)가 남자(M=3.68) 청소년보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M=3.85)이 초등학생(M=3.73)과 중학생(M=3.71)보다 기업가정신교육이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평균 3.81, 읍면지역 청소년이 평균 3.80, 중소도시 청소년이 평균 3.75의 순으로 체험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했으나($p<.05$),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거나(M=3.83) 낮은(M=3.81) 청소년이 중간그룹(M=3.72)의 청소년에 비해 체험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그리고 성격별로는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기업가정신교육이 체험활동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특히 활발한(M=3.85) 청소년은 성격이 보통(M=3.72)이거나 조용한(M=3.66) 청소년보다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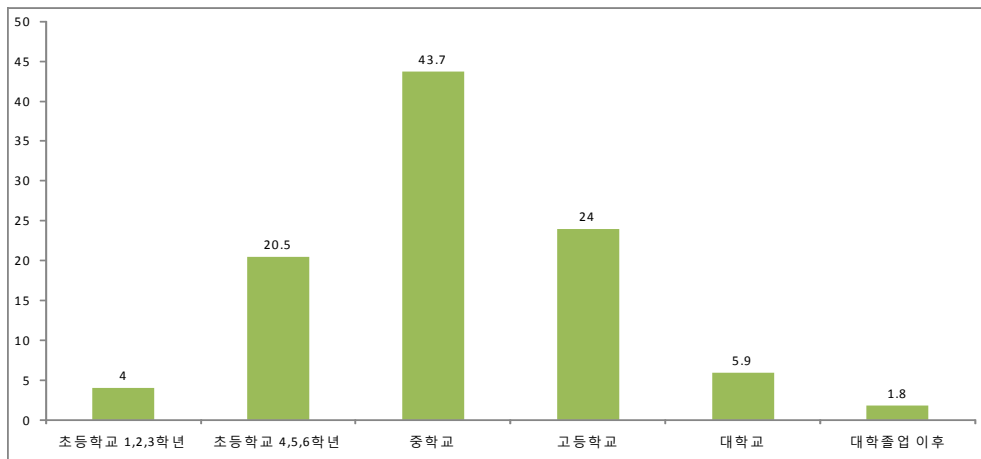
표 III - 19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체험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교육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8	3.78	.980		
성별	남자	3082	3.68	1.042	$t=-7.643$ $p=.000$	
	여자	3506	3.86	.914		
학교급	초등학교 ^a	1178	3.73	1.029	$F=14.524$ $p=.000$	c>a,b
	중학교 ^b	2489	3.71	.992		
	고등학교 ^c	2921	3.85	.945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0	3.81	.977	$F=3.094$ $p=.045$	
	중소도시	3173	3.75	.977		
	읍면지역	715	3.80	1.005		
경제수준	상 ^a	2607	3.83	1.006	$F=9.126$ $p=.000$	a,c>b
	중 ^b	2786	3.72	.942		
	하 ^c	1162	3.81	.988		
성격	조용함 ^a	775	3.66	1.024	$F=18.864$ $p=.000$	c>a,b
	보통 ^b	2424	3.72	.951		
	활발함 ^c	3345	3.85	.98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6)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III-10]과 같이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교육 시작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중학교’ (43.7%) 때로 분석되었고, ‘고등학교’ (24.0%), ‘초등학교 4, 5, 6학년’ (20.5%)의 시기가 좋다고 선택한 청소년들도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5.9%), ‘초등학교 1, 2, 3학년’ (4.0%), ‘대학졸업 이후’ (1.8%)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III -10】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기업가정신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20>에 제시한 것과 같이, 지역을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1~3순위까지는 여자청소년의 응답비율이 0.9~2.1%의 범위에서 약간씩 높았고, 4~6순위에서는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0.1~2.3%의 범위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중학교’ 라는 응답이 각각 51.2%,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초등학생은 ‘중학교’ (32.3%), ‘고등학교’ (8.6%)를 2, 3순위로 응답하였고, 중학생은 ‘초등학교 4, 5, 6학년’ (20.0%), ‘고등학교’ (18.8%)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고등학

교' (34.7%), '초등학교 4, 5, 6학년' (9.7%)의 순으로 제시하였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그룹과 중·하위그룹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상위그룹 청소년은 '중학교' (43.8%), '초등학교 4, 5, 6학년' (23.0%), '고등학교' (20.7%)의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하위그룹에서는 '중학교' (중 43.7%, 하 43.9%), '고등학교' (중 25.8%, 하 27.5%),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19.7%, 하 16.8%)의 순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p < .001$). 또한 성격에 따라서는 성격별로 순위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보통 성격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6.1%로, 조용(22.2%)하거나 활발한(23.1%) 청소년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보통 성격인 청소년의 '중학교' (43.0%) 및 '초등학교 4, 5, 6학년' (19.2%)에 대한 응답은 조용한 또는 활발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고하였다($p < .01$).

표 Ⅲ - 20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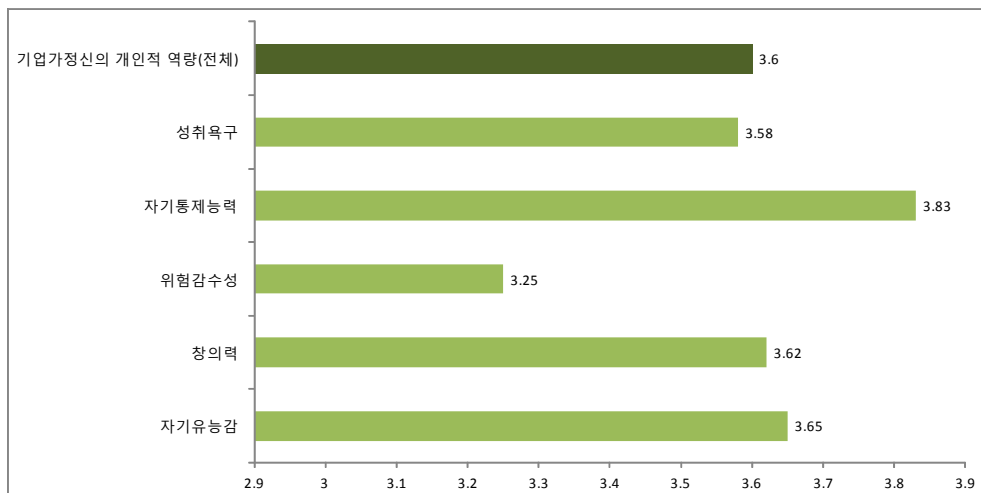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초등학교 1,2,3학년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졸업 이후	전체	통계치
성 별	전 체	4.0	20.5	43.7	24.0	5.9	1.8	100.0	$\chi^2=54.512$ $p=.000$
	남 자	5.2	20.0	42.6	23.4	6.0	2.8	100.0	
	여 자	2.9	20.9	44.7	24.6	5.9	1.0	100.0	
학 교 급	초등학교	5.5	48.4	32.3	8.6	3.4	1.8	100.0	$\chi^2=1033.767$ $p=.000$
	중 학 교	3.8	20.0	51.2	18.8	4.3	1.9	100.0	
	고등학교	3.5	9.7	41.9	34.7	8.4	1.7	100.0	
지 역	특별시/광역시	4.0	21.5	44.0	22.8	5.7	2.0	100.0	$\chi^2=12.284$ $p=.267$
	중소도시	4.0	19.9	43.3	25.4	5.8	1.6	100.0	
	읍면지역	3.6	19.6	44.4	22.8	7.5	2.1	100.0	
경제수준	상	5.0	23.0	43.8	20.7	5.7	1.8	100.0	$\chi^2=53.991$ $p=.000$
	중	3.0	19.7	43.7	25.8	6.0	1.9	100.0	
	하	3.6	16.8	43.9	27.5	6.4	1.7	100.0	
성 격	조용함	4.5	20.1	43.4	22.2	7.2	2.6	100.0	$\chi^2=25.474$ $p=.005$
	보 통	3.3	19.2	43.0	26.1	6.5	1.9	100.0	
	활 발 함	4.3	21.6	44.3	23.1	5.3	1.6	100.0	

7)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적 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성취욕구', '자기통

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 하위영역의 문항들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그림 Ⅲ-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개인적 역량의 전체 평균은 3.60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역량은 ‘자기통제능력’ (M=3.83)이었고, ‘자기유능감’ (M=3.65), ‘창의력’ (M=3.62)이 그 다음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취욕구’ (M=3.58)와 ‘위험감수성’ (M=3.25) 역량은 전체 평균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역량들의 각 수준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험감수성’ 역량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Ⅲ-11】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전체’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63, 여자청소년은 평균 3.57로, 남자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M=3.74)의 역량이 중학교(M=3.58)와 고등학교(M=3.5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평균 3.65로 나타나, 중소도시(M=3.55)와 읍면지역(M=3.59)의 청소년보다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그룹($M=3.72$) 청소년의 역량 수준은 중간($M=3.53$) 및 하위그룹($M=3.49$) 청소년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p<.001$). 마지막으로 성격에 따른 차이에서는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기업가정신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격이 활발한($M=3.71$) 경우 보통($M=3.49$)인 청소년보다 역량 수준이 높았고, 보통 성격은 조용한 성격($M=3.43$)의 청소년보다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Ⅲ - 21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전체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9	3.60	.548		
성별	남자	3095	3.63	$t=3.933$ $p=.000$	
	여자	3514	3.57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3.74	$F=54.790$ $p=.000$	a)b,c
	중학교 ^b	2497	3.58		
	고등학교 ^c	2929	3.55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3	3.65	$F=23.617$ $p=.000$	a)b,c
	중소도시 ^b	3179	3.55		
	읍면지역 ^c	717	3.59		
경제수준	상 ^a	2617	3.72	$F=122.057$ $p=.000$	a)b,c
	중 ^b	2792	3.53		
	하 ^c	1166	3.49		
성격	조용함 ^a	776	3.43	$F=162.681$ $p=.000$	c)b)a
	보통 ^b	2435	3.49		
	활발함 ^c	3353	3.7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1)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성취욕구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하위영역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첫 번째로, ‘성취욕구’ 역량에 관한 결과는 청소년의 모든 특성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M=3.62$) 청소년의 성취욕구가 여자($M=3.54$)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75$), 중학생($M=3.55$), 고등학생($M=3.52$)의 순으로 성취욕구가 높게 조사되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성취욕구는 중·고등학생의 수준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p<.001$). 지역별 차이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63), 읍면지역(M=3.58), 중소도시(M=3.53)의 순으로 성취욕구가 높았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p<.0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3.71)인 청소년은 중간(M=3.50)이거나 하위그룹(M=3.47)인 청소년의 성취욕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성격별로 살펴보면, 활발한(M=3.66) 청소년이 보통(M=3.49)이거나 조용한 성격(M=3.46)의 청소년보다 성취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1$).

표 III - 22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성취욕구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9	3.58	.634		
성별	남자	3095	3.62	.663	t=5.250 p=.000	
	여자	3514	3.54	.604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3.75	.676	F=57.136 p=.000	a>b,c
	중학교 ^b	2497	3.55	.644		
	고등학교 ^c	2929	3.52	.594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3	3.63	.636	F=17.121 p=.000	a>b
	중소도시 ^b	3179	3.53	.627		
	읍면지역	717	3.58	.639		
경제수준	상 ^a	2617	3.71	.638	F=96.089 p=.000	a>b,c
	중 ^b	2792	3.50	.605		
	하 ^c	1166	3.47	.629		
성격	조용함 ^a	776	3.46	.639	F=67.030 p=.000	c>a,b
	보통 ^b	2435	3.49	.603		
	활발함 ^c	3353	3.66	.63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자기통제능력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통제능력’ 역량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 경제수준, 성격의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II-23>).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79, 여자청소년은 평균 3.87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능력 점수는 3.90, 중·고등학생의 점수는 3.82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능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

(M=3.86), 특별시 및 광역시(M=3.85), 중소도시(M=3.81)에 거주하는 청소년 순으로 자기통제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p<.05$), 사후검증 시 통계적 유의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은(M=3.89) 청소년은 중간(M=3.79) 및 낮은 (M=3.80) 청소년에 비해 자기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한 성격(M=3.88), 조용한 성격(M=3.82), 보통 성격(M=3.78)의 청소년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활발한 청소년은 보통 성격의 청소년보다 자기통제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p<.001$).

표 III - 23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자기통제능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9	3.83	.743		
성별	남자	3095	3.79	.795	$t=-4.090$ $p=.000$	
	여자	3514	3.87	.691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3.90	.791	$F=5.882$ $p=.003$	a)b,c
	중학교 ^b	2497	3.82	.753		
	고등학교 ^c	2929	3.82	.712		
지역	특별시/광역시	2713	3.85	.737	$F=3.493$ $p=.030$	
	중소도시	3179	3.81	.738		
	읍면지역	717	3.86	.779		
경제수준	상 ^a	2617	3.89	.743	$F=14.478$ $p=.000$	a)b,c
	중 ^b	2792	3.79	.729		
	하 ^c	1166	3.80	.754		
성격	조용함	776	3.82	.771	$F=12.541$ $p=.000$	b)a
	보통 ^a	2435	3.78	.716		
	활발함 ^b	3353	3.88	.75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위험감수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위험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24>와 같다. 우선,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보면, 남자(M=3.38) 청소년이 여자(M=3.14) 청소년보다 위험감수성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p<.001$),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M=3.42), 중학생(M=3.25), 고등학생(M=3.19)의 순으로 위험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33), 읍면지역(M=3.27), 중소도시(M=3.19)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순으로 위험감수성 수준이 높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3.36$)에 속한 청소년이 중간그룹($M=3.18$)과 하위그룹($M=3.20$)의 청소년보다 위험감수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그리고 성격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위험감수성의 수준이 높았으며, 활발한 성격($M=3.37$)의 경우 보통 성격($M=3.14$)과 조용한 성격($M=3.09$)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표 III - 24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위험감수성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8	3.25	.856		
성별	남자	3095	3.38	.862	$t=11.360$ $p=.000$	
	여자	3513	3.14	.835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3.42	.948	$F=29.042$ $p=.000$	a)b)c
	중학교 ^b	2497	3.25	.867		
	고등학교 ^c	2928	3.19	.797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2	3.33	.868	$F=19.770$ $p=.000$	a)b
	중소도시 ^b	3179	3.19	.839		
	읍면지역	717	3.27	.862		
경제수준	상 ^a	2616	3.36	.884	$F=31.273$ $p=.000$	a)b,c
	중 ^b	2792	3.18	.823		
	하 ^c	1166	3.20	.839		
성격	조용함 ^a	776	3.09	.850	$F=70.461$ $p=.000$	c)a,b
	보통 ^b	2435	3.14	.809		
	활발함 ^c	3352	3.37	.87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창의력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의력’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모든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III-25>). 성별의 차이에서는 남자청소년이 평균 3.65, 여자청소년이 평균 3.59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창의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75$), 고등학생($M=3.60$), 중학생($M=3.58$)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창의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1$).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거주지역이 특별시 및 광역시($M=3.67$), 읍면지

역(M=3.60), 중소도시(M=3.57)인 청소년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창의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그룹(M=3.73) 청소년의 창의력 수준이 중간그룹(M=3.55)과 하위그룹(M=3.52)보다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성격에 따른 평균차이를 보면,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이 평균 3.67로 창의력 수준이 가장 높았고, 조용한 성격(M=3.57)과 보통 성격(M=3.55)의 청소년이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활발한 청소년과 다른 성격의 청소년들 간 평균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p<.001$).

표 III - 25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창의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9	3.62	.712		
성별	남자	3095	3.65	.747	t=3.885 p=.000	
	여자	3514	3.59	.679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3.75	.794	F=23.654 p=.000	a)b,c
	중학교 ^b	2497	3.58	.749		
	고등학교 ^c	2929	3.60	.636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3	3.67	.719	F=14.877 p=.000	a)b,c
	중소도시 ^b	3179	3.57	.704		
	읍면지역 ^c	717	3.60	.711		
경제수준	상 ^a	2617	3.73	.729	F=57.873 p=.000	a)b,c
	중 ^b	2792	3.55	.686		
	하 ^c	1166	3.52	.692		
성격	조용함 ^a	776	3.57	.702	F=22.262 p=.000	c)a,b
	보통 ^b	2435	3.55	.678		
	활발함 ^c	3353	3.67	.73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5)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자기유능감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유능감’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II-26>과 같이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초등학생이 평균 3.81, 중학생이 평균 3.65, 고등학생이 평균 3.59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각 교급별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p<.001$).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 평균은

3.71이고,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청소년의 평균은 3.61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특별시 및 광역시 청소년의 자기유능감 수준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그룹($M=3.82$), 중간그룹($M=3.57$), 하위그룹($M=3.48$)의 순으로 자기유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상·중·하 그룹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활발한 성격의 평균이 3.84, 보통 성격이 평균 3.50, 조용한 성격이 평균 3.33으로 나타나,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자기유능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표 III - 26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자기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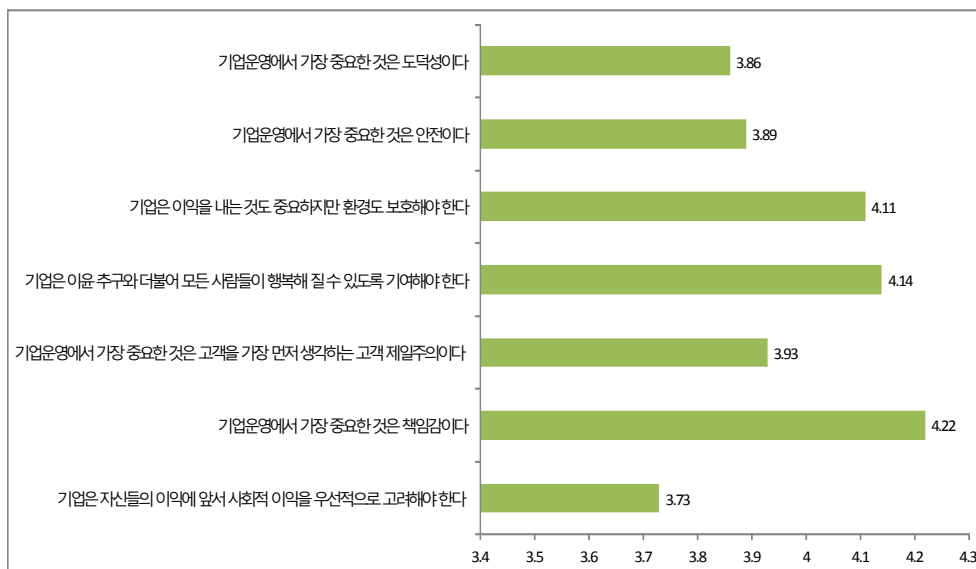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8	3.65	.712		
성별	남자	3094	3.65	.728	$t=.163$ $p=.870$	
	여자	3514	3.65	.698		
학교급	초등학교 ^a	1183	3.81	.733	$F=38.822$ $p=.000$	a)b>c
	중학교 ^b	2496	3.65	.724		
	고등학교 ^c	2929	3.59	.684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2	3.71	.716	$F=16.733$ $p=.000$	a)b,c
	중소도시 ^b	3179	3.61	.699		
	읍면지역 ^c	717	3.61	.735		
경제수준	상 ^a	2616	3.82	.706	$F=125.832$ $p=.000$	a)b>c
	중 ^b	2792	3.57	.677		
	하 ^c	1166	3.48	.722		
성격	조용함 ^a	775	3.33	.699	$F=273.281$ $p=.000$	c)b>a
	보통 ^b	2435	3.50	.662		
	활발함 ^c	3353	3.84	.69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12]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청소년들은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라는 항목을 평균 4.22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어서 ‘기업은 이윤 추구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M=4.14),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M=4.11),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고객 제일주의이다’ (M=3.93),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M=3.89),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M=3.86),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M=3.73)의 순으로 응답했다. 모든 항목에서 청소년들은 평균 3.73~4.22사이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책임감, 사람들의 행복, 환경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림 Ⅲ-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도덕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의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Ⅲ-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M=3.84) 청소년에 비해 여자(M=3.88) 청소년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M=3.89), 초등학생(M=3.88), 중학생

(M=3.81)의 순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 인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또한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M=3.91), 읍면지역(M=3.87), 중소도시(M=3.82)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p<.001$).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상위그룹(M=3.90), 하위그룹(M=3.86), 중간그룹(M=3.82)의 청소년 순으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그룹과 중간그룹 간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p<.01$).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활발한(M=3.89) 청소년, 조용한(M=3.85) 청소년, 보통 성격(M=3.82)인 청소년의 순으로 도덕성을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활발한 청소년이 보통 성격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III - 2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도덕성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6	3.86	.860		
성별	남자	3093	3.84	.911	$t=-2.054$ $p=.040$	
	여자	3513	3.88	.812		
학교급	초등학교	1182	3.88	.878	$F=5.840$ $p=.003$	b>a
	중학교 ^a	2497	3.81	.867		
	고등학교 ^b	2927	3.89	.846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0	3.91	.861	$F=7.995$ $p=.000$	a>b
	중소도시 ^b	3179	3.82	.847		
	읍면지역	717	3.87	.904		
경제수준	상 ^a	2615	3.90	.861	$F=5.718$ $p=.003$	a>b
	중 ^b	2792	3.82	.833		
	하	1165	3.86	.908		
성격	조용함	776	3.85	.910	$F=5.720$ $p=.003$	b>a
	보통 ^a	2434	3.82	.849		
	활발함 ^b	3351	3.89	.85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안전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는 항목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 차이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표 III-28>).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94이고,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3.85로 나타났다($p<.001$). 이는 여자보다 남자청소년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초등학생이 평균 4.1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평균 3.87, 고등학생이 평균 3.82의 점수를 보여, 학교급이 낮을수록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의 인식에는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은($M=3.93$) 청소년이 중간 또는 낮은($M=3.87$) 청소년보다 기업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성격별 차이에서는 조용하거나 활발한($M=3.91$) 청소년의 경우 보통 성격($M=3.86$)의 청소년에 비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분석되었으나($p<.05$),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안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6	3.89	.864		
성별	남자	3093	3.94	.910	$t=3.960$ $p=.000$	
	여자	3513	3.85	.819		
학교급	초등학교 ^a	1182	4.11	.879	$F=49.657$ $p=.000$	a)b,c
	중학교 ^b	2497	3.87	.859		
	고등학교 ^c	2927	3.82	.848		
지역	특별시/광역시	2710	3.92	.870	$F=2.318$ $p=.099$	
	중소도시	3179	3.88	.856		
	읍면지역	717	3.85	.874		
경제수준	상	2615	3.93	.890	$F=3.065$ $p=.047$	
	중	2792	3.87	.825		
	하	1165	3.87	.877		
성격	조용함	776	3.91	.884	$F=3.167$ $p=.042$	
	보통	2434	3.86	.846		
	활발함	3351	3.91	.86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환경보호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III-29>).

표 III-2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환경보호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1	4.11	.809		
성별	남자	3089	4.05	.863	t=-4.834 p=.000	
	여자	3512	4.15	.755		
학교급	초등학교 ^a	1182	4.33	.793	F=57.950 p=.000	a)b,c
	중학교 ^b	2492	4.05	.833		
	고등학교 ^c	2927	4.07	.779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1	4.15	.809	F=6.656 p=.001	a)b
	중소도시 ^b	3174	4.07	.803		
	읍면지역	716	4.09	.833		
경제수준	상 ^a	2613	4.16	.821	F=8.564 p=.000	a)b,c
	중 ^b	2791	4.07	.786		
	하 ^c	1163	4.08	.821		
성격	조용함	776	4.08	.830	F=7.443 p=.001	b)a
	보통 ^a	2433	4.06	.795		
	활발함 ^b	3347	4.15	.81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가 평균 4.05, 여자가 평균 4.15로 조사되어,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M=4.33$), 고등학생($M=4.07$), 중학생($M=4.05$)의 순으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01$). 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4.15$), 읍면지역($M=4.09$), 중소도시($M=4.07$)의 순으로 환경보호를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M=4.16$) 청소년은 중간($M=4.07$) 및 낮은($M=4.08$) 청소년보다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별로는 활발한($M=4.15$), 조용한($M=4.08$),

보통(M=4.06)인 성격의 청소년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고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활발한 청소년이 보통 성격의 청소년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환경보호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입증되었다($p<.0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행복

‘기업은 이윤 추구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항목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III-30>).

표 III - 3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행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4	4.14	.795		
성별	남자	3093	4.08	.838	$t=-5.597$ $p=.000$	
	여자	3511	4.19	.751		
학교급	초등학교 ^a	1182	4.29	.801	$F=27.187$ $p=.000$	a)c>b
	중학교 ^b	2494	4.08	.816		
	고등학교 ^c	2928	4.14	.767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0	4.19	.798	$F=10.056$ $p=.000$	a)b
	중소도시 ^b	3178	4.10	.785		
	읍면지역	716	4.13	.819		
경제수준	상 ^a	2613	4.20	.798	$F=10.475$ $p=.000$	a)b,c
	중 ^b	2791	4.11	.776		
	하 ^c	1166	4.11	.809		
성격	조용함 ^a	776	4.05	.861	$F=15.534$ $p=.000$	c)a,b
	보통 ^b	2433	4.11	.771		
	활발함 ^c	3350	4.20	.78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우선, 남자의 평균점수는 4.08, 여자의 점수는 4.19로 나타났으며, 이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기업이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M=4.29), 고등학생(M=4.14), 중학생(M=4.08)의 순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4.19), 읍면지역(M=4.13), 중소도시(M=4.10)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사후검증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인식수준은 4.20, 중간 및 낮은 청소년의 인식수준은 4.11이었으며, 이들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따라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기업이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격에 따른 차이에서는 활발한 성격일수록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은 평균 4.20, 보통 성격의 청소년은 평균 4.11, 조용한 성격의 청소년은 평균 4.05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활발한 성격인 청소년들의 인식수준은 다른 성격의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고객 제일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고객 제일주의이다’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다음의 <표 III-31>과 같이,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제외한 결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 학교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평균은 4.31, 중학생은 평균 3.89, 고등학생은 평균 3.81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고객 제일주의를 기업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후검증의 결과, 이러한 학교급에 따른 초·중·고등학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되었다($p<.001$).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96$), 중소도시($M=3.92$), 읍면지역($M=3.87$)의 청소년 순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기업운영에서 고객 제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5$).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고객 제일주의에 대한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인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98, 중간그룹은 평균 3.92, 하위그룹은 평균 3.84였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p<.001$). 또한 청소년의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한 청소년의 점수가 4.00, 보통인 청소년이 3.88, 조용한 청소년이 3.77로 나타나, 성격이 활발할수록 고객 제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각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표 III -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고객 제일주의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5	3.93	.872		
성별	남자	3092	3.91	.917	t=-1.380 p=.167	
	여자	3513	3.94	.830		
학교급	초등학교 ^a	1182	4.31	.789	F=150.859 p=.000	a>b>c
	중학교 ^b	2495	3.89	.865		
	고등학교 ^c	2928	3.81	.867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0	3.96	.868	F=3.967 p=.019	a>b
	중소도시	3178	3.92	.866		
	읍면지역 ^b	717	3.87	.911		
경제수준	상 ^a	2615	3.98	.881	F=10.243 p=.000	a>b>c
	중 ^b	2791	3.92	.851		
	하 ^c	1165	3.84	.885		
성격	조용함 ^a	776	3.77	.959	F=29.450 p=.000	c>b>a
	보통 ^b	2433	3.88	.845		
	활발함 ^c	3351	4.00	.8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책임감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라는 항목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제외하고, 성별, 학교급, 지역, 성격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3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M=4.16)보다 여자(M=4.27) 청소년이 기업운영에서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M=4.27)의 인식수준이 중학생(M=4.14)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그리고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4.25), 읍면지역(M=4.22), 중소도시(M=4.19)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순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활발한 청소년이 4.25, 조용한 청소년이 4.19, 보통인 청소년이 4.18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이 보통인 청소년에 비해 기업운영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표 III - 3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책임감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4	4.22	.781		
성별	남자	3092	4.16	.831	t=-5.671 p=.000	
	여자	3512	4.27	.730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4.27	.788	F=21.987 p=.000	a,c>b
	중학교 ^b	2495	4.14	.822		
	고등학교 ^c	2928	4.27	.735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0	4.25	.775	F=5.080 p=.006	a>b
	중소도시 ^b	3177	4.19	.776		
	읍면지역	717	4.22	.820		
경제수준	상	2615	4.24	.792	F=2.890 p=.056	
	중	2790	4.19	.763		
	하	1165	4.23	.784		
성격	조용함	775	4.19	.822	F=6.890 p=.001	b>a
	보통 ^a	2433	4.18	.775		
	활발함 ^b	3351	4.25	.77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이익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항목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III -33>과 같으며, 모든 특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 청소년 간 차이에서는 여자(M=3.78)가 남자(M=3.67) 청소년보다 기업의 사회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평균 3.95, 중학생이 평균 3.74, 고등학생이 평균 3.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기업이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초·중·고등학생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77), 중소도시(M=3.71), 읍면지역(M=3.69)의 순으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사회적 이익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통계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의 평균점수는 3.81, 중간그룹은 3.72, 하위그룹은 3.61이었으며, 각 집단 간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1$). 또한 활발한 청소년의 인식수준은 3.79로, 보통 성격($M=3.68$)과 조용한 성격($M=3.67$)의 청소년보다 사회적 이익을 기업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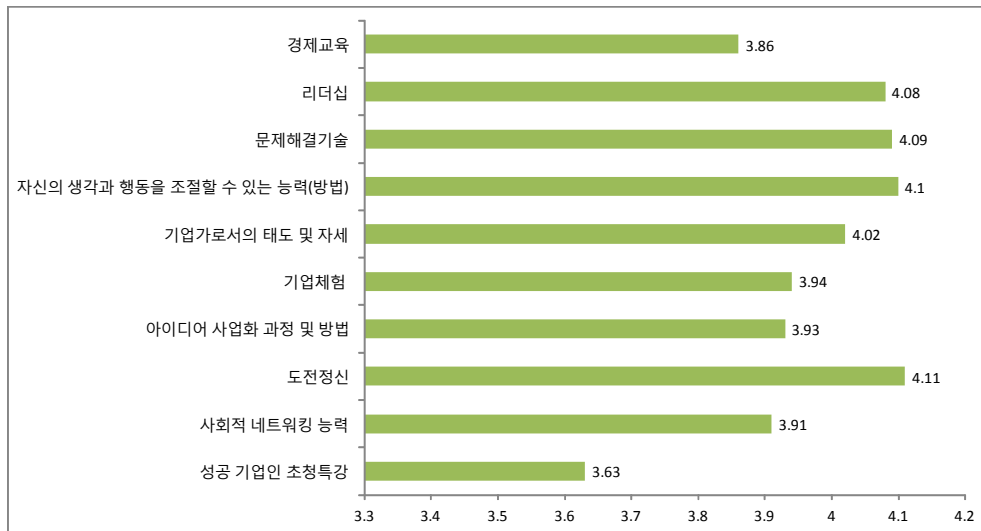
표 Ⅲ - 3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이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5	3.73	.912		
성별	남자	3092	3.67	$t=-4.814$ $p=.000$	
	여자	3513	3.78		
학교급	초등학교 ^a	1182	3.95	$F=51.531$ $p=.000$	a>b>c
	중학교 ^b	2496	3.74		
	고등학교 ^c	2927	3.64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10	3.77	$F=4.039$ $p=.018$	a>b
	중소도시 ^b	3178	3.71		
	읍면지역	717	3.69		
경제수준	상 ^a	2615	3.81	$F=19.792$ $p=.000$	a>b>c
	중 ^b	2792	3.72		
	하 ^c	1164	3.61		
성격	조용함 ^a	776	3.67	$F=11.420$ $p=.000$	c>a,b
	보통 ^b	2434	3.68		
	활발함 ^c	3350	3.7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9)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을 다음의 10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 중 ‘도전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평균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M=4.10$), ‘문제해결기술’ ($M=4.09$), ‘리더십’ ($M=4.08$),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M=4.02$)의 항목들이 ‘필요한편이다’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기업체험’ ($M=3.94$),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 ($M=3.93$),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 ($M=3.91$), ‘경제교육’ ($M=3.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 ($M=3.63$)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높은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13】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1)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경제교육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34>와 같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3.89) 청소년이 남자(M=3.83) 청소년에 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92), 고등학생(M=3.90), 중학생(M=3.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90), 읍면지역(M=3.86), 중소도시(M=3.83)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간 인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보면, 상위그룹(M=3.92), 하위그룹(M=3.86), 중간그룹(M=3.81)의 청소년 순으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특히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중간그룹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성격별 차이에서는 활발한 성격(M=3.90), 조용한 성격(M=3.85), 보통 성격(M=3.82)의 순으로 기업가정신교육에서 경제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의 경우 보통인 청소년에 비해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Ⅲ - 34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경제교육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5	3.86	.802		
성별	남자	3088	3.83	.860	$t=-2.748$ $p=.006$	
	여자	3507	3.89	.747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3.92	.860	$F=17.817$ $p=.000$	a,c>b
	중학교 ^b	2491	3.79	.821		
	고등학교 ^c	2923	3.90	.756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4	3.90	.809	$F=4.885$ $p=.008$	a>b
	중소도시 ^b	3175	3.83	.789		
	읍면지역	716	3.86	.829		
경제수준	상 ^a	2610	3.92	.814	$F=13.749$ $p=.000$	a>b
	중 ^b	2785	3.81	.773		
	하	1167	3.86	.821		
성격	조용함	776	3.85	.850	$F=6.244$ $p=.002$	b>a
	보통 ^a	2430	3.82	.782		
	활발함 ^b	3345	3.90	.803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리더십

일반적 특성에 따라 ‘리더십’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Ⅲ-35>와 같이 모든 특성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M=4.14$) 청소년이 남자($M=4.02$) 청소년보다 리더십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M=4.12$)과 고등학생($M=4.13$)의 인식수준이 중학생($M=4.00$)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4.14$)에 사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4.05$)와 읍면지역($M=4.04$)에 사는 청소년보다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그룹($M=4.14$)의 청소년이 중간($M=4.04$) 및 하위그룹($M=4.07$)의 청소년보다 기업가정신교육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성격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활발한 성격($M=4.15$)의 청소년이 보통 성격($M=4.02$)

과 조용한 성격(M=4.01)의 청소년보다 리더십 관련 내용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II - 35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리더십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3	4.08	.801		
성별	남자	3090	4.02	.867	$t=-5.820$ $p=.000$	
	여자	3503	4.14	.734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4.12	.873	$F=19.456$ $p=.000$	a,c>b
	중학교 ^b	2490	4.00	.813		
	고등학교 ^c	2923	4.13	.755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5	4.14	.794	$F=10.097$ $p=.000$	a>b,c
	중소도시 ^b	3173	4.05	.801		
	읍면지역 ^c	715	4.04	.819		
경제수준	상 ^a	2609	4.14	.805	$F=12.583$ $p=.000$	a>b,c
	중 ^b	2784	4.04	.778		
	하 ^c	1167	4.07	.824		
성격	조용함 ^a	776	4.01	.878	$F=23.563$ $p=.000$	c>a,b
	보통 ^b	2430	4.02	.784		
	활발함 ^c	3343	4.15	.787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기술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III-36>과 같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자(M=4.05) 청소년에 비해 여자(M=4.13) 청소년이 문제해결기술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평균점수가 4.32, 고등학생이 평균 4.09, 중학생이 평균 3.98로 조사되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초·중·고등학생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기업가정신교육으로 문제해결기술이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4.12), 읍면지역(M=4.07), 중소도시(M=4.06)에 거주하는 청소년 순으로 문제해결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에 비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p<.05$).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그룹(M=4.13), 하위그룹(M=4.10), 중간그룹(M=4.05)의 청소년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중간수준인 청소년보다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성격에 따른 차이에서는 활발한(M=4.14) 청소년은 조용한 성격(M=4.05)과 보통 성격(M=4.04)의 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문제해결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II - 36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기술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9	4.09	.788		
성별	남자	3087	4.05	.827	t=-4.128 p=.000	
	여자	3502	4.13	.751		
학교급	초등학교 ^a	1179	4.32	.805	F=74.709 p=.000	a>c>b
	중학교 ^b	2488	3.98	.811		
	고등학교 ^c	2922	4.09	.741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3	4.12	.775	F=4.241 p=.014	a>b
	중소도시 ^b	3171	4.06	.792		
	읍면지역	715	4.07	.815		
경제수준	상 ^a	2607	4.13	.786	F=6.387 p=.002	a>b
	중 ^b	2782	4.05	.777		
	하	1167	4.10	.796		
성격	조용함 ^a	775	4.05	.818	F=11.742 p=.000	c>a,b
	보통 ^b	2430	4.04	.779		
	활발함 ^c	3340	4.14	.783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 특성별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보면, 여자(M=4.14)가 남자(M=4.04) 청소년보다 자기통제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p<.001$),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M=4.26), 고등학생(M=4.09), 중학생(M=4.02)의 순으로 인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4.14)에 사는 청소년이 다른 지역(M=4.06)의 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청소년보다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확인되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그룹($M=4.14$), 하위그룹($M=4.12$), 중간그룹($M=4.05$)의 청소년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상위그룹과 중간그룹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또한 성격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활발한($M=4.16$) 청소년의 경우 조용한 성격($M=4.05$)과 보통 성격($M=4.03$)의 청소년보다 자기통제능력에 대한 필요성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표 III - 37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3	4.10	.822		
성별	남자	3089	4.04	.879	$t=-5.053$ $p=.000$	
	여자	3504	4.14	.765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4.26	.817	$F=35.072$ $p=.000$	a)c>b
	중학교 ^b	2490	4.02	.835		
	고등학교 ^c	2923	4.09	.803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4	4.14	.830	$F=7.119$ $p=.001$	a)b
	중소도시 ^b	3174	4.06	.806		
	읍면지역	715	4.06	.853		
경제수준	상 ^a	2611	4.14	.816	$F=8.575$ $p=.000$	a)b
	중 ^b	2782	4.05	.820		
	하	1167	4.12	.827		
성격	조용함 ^a	773	4.05	.874	$F=17.698$ $p=.000$	c)a,b
	보통 ^b	2432	4.03	.813		
	활발함 ^c	3344	4.16	.811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5)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의 필요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98,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4.06으로, 여자청소년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다($p<.001$).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M=4.13$), 고등학생($M=4.03$), 중학생($M=3.96$)의 순으로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에 관한 내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검증의 결과에서는 각 교급별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그룹($M=4.07$), 하위그룹($M=4.00$), 중간그룹($M=3.98$)의 순으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중간수준의 청소년보다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활발한 청소년($M=4.07$)이 보통 성격($M=3.97$)과 조용한 성격($M=3.96$)의 청소년보다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관련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p<.001$).

표 III - 38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3	4.02	.847		
성별	남자	3088	3.98	.884	$t=-3.894$ $p=.000$	
	여자	3505	4.06	.810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4.13	.867	$F=15.287$ $p=.000$	a)c>b
	중학교 ^b	2491	3.96	.856		
	고등학교 ^c	2922	4.03	.825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5	4.04	.854	$F=1.541$ $p=.214$	
	중소도시	3172	4.00	.834		
	읍면지역	716	4.01	.870		
경제수준	상 ^a	2610	4.07	.849	$F=8.026$ $p=.000$	a)b
	중 ^b	2783	3.98	.824		
	하	1167	4.00	.873		
성격	조용함 ^a	776	3.96	.858	$F=12.414$ $p=.000$	c)a,b
	보통 ^b	2431	3.97	.843		
	활발함 ^c	3342	4.07	.842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6)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기업체험

‘기업체험’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서는 여자($M=4.02$) 청소년이 남자($M=3.85$) 청소년보다 기업체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초등학생이 평균 4.11, 중학생이 평균 3.91, 고등학생이 평균 3.90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 인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또한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상위그룹($M=3.99$), 하위그룹($M=3.92$), 중간그룹($M=3.90$)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중간수준의 청소년보다 기업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1$). 성격에 따른 결과에서는 활발할수록, 즉 활발한 성격($M=4.02$), 보통 성격($M=3.87$), 조용한 성격($M=3.78$)의 청소년 순으로 기업체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후검증 결과, 세 가지 성격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p<.001$).

표 III - 39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기업체험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7	3.94	.885		
성별	남자	3085	3.85	$t=-7.709$ $p=.000$	
	여자	3502	4.02		
학교급	초등학교 ^a	1177	4.11	$F=26.092$ $p=.000$	a)b,c
	중학교 ^b	2488	3.91		
	고등학교 ^c	2922	3.90		
지역	특별시/광역시	2699	3.97	$F=2.619$ $p=.073$	
	중소도시	3173	3.92		
	읍면지역	715	3.92		
경제수준	상 ^a	2606	3.99	$F=6.175$ $p=.002$	a)b
	중 ^b	2781	3.90		
	하	1167	3.92		
성격	조용함 ^a	776	3.78	$F=33.870$ $p=.000$	c)b>a
	보통 ^b	2426	3.87		
	활발함 ^c	3341	4.02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7)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는 학교급, 지역, 경제수준, 성격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먼저,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생($M=4.09$), 고등학생($M=3.91$), 중학생($M=3.87$)의 순으로 기업가정신교육에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관련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규모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과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M=3.97$)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91$)와 읍면지역($M=3.88$)에 사는 청소년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그룹의 평균이 3.98, 중간 및 하위그룹의

평균이 3.90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활발한($M=3.98$) 청소년은 보통($M=3.90$) 및 조용한($M=3.84$) 청소년보다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과 방법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표 III - 40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8	3.93	.836		
성별	남자	3087	3.91	$t=-1.412$ $p=.158$	
	여자	3501	3.94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4.09	$F=28.159$ $p=.000$	a)b,c
	중학교 ^b	2488	3.87		
	고등학교 ^c	2920	3.91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3	3.97	$F=5.675$ $p=.003$	a)b,c
	중소도시 ^b	3171	3.91		
	읍면지역 ^c	714	3.88		
경제수준	상 ^a	2608	3.98	$F=6.579$ $p=.001$	a)b,c
	중 ^b	2783	3.90		
	하 ^c	1165	3.90		
성격	조용함 ^a	776	3.84	$F=11.636$ $p=.000$	c)a,b
	보통 ^b	2427	3.90		
	활발함 ^c	3341	3.98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8)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도전정신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도전정신’의 필요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성별로는 여자($M=4.15$)가 남자($M=4.05$) 청소년보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4.20$)이 중학생($M=4.08$)과 고등학생($M=4.10$)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한편, 지역에 따른 결과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 평균 4.14, 중소도시가 평균 4.08, 읍면지역이 평균 4.07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 청소년이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도전정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보면, 경제수준이 높은(M=4.16) 청소년이 중간 및 낮은(M=4.07) 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교육에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되었다($p<.001$). 또한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한 성격(M=4.17)의 청소년이 보통(M=4.04) 혹은 조용한(M=4.02) 청소년보다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표 III - 41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도전정신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4	4.11	.838		
성별	남자	3090	4.05	.894	t=-4.869 p=.000	
	여자	3504	4.15	.782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4.20	.895	F=8.566 p=.000	a>b,c
	중학교 ^b	2490	4.08	.844		
	고등학교 ^c	2924	4.10	.807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5	4.14	.837	F=4.572 p=.010	a>b
	중소도시 ^b	3175	4.08	.838		
	읍면지역	714	4.07	.843		
경제수준	상 ^a	2610	4.16	.852	F=9.552 p=.000	a>b,c
	중 ^b	2784	4.07	.817		
	하 ^c	1167	4.07	.843		
성격	조용함 ^a	775	4.02	.865	F=22.805 p=.000	c>a,b
	보통 ^b	2431	4.04	.834		
	활발함 ^c	3344	4.17	.828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9)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이 필요한 정도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M=3.94)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남자(M=3.88)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교급별 차이에서는 초등학교의 인식수준이 4.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M=3.88), 중학생(M=3.77)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학교급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96)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M=3.88)의 청소년보다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후검증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 청소년 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M=3.98$) 청소년은 중간 및 낮은($M=3.87$) 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교육의 내용으로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p<.001$), 활발한 성격($M=3.96$)의 청소년의 경우 보통($M=3.87$)이거나 조용한($M=3.85$) 청소년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II - 42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6	3.91	.862		
성별	남자	3086	3.88	.906	$t=-3.094$ $p=.002$	
	여자	3500	3.94	.820		
학교급	초등학교 ^a	1176	4.29	.853	$F=154.363$ $p=.000$	a)c>b
	중학교 ^b	2489	3.77	.855		
	고등학교 ^c	2921	3.88	.827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3	3.96	.861	$F=6.201$ $p=.002$	a)b
	중소도시 ^b	3170	3.88	.853		
	읍면지역	713	3.88	.898		
경제수준	상 ^a	2609	3.98	.873	$F=13.779$ $p=.000$	a)b,c
	중 ^b	2780	3.87	.830		
	하 ^c	1164	3.87	.888		
성격	조용함 ^a	775	3.85	.877	$F=11.659$ $p=.000$	c)a,b
	보통 ^b	2428	3.87	.825		
	활발함 ^c	3339	3.96	.879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10)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의 필요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먼저,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58, 여자청소년은 3.68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의 평균점수는 3.83, 중학생은 3.64, 고등학생은 3.55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초청특강에 대한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위그룹의 인식수준은 3.71, 중간그룹이 3.62, 하위그룹이 3.50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에서는 활발한 성격(M=3.70), 보통 성격(M=3.57), 조용한 성격(M=3.55)의 청소년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활발한 청소년은 보통 및 조용한 성격의 청소년에 비해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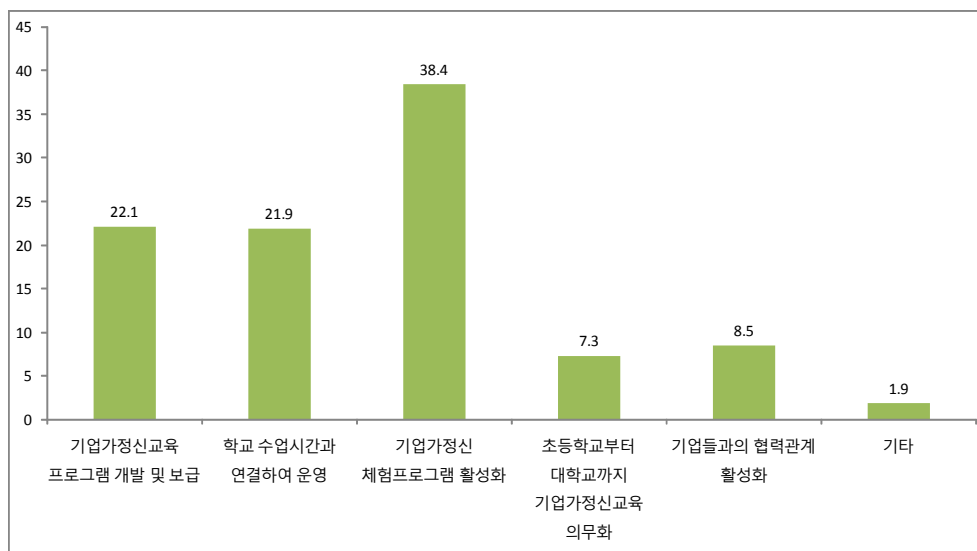
표 III - 43 기업가정신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2	3.63	.944		
성별	남자	3088	3.58	1.008	$t=-4.248$ $p=.000$	
	여자	3504	3.68	.881		
학교급	초등학교 ^a	1180	3.83	.988	$F=39.394$ $p=.000$	a)b)c
	중학교 ^b	2488	3.64	.918		
	고등학교 ^c	2924	3.55	.935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3	3.66	.949	$F=2.048$ $p=.129$	
	중소도시	3174	3.61	.935		
	읍면지역	715	3.63	.959		
경제수준	상 ^a	2610	3.71	.958	$F=20.699$ $p=.000$	a)b)c
	중 ^b	2783	3.62	.893		
	하 ^c	1166	3.50	1.000		
성격	조용함 ^a	773	3.55	.980	$F=16.904$ $p=.000$	c)a,b
	보통 ^b	2430	3.57	.915		
	활발함 ^c	3345	3.70	.950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10)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38.4%)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2.1%),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21.9%)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8.5%),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교육 의무화’ (7.3%)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소 제시되었다.



【그림 Ⅲ-14】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정신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Ⅲ-44〉).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꼽았으나, 남자(31.1%) 청소년보다 여자(44.7%)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14%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24.6%),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3.6%)이 각각 2, 3순위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8%),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19.6%)이 다음 순위로 확인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등 학생 모두 유사한 비율로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초 36.6%, 중 37.3%, 고 40.0%)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과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22.3%)을 공동 2순위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교육 의무화’ (12.0%) 방안을 그 다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중학생은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25.1%),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5%)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3.4%),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19.0%)의 순으로 제시하였다($p<.001$). 성격별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격에 관계없이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가 31.8%~39.7%의 응답률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조용한 성격과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은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조용한 24.2%, 활발한 22.4%),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조용한 23.6%, 활발한 20.8%)의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보통 성격의 청소년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3.6%),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20.4%)의 순으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였다 ($p<.01$).

표 III - 44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통계치
전체		22.1	21.9	38.4	7.3	8.5	1.9	100.0	
성별	남자	23.6	24.6	31.1	8.6	9.5	2.6	100.0	$\chi^2=140.246$ $p=.000$
	여자	20.8	19.6	44.7	6.1	7.5	1.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2.3	22.3	36.6	12.0	5.4	1.4	100.0	$\chi^2=132.797$ $p=.000$
	중학교	20.5	25.1	37.3	7.8	7.0	2.2	100.0	
	고등학교	23.4	19.0	40.0	5.0	10.9	1.7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	22.4	37.2	7.3	8.6	2.1	100.0	$\chi^2=12.259$ $p=.268$
	중소도시	22.2	21.9	38.4	7.1	8.7	1.7	100.0	
	읍면지역	20.9	19.9	42.8	8.1	6.8	1.4	100.0	
경제수준	상	22.7	21.9	38.2	7.9	7.7	1.6	100.0	$\chi^2=15.613$ $p=.111$
	중	21.4	22.0	39.5	6.7	8.6	1.8	100.0	
	하	22.8	21.8	35.8	7.3	9.9	2.5	100.0	
성격	조용함	23.6	24.2	31.8	8.5	9.7	2.3	100.0	$\chi^2=28.216$ $p=.002$
	보통	23.6	20.4	38.8	6.8	8.4	2.1	100.0	
	활발함	20.8	22.4	39.7	7.4	8.3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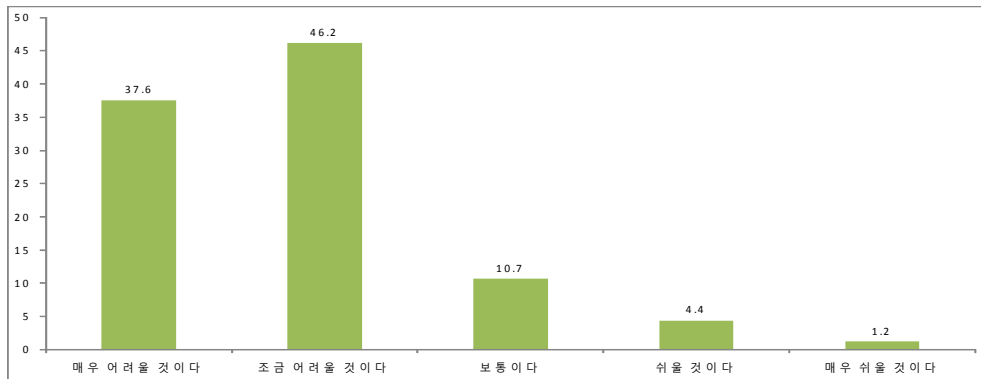
①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③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④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교육 의무화, ⑤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⑥ 기타

2.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1)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매우 어려울 것이다’ ~ ‘매우 쉬울 것이다’의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46.2%)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청소년

들이 취업에 대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했고,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의 응답도 37.6%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10.7%, ‘쉬울 것이다’ 4.4%, ‘매우 쉬울 것이다’ 는 1.2%의 미미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의 취업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5】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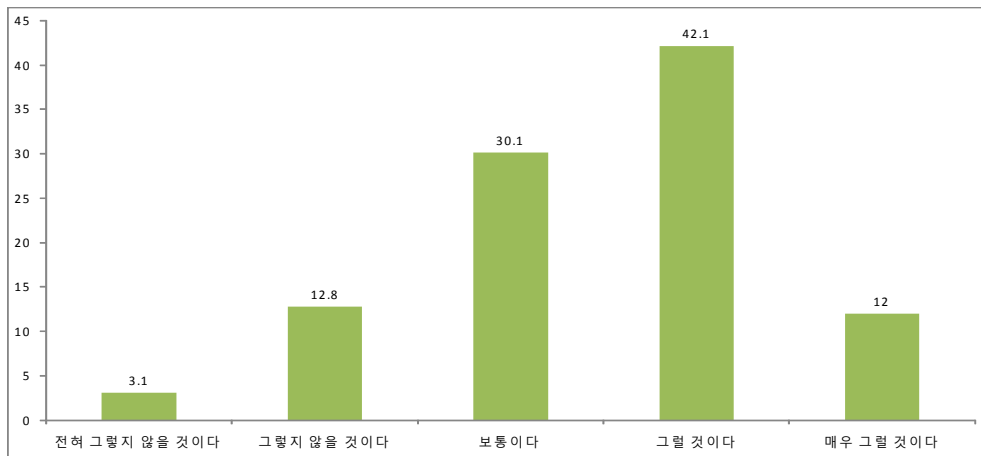
평균점수를 통해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 III-45>와 같이 지역을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가 1.93, 여자청소년이 1.78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남자청소년의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교급이 낮을수록 취업환경이 긍정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평균은 2.1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1.90, 고등학생은 1.70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교급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즉 상위그룹($M=1.94$), 중간그룹($M=1.84$), 하위그룹($M=1.69$)의 순으로 미래의 취업환경이 보다 쉬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성격별 차이를 보면, 활발한 성격($M=1.88$), 보통 성격($M=1.84$), 조용한 성격($M=1.76$)의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고하여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활발한 청소년은 조용한 청소년보다 미래 취업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01$).

표 Ⅲ - 45 미래 취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8	1.85	.860		
성별	남자	3091	1.93	.939	t=6.938 p=.000	
	여자	3507	1.78	.777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2.12	.900	F=114.530 p=.000	a>b>c
	중학교 ^b	2492	1.90	.865		
	고등학교 ^c	2925	1.70	.805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6	1.84	.859	F=.465 p=.628	
	중소도시	3176	1.86	.861		
	읍면지역	716	1.87	.858		
경제수준	상 ^a	2612	1.94	.904	F=33.537 p=.000	a>b>c
	중 ^b	2786	1.84	.823		
	하 ^c	1167	1.69	.815		
성격	조용함 ^a	776	1.76	.845	F=6.964 p=.001	b>a
	보통	2432	1.84	.829		
	활발함 ^b	3346	1.88	.880		

1) 매우 어려울 것이다(1점), 조금 어려울 것이다(2점), 보통이다(3점), 쉬울 것이다(4점), 매우 쉬울 것이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인식



【그림 Ⅲ-16】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인식

청소년들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 취득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회사)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III-1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그럴 것이다’ (42.1%)와 ‘매우 그릴 것이다’ (12.0%)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3 정도(30.1%)는 ‘보통이다’ 고 응답했다. 한편, ‘그렇지 않을 것이다’ (12.8%),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3.1%)의 부정적인 인식도 15.9%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46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6	3.47	.964		
성별	남자	3089	3.39	.999	t=-6.272 p=.000	
	여자	3507	3.54	.926		
학교급	초등학교 ^a	1179	3.68	.900	F=34.653 p=.000	a)b,c
	중학교 ^b	2493	3.44	.927		
	고등학교 ^c	2924	3.42	1.008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6	3.48	.985	F=.357 p=.700	
	중소도시	3173	3.46	.952		
	읍면지역	717	3.46	.935		
경제수준	상 ^a	2611	3.64	.937	F=80.879 p=.000	a)b)c
	중 ^b	2785	3.41	.941		
	하 ^c	1167	3.25	1.009		
성격	조용함 ^a	776	3.22	1.038	F=58.459 p=.000	c)b)a
	보통 ^b	2432	3.40	.930		
	활발함 ^c	3344	3.58	.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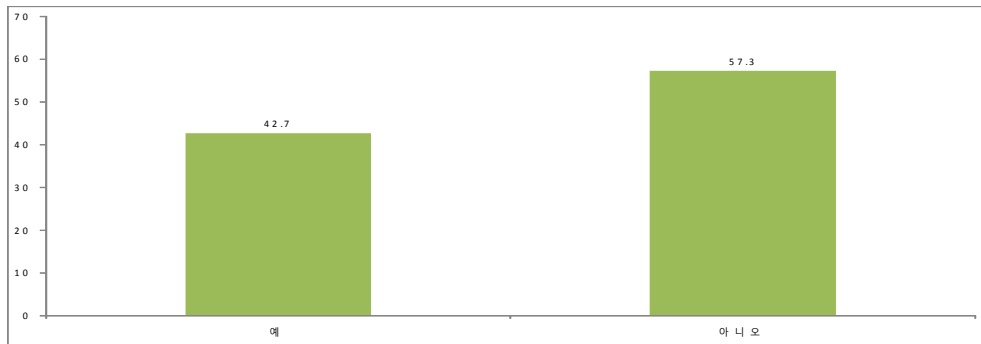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릴 것이다(4점), 매우 그릴 것이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평균점수를 통해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별 차이를 제외하고,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성격에 따른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보면, 여자(M=3.54) 청소년이 남자(M=3.39)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M=3.68)이 중학생(M=3.44)과 고등학생(M=3.42)에 비해 미래에 희망 직업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인 청소년은 평균 3.64, 중간그룹은 평균 3.41, 하위그룹은 평균 3.25로,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긍정적인 인식수준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제수준의 구분에 의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활발한 성격($M=3.58$), 보통 성격($M=3.40$), 조용한 성격($M=3.22$)의 청소년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고하였으며,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미래 직업 취득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3) 창업 의향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창업도 고려하는지 알아본 결과,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이 약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청소년 중 42.7%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 -17】 창업 의향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업선택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성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45.3%)가 여자(40.4%) 청소년보다 창업에 대한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있었으며($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54.7%)의 경우 중학생(40.9%)과 고등학생(39.4%)에 비해 창업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46.1%) 청소년은 보통(40.4%) 혹은 낮은(40.8%) 청소년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p<.001$), 성격이 활발한(45.6%) 청소년이 보통(39.9%)이거나 조용한(38.8%) 청소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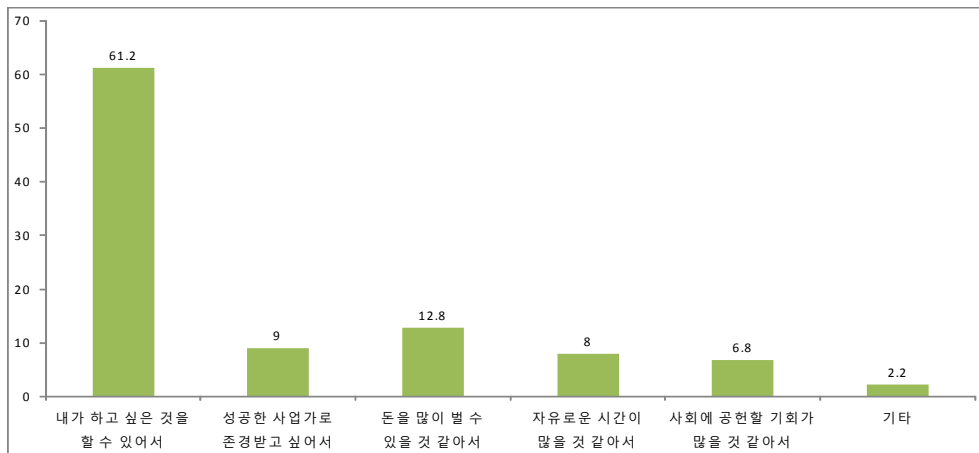
표 Ⅲ - 47 창업 의향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42.7	57.3	100.0	
성별	남자	45.3	54.7	100.0	$\chi^2=15.477$ $p=.000$
	여자	40.4	59.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4.7	45.3	100.0	$\chi^2=85.886$ $p=.000$
	중학교	40.9	59.1	100.0	
	고등학교	39.4	60.6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42.3	57.7	100.0	$\chi^2=.577$ $p=.749$
	중소도시	43.2	56.8	100.0	
	읍면지역	42.1	57.9	100.0	
경제수준	상	46.1	53.9	100.0	$\chi^2=19.809$ $p=.000$
	중	40.4	59.6	100.0	
	하	40.8	59.2	100.0	
성격	조용함	38.8	61.2	100.0	$\chi^2=24.118$ $p=.000$
	보통	39.9	60.1	100.0	
	활발함	45.6	54.4	100.0	

(1)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Ⅲ-18】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응답자 중 대다수의 청소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61.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2.8%),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9.0%),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8.0%),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6.8%)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이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지역을 제외한 특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중심으로 보면, 남녀 청소년이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의 순위는 동일하였으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는 남자(54.2%)보다 여자(68.0%)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약 14%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응답에 있어서는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대체로 조금씩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52.9%),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18.5%),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12.4%)의 순으로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중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63.4%),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1.5%),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9.6%)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63.8%),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5.2%),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9.6%)의 순으로 응답하여 학교급별 차이를 보고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인 청소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58.7%),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3.1%),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10.3%)의 순위로 나타난 반면, 중간그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63.6%),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2.8%),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및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8.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하위그룹 청소년은 다른 그룹과 달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61.8%),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2.2%),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11.6%)의 순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를 밝혔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조용한 청소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60.7%),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14.0%),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9.3%)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보통 및 활발한 청소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보통 63.5%, 활발한 59.7%),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12.4%, 활발한 13.8%),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보통 8.4%, 활발한 9.7%)의 순으로 창업 의향의 이유를 언급하였다($p<.01$).

표 III - 48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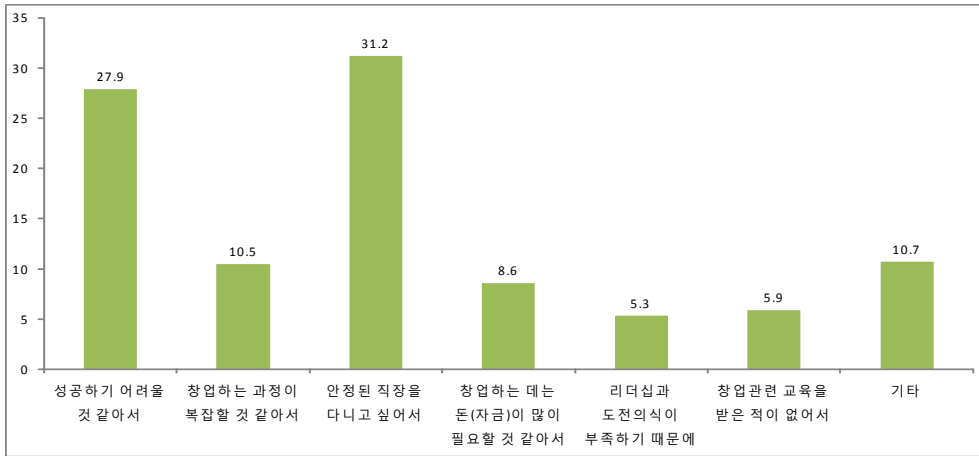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통계치
전체		61.2	9.0	12.8	8.0	6.8	2.2	100.0	
성별	남자	54.2	10.4	16.1	9.6	7.5	2.2	100.0	$\chi^2=62.282$ $p=.000$
	여자	68.0	7.6	9.5	6.4	6.1	2.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2.9	12.4	10.4	3.9	18.5	1.9	100.0	$\chi^2=233.872$ $p=.000$
	중학교	63.4	9.6	11.5	8.9	5.0	1.6	100.0	
	고등학교	63.8	6.6	15.2	9.6	1.8	3.0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60.1	8.6	12.8	8.5	7.7	2.2	100.0	$\chi^2=4.988$ $p=.892$
	중소도시	61.8	9.1	12.9	7.7	6.4	2.2	100.0	
	읍면지역	62.3	10.3	12.3	7.7	5.0	2.3	100.0	
경제수준	상	58.7	10.3	13.1	6.4	9.3	2.3	100.0	$\chi^2=38.205$ $p=.000$
	중	63.6	8.2	12.8	8.2	5.4	1.8	100.0	
	하	61.8	7.8	12.2	11.6	4.0	2.7	100.0	
성격	조용함	60.7	7.7	9.3	14.0	6.3	2.0	100.0	$\chi^2=26.783$ $p=.003$
	보통	63.5	8.4	12.4	8.0	5.9	1.9	100.0	
	활발함	59.7	9.7	13.8	6.9	7.6	2.4	100.0	

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②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③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④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⑤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⑥ 기타

(2)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미래 직업선택에서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III-19]와 같다. 청소년들이 창업 의향이 없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7.9%)가 2순위를 차지하였고, ‘기타’ (10.7%),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10.5%), ‘창업하는 데는 돈(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8.6%),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5.9%), ‘리더십과 도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5.3%)의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에는 ‘창업에 관심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 하고 싶지 않아서’ 등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림 Ⅲ-19】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4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을 제외한 특성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29.5%),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8.9%),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11.1%)의 순으로, 여자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32.5%),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7.2%), ‘기타’ (11.2%)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간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초 29.5%, 중 33.9%),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초 25.9%, 중 27.0%),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초 14.8%, 중 12.3%)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를 각각 29.4%, 29.3%로 유사하게 응답했고, ‘기타’ (12.7%)를 3순위로 보고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 및 중간그룹의 청소년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상 34.5%, 중 31.1%),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상 25.3%, 중 28.9%),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상 11.7%, 중 10.2%)의 순으로 대답한 반면, 경제수준이 하위그룹인 청소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30.9%),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24.6%), ‘기타’ (12.6%) 순으로 응답했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 조용한 청소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8.9%),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28.3%),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10.8%) 순으로, 보통 성격의 청소년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32.0%),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8.8%),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10.4%)의 순으로, 활발한 청소년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31.3%),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7.1%), ‘기타’ (12.8%)의 순으로 제시했다 ($p<.001$).

표 Ⅲ - 49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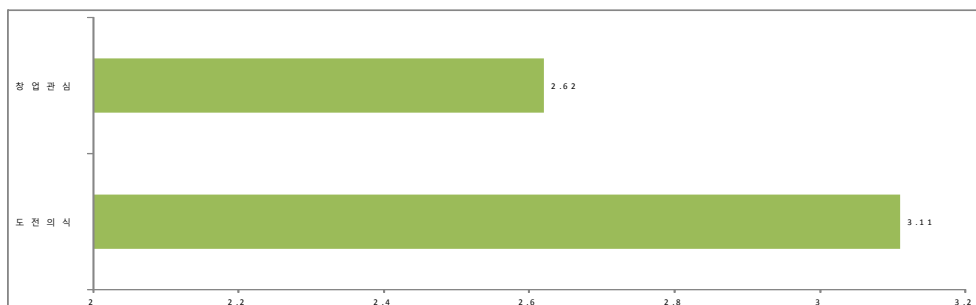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통계치
전체		27.9	10.5	31.2	8.6	5.3	5.9	10.7	100.0	
성별	남자	28.9	11.1	29.5	9.9	4.3	6.2	10.0	100.0	$\chi^2=17.697$ $p=.007$
	여자	27.2	10.0	32.5	7.5	6.0	5.7	11.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5.9	14.8	29.5	7.5	6.0	8.5	7.7	100.0	$\chi^2=66.413$ $p=.000$
	중학교	27.0	12.3	33.9	7.7	4.1	5.7	9.4	100.0	
	고등학교	29.3	7.6	29.4	9.6	6.0	5.4	12.7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27.3	11.3	32.6	8.0	4.5	5.7	10.6	100.0	$\chi^2=9.391$ $p=.669$
	중소도시	28.3	10.0	30.1	8.9	5.9	6.3	10.5	100.0	
	읍면지역	28.9	9.5	30.6	9.2	5.1	5.1	11.7	100.0	
경제수준	상	25.3	11.7	34.5	7.0	3.9	6.8	10.8	100.0	$\chi^2=55.241$ $p=.000$
	중	28.9	10.2	31.1	8.5	5.8	5.7	9.8	100.0	
	하	30.9	8.4	24.6	12.0	6.7	4.8	12.6	100.0	
성격	조용함	28.9	10.8	28.3	8.4	9.5	5.7	8.4	100.0	$\chi^2=56.272$ $p=.000$
	보통	28.8	10.4	32.0	8.1	6.5	5.6	8.7	100.0	
	활발함	27.1	10.5	31.3	9.0	3.1	6.2	12.8	100.0	

①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②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③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④ 창업하는 데는 돈(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⑤ 리더십과 도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⑥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⑦ 기타

4) 창업관심과 도전의식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 정도를 5점 척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관심’ 정도의 평균점수는 2.62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도전의식’ 정도는 평균 3.11의 보통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Ⅲ-20】 창업관심과 도전의식

(1) 창업관심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별로 ‘창업관심’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역별 비교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Ⅲ-50 창업관심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2	2.62	.909		
성별	남자	3085	2.66	.944	t=3.631 p=.000	
	여자	3507	2.58	.875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2.74	.980	F=14.803 p=.000	a>b,c
	중학교 ^b	2487	2.57	.884		
	고등학교 ^c	2924	2.61	.895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3	2.62	.931	F=.240 p=.787	
	중소도시	3172	2.62	.890		
	읍면지역	717	2.59	.910		
경제수준	상 ^a	2609	2.67	.936	F=7.458 p=.001	a>b,c
	중 ^b	2785	2.58	.872		
	하 ^c	1166	2.59	.925		
성격	조용함 ^a	776	2.45	.887	F=24.392 p=.000	c>b>a
	보통 ^b	2430	2.58	.856		
	활발함 ^c	3343	2.68	.94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표 III-50>과 같이, 성별의 경우 남자(M=2.66) 청소년이 여자(M=2.58) 청소년보다 창업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M=2.74), 고등학생(M=2.61), 중학생(M=2.57)의 순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의 창업관심 정도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M=2.67) 청소년은 중간(M=2.58) 및 낮은(M=2.59) 청소년에 비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즉, 활발한(M=2.68), 보통(M=2.58), 조용한(M=2.45) 성격의 순으로 창업관심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2) 도전정신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도전정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표 III-51>).

표 III - 51 도 전 정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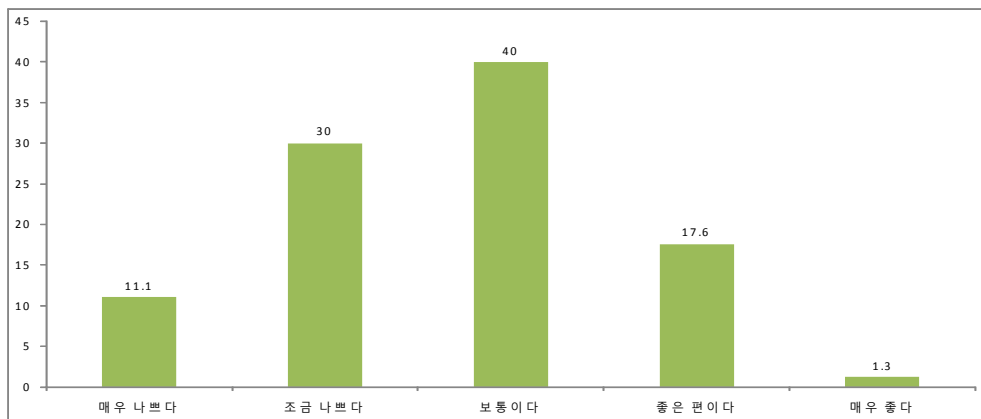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2	3.11	.937		
성별	남자	3085	3.15	.962	t=3.181 p=.001	
	여자	3507	3.08	.913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3.23	1.115	F=12.407 p=.000	a)b,c
	중학교 ^b	2487	3.06	.892		
	고등학교 ^c	2924	3.11	.891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3	3.15	.946	F=3.201 p=.041	
	중소도시	3172	3.09	.923		
	읍면지역	717	3.09	.963		
경제수준	상 ^a	2609	3.24	.956	F=43.291 p=.000	a)b,c
	중 ^b	2785	3.05	.900		
	하 ^c	1166	2.99	.941		
성격	조용함 ^a	776	2.82	.922	F=80.431 p=.000	c)b)a
	보통 ^b	2430	3.03	.877		
	활발함 ^c	3343	3.24	.9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즉, 남자의 평균점수는 3.15, 여자의 평균점수는 3.08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도전정신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p<.01$). 또한 초등학생($M=3.23$), 고등학생($M=3.11$), 중학생($M=3.06$)의 순으로 도전정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보다 도전정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15$)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M=3.09$)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도전정신이 더 높게 분석되었으나($p<.05$), 사후검증 시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도전정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상위그룹($M=3.24$) 청소년의 도전정신이 중간($M=3.05$) 및 하위그룹($M=2.99$)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다($p<.001$).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한($M=3.24$), 보통($M=3.03$), 조용한($M=2.82$) 성격의 순으로 즉,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도전정신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림 III-21】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했다. 분석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금 나쁘다’라는 응답이 30.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좋은 편이다’는 17.6%, ‘매우 나쁘다’는 11.1%, ‘매우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에 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국내의 창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 52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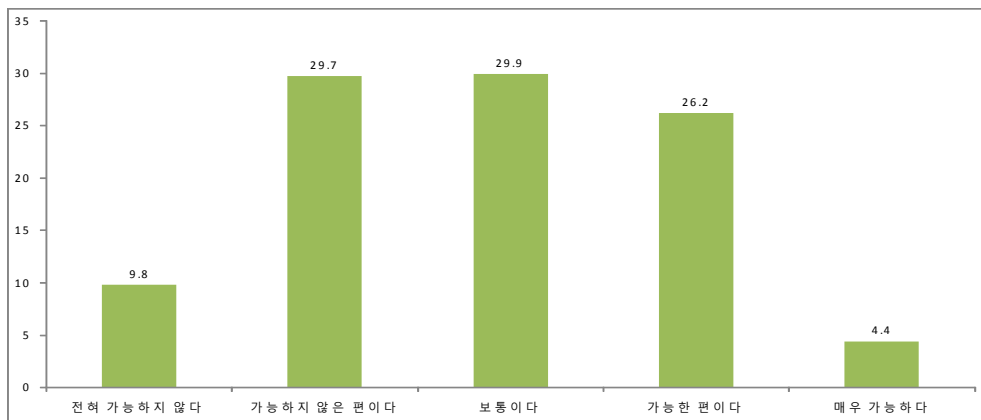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3	2.68	.933		
성별	남자	3085	2.66	.993	t=-1.255 p=.209	
	여자	3508	2.69	.877		
학교급	초등학교 ^a	1179	3.21	.825	F=406.577 p=.000	a>b>c
	중학교 ^b	2491	2.79	.886		
	고등학교 ^c	2923	2.37	.897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4	2.65	.961	F=2.177 p=.113	
	중소도시	3172	2.70	.918		
	읍면지역	717	2.67	.888		
경제수준	상 ^a	2610	2.80	.957	F=61.235 p=.000	a>b>c
	중 ^b	2785	2.67	.887		
	하 ^c	1167	2.44	.930		
성격	조용함 ^a	775	2.52	.937	F=18.873 p=.000	c>b>a
	보통 ^b	2430	2.65	.895		
	활발함 ^c	3346	2.74	.952		

1) 매우 나쁘다(1점), 조금 나쁘다(2점), 보통이다(3점), 좋은 편이다(4점), 매우 좋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국내 창업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급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즉, 초등학생(M=3.21), 중학생(M=2.79), 고등학생(M=2.37)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그룹(M=2.80), 중간그룹(M=2.67), 하위그룹(M=2.44)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성격별로 살펴보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즉, 활발한 성격(M=2.74), 보통 성격(M=2.65), 조용한 성격(M=2.52) 순으로 창업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6)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29.9%)와 ‘가능하지 않은 편이다’ (29.7%)의 응답비율이 약 30%로 유사하였고, ‘가능한 편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26.2%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9.8%), ‘매우 가능하다’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40% 정도가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II-22】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II-53>).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평균 3.44, 중학생이 평균 2.92, 고등학생이 평균 2.57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평균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즉, 상위그룹($M=2.95$), 중간그룹($M=2.86$), 하위그룹($M=2.65$)의 순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 < .001$).

성격 특성에 따라서는 활발할수록 국내의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활발한($M=2.92$) 청소년이 보통($M=2.81$) 및 조용한($M=2.72$) 성격의 청소년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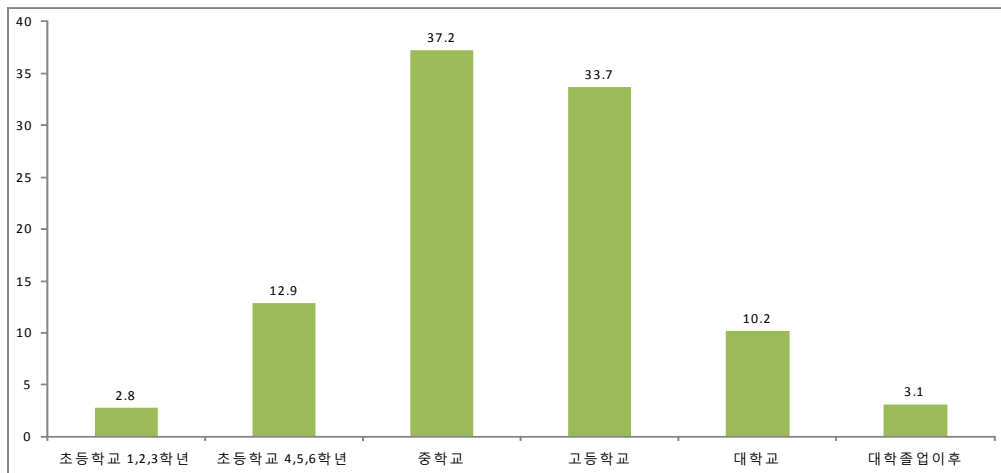
그러한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II - 53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0	2.86	1.052		
성별	남자	3078	2.85	1.104	$t=-.638$ $p=.523$	
	여자	3502	2.86	1.004		
학교급	초등학교 ^a	1171	3.44	.956	$F=323.804$ $p=.000$	a>b>c
	중학교 ^b	2486	2.92	1.008		
	고등학교 ^c	2923	2.57	1.019		
지역	특별시/광역시	2697	2.83	1.059	$F=2.006$ $p=.135$	
	중소도시	3168	2.88	1.054		
	읍면지역	715	2.84	1.012		
경제수준	상 ^a	2599	2.95	1.067	$F=31.661$ $p=.000$	a>b>c
	중 ^b	2784	2.86	1.021		
	하 ^c	1166	2.65	1.060		
성격	조용함 ^a	768	2.72	1.047	$F=14.192$ $p=.000$	c>a,b
	보통 ^b	2426	2.81	1.017		
	활발함 ^c	3345	2.92	1.073		

1) 전혀 가능하지 않다(1점), 가능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가능한 편이다(4점), 매우 가능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7) 창업교육 시작 시기



【그림 III - 23】 창업교육 시작 시기

[그림 III-23]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창업교육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3 이상(37.2%)이 ‘중학교’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1/3 정도(33.7%)는 ‘고등학교’ 시기로 응답하였다.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4, 5, 6학년’ (12.9%), ‘대학교’ (10.2%), ‘대학졸업 이후’ (3.1%), ‘초등학교 1, 2, 3학년’ (2.8%)의 순으로 창업 교육의 시작 시기를 언급하였다.

표 III-54 창업교육 시작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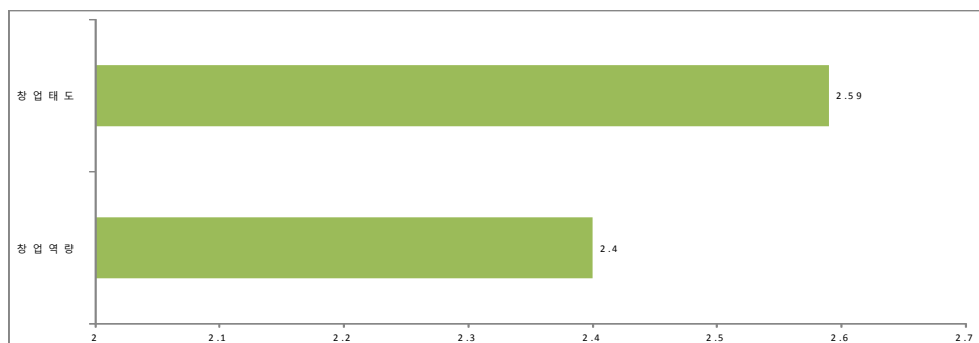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1,2,3학년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졸업 이후	전체	통계치
전체		2.8	12.9	37.2	33.7	10.2	3.1	100.0	
성별	남자	4.1	14.6	36.5	31.6	9.0	4.2	100.0	$\chi^2=80.846$ $p=0.000$
	여자	1.8	11.4	37.8	35.5	11.3	2.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9	33.8	38.5	14.6	5.5	3.7	100.0	$\chi^2=945.670$ $p=0.000$
	중학교	3.0	12.3	44.4	29.2	8.4	2.7	100.0	
	고등학교	2.3	5.0	30.6	45.2	13.7	3.2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3.0	13.8	37.0	32.1	10.7	3.4	100.0	$\chi^2=13.439$ $p=0.200$
	중소도시	2.8	12.7	37.0	35.1	9.7	2.8	100.0	
	읍면지역	2.4	10.8	39.3	33.4	10.9	3.2	100.0	
경제수준	상	3.5	15.4	37.9	30.2	9.8	3.2	100.0	$\chi^2=73.960$ $p=0.000$
	중	2.3	12.4	37.8	33.8	10.4	3.3	100.0	
	하	2.6	8.4	34.7	41.4	10.7	2.3	100.0	
성격	조용함	3.5	11.1	36.3	33.4	12.4	3.3	100.0	$\chi^2=18.482$ $p=0.047$
	보통	2.4	12.6	36.3	34.5	11.2	2.9	100.0	
	활발함	3.0	13.4	38.1	33.2	9.1	3.1	100.0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을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창업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응답률이 1.3~3.9%의 범위로 좀 더 높았고, 남자청소년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대학졸업 이후’, ‘초등학교 1, 2, 3학년’의 응답비율이 2.0~3.2%의 차이로 약간씩 높게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중학교’라는 응답이 각각 38.5%,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로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4, 5, 6학년’ (33.8%), ‘고등학교’ (14.6%) 순으로, 중학생은 ‘고등학교’ (29.2%), ‘초등학교 4, 5, 6학년’ (12.3%) 순으로, 고등학생은 ‘중학교’ (30.6%), ‘대학교’ (13.7%) 순으로 2, 3순위를 제시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 별로 살펴보면, 상위그룹과 중간그룹에서는 ‘중학교’ (상 37.9%, 중 37.8%), ‘고등학교’ (상 30.2%, 중 33.8%), ‘초등학교 4, 5, 6학년’ (상 15.4%, 중 12.4%)의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하위그룹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41.4%), ‘중학교’ (34.7%), ‘대학교’ (10.7%)의 순으로 창업교육의 시작 시기를 언급하였다($p<.001$). 성격별 차이를 보면, 조용한 성격의 청소년과 보통 및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조용한 청소년은 ‘중학교’ (36.3%), ‘고등학교’ (33.4%), ‘대학교’ (12.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보통 및 활발한 청소년은 ‘중학교’ (보통 36.3%, 활발한 38.1%), ‘고등학교’ (보통 34.5%, 활발한 33.2%), ‘초등학교 4, 5, 6학년’ (보통 12.6%, 활발한 13.4%)의 순으로 창업교육의 적정한 시작 시기를 밝혔다($p<.05$).

8) 창업태도와 창업역량 수준

청소년들의 창업태도와 창업역량 수준을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창업태도의 평균점수는 2.59, 창업역량의 평균점수는 2.40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창업 정보에 대한 탐색이나 창업 활동의 준비, 창업의 실행 등을 의미하는 창업태도 및 창업과정에 따른 개인적 역량의 수준이 다소 낮았다.



【그림 III -24】 창업태도와 창업역량 수준

(1) 창업태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태도’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2.63, 여자청소년의 평균이 2.54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창업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창업태도의 수준이 높았으며, 초등학교(M=2.68)의 창업태도가 중학생(M=2.59)과 고등학생(M=2.5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지역별로는 특별시 및 광역시(M=2.61), 읍면지역(M=2.58), 중소도시(M=2.57)의 순으로 높은 창업태도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의 청소년에 비해 창업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p<.05$).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2.65)인 청소년의 창업태도 수준은 중간(M=2.55) 및 하위그룹(M=2.53)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성격에 따른 비교에서는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창업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활발한(M=2.63) 청소년의 경우 보통(M=2.55) 및 조용한(M=2.50) 청소년에 비해 창업태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표 III - 55 창업태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3	2.59	.661		
성별	남자	3092	2.63	t=5.454 p=.000	
	여자	3511	2.54		
학교급	초등학교 ^a	1182	2.68	F=15.779 p=.000	a)b,c
	중학교 ^b	2495	2.59		
	고등학교 ^c	2926	2.55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9	2.61	F=3.287 p=.037	a)b
	중소도시 ^b	3177	2.57		
	읍면지역	717	2.58		
경제수준	상 ^a	2616	2.65	F=19.383 p=.000	a)b,c
	중 ^b	2790	2.55		
	하 ^c	1166	2.53		
성격	조용함 ^a	774	2.50	F=20.067 p=.000	c)a,b
	보통 ^b	2434	2.55		
	활발함 ^c	3353	2.6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창업역량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역량’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성격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우선,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평균 2.51, 여자청소년은 평균 2.30으로 남자청소년의 창업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즉 초등학생($M=2.72$), 중학생($M=2.43$), 고등학생($M=2.24$)의 순으로 창업역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2.51$), 중간그룹($M=2.37$), 하위그룹($M=2.22$)의 순으로 청소년의 창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p<.001$). 성격의 경우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구체적으로 활발한($M=2.48$), 보통($M=2.33$), 조용한($M=2.23$) 성격의 순으로 창업역량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표 III - 56 창업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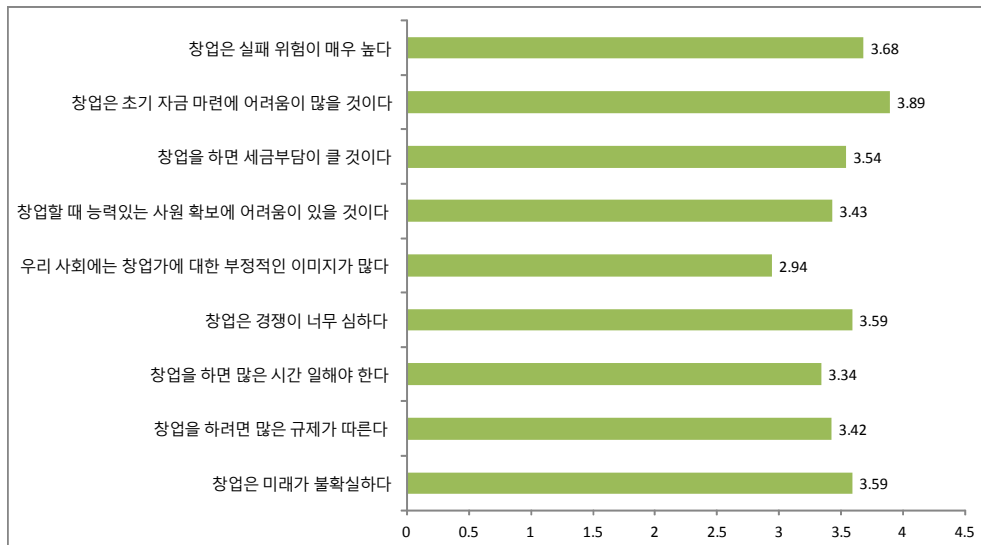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601	2.40	.846		
성별	남자	3091	2.51	.894	$t=9.660$ $p=.000$	
	여자	3510	2.30	.789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2.72	.918	$F=144.737$ $p=.000$	a)b)c
	중학교 ^b	2495	2.43	.866		
	고등학교 ^c	2925	2.24	.753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7	2.43	.867	$F=2.796$ $p=.061$	
	중소도시 ^b	3177	2.38	.824		
	읍면지역 ^c	717	2.39	.856		
경제수준	상 ^a	2615	2.51	.874	$F=52.255$ $p=.000$	a)b)c
	중 ^b	2789	2.37	.807		
	하 ^c	1166	2.22	.829		
성격	조용함 ^a	774	2.23	.838	$F=38.825$ $p=.000$	c)b)a
	보통 ^b	2434	2.33	.812		
	활발함 ^c	3351	2.48	.8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9)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환경적 어려움을 9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5점 척도로 질문함으로써 창업 장애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은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창업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M=3.89)는 항목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창업은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 (M=3.68), ‘창업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M=3.59), ‘창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M=3.59), ‘창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클 것이다’ (M=3.54), ‘창업할 때 능력 있는 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M=3.43), ‘창업을 하려면 많은 규제가 따른다’ (M=3.42), ‘창업을 하면 많은 시간 일해야 한다’ (M=3.34)고 생각하는 경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는 인식은 평균 2.9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그림 III-25】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1)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실패 위험

청소년들의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항목인 ‘창업은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 는 인식은 <표 III-5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70, 여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65로, 남자청소년이 창업의 실패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평균 3.53, 고등학생이 평균 3.80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하위그룹($M=3.80$)인 청소년이 중간($M=3.63$) 및 상위그룹($M=3.66$)인 청소년보다 창업의 실패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III - 57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실패 위험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20	3.68	.825		
성별	남자	2469	3.70	.879	$t=2.132$ $p=.033$	
	여자	2951	3.65	.776		
학교급	중학교	2495	3.53	.873	$t=-11.827$ $p=.000$	
	고등학교	2925	3.80	.762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2	3.71	.827	$F=2.810$ $p=.060$	
	중소도시	2577	3.65	.824		
	읍면지역	611	3.66	.822		
경제수준	상 ^a	1968	3.66	.859	$F=15.324$ $p=.000$	c)a,b
	중 ^b	2346	3.63	.802		
	하 ^c	1081	3.80	.797		
성격	조용함	676	3.73	.844	$F=1.896$ $p=.150$	
	보통	2057	3.68	.795		
	활발함	2652	3.66	.84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

‘창업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의 항목은 지역을 제외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II-58>). 성별로 보면, 여자청소년($M=3.91$)의 경우 남자청소년($M=3.86$)보다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p<.05$),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3.74$)보다 고등학생($M=4.01$)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보면, 하위그룹($M=4.04$) 청소년이 생각하는 창업의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중간 및

상위그룹(M=3.85)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성격별로 살펴 보면, 조용한 성격일수록, 즉 조용한(M=3.95), 보통(M=3.90), 활발한(M=3.86) 청소년의 순으로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조용한 청소년이 활발한 청소년보다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5$).

표 III - 58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9	3.89	.787		
성별	남자	2468	3.86	.842	$t=-2.308$ $p=.021$	
	여자	2951	3.91	.738		
학교급	중학교	2494	3.74	.841	$t=-12.606$ $p=.000$	
	고등학교	2925	4.01	.716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2	3.88	.794	$F=.464$ $p=.629$	
	중소도시	2576	3.90	.777		
	읍면지역	611	3.88	.810		
경제수준	상 ^a	1968	3.85	.816	$F=26.448$ $p=.000$	c)a,b
	중 ^b	2345	3.85	.772		
	하 ^c	1081	4.04	.735		
성격	조용함 ^a	675	3.95	.792	$F=4.232$ $p=.015$	a)b
	보통	2057	3.90	.756		
	활발함 ^b	2652	3.86	.80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세금부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클 것이다’의 항목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표 III -59>).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M=3.51)보다 여자청소년(M=3.57)이 세금부담이 클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확인되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하위그룹(M=3.61)인 청소년이 상위(M=3.53) 및 중간그룹(M=3.52)의 청소년에 비해 창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표 Ⅲ - 59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세금부담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7	3.54	.826		
성별	남자	2467	3.51	.870	t=-2.785 p=.005	
	여자	2950	3.57	.787		
학교급	중학교	2494	3.52	.835	t=-1.837 p=.066	
	고등학교	2923	3.56	.818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0	3.53	.825	F=.867 p=.420	
	중소도시	2577	3.55	.825		
	읍면지역	610	3.57	.838		
경제수준	상 ^a	1966	3.53	.843	F=4.903 p=.007	c)a,b
	중 ^b	2346	3.52	.801		
	하 ^c	1081	3.61	.845		
성격	조용함	675	3.50	.899	F=1.836 p=.159	
	보통	2055	3.53	.804		
	활발함	2652	3.56	.82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사원 확보의 어려움

표 Ⅲ - 60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사원 확보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5	3.43	.871		
성별	남자	2465	3.45	.917	t=1.612 p=.107	
	여자	2950	3.41	.830		
학교급	중학교	2491	3.41	.895	t=-1.700 p=.089	
	고등학교	2924	3.45	.850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9	3.43	.882	F=.243 p=.784	
	중소도시	2575	3.44	.852		
	읍면지역	611	3.41	.909		
경제수준	상 ^a	1968	3.42	.893	F=5.310 p=.005	c)a,b
	중 ^b	2343	3.40	.852		
	하 ^c	1079	3.51	.862		
성격	조용함	676	3.48	.910	F=1.284 p=.277	
	보통	2054	3.44	.828		
	활발함	2650	3.42	.89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창업할 때 능력 있는 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의 항목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하위그룹(M=3.51), 상위그룹(M=3.42), 중간그룹(M=3.40)의 순으로 창업 시 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경제수준이 하위그룹인 청소년이 중간과 상위그룹인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5)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항목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M=3.02)가 여자(M=2.87) 청소년에 비해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더 많다고 생각했다($p<.001$).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M=2.99)이 고등학생(M=2.90)보다 이와 같은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더욱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표 III - 61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4	2.94	.971		
성별	남자	2466	3.02	1.010	t=5.583 p=.000	
	여자	2948	2.87	.932		
학교급	중학교	2493	2.99	.944	t=3.293 p=.001	
	고등학교	2921	2.90	.992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8	2.96	.993	F=.945 p=.389	
	중소도시	2575	2.93	.955		
	읍면지역	611	2.91	.953		
경제수준	상	1965	2.94	.994	F=.686 p=.504	
	중	2345	2.93	.930		
	하	1079	2.97	1.010		
성격	조용함	676	3.01	.964	F=2.557 p=.078	
	보통	2056	2.92	.935		
	활발함	2647	2.94	.998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6)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심한 경쟁

‘창업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의 항목은 <표 III-62>와 같이, 학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평균 3.47, 고등학생이 평균 3.69로 나타나 경쟁이 심하다는 창업관련 인식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그룹($M=3.71$), 상위그룹($M=3.57$), 중간그룹($M=3.55$)의 순으로 심한 경쟁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하위그룹 청소년과 상위 및 중간그룹 청소년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III-62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심한 경쟁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6	3.59	.894		
성별	남자	2466	3.60	.946	$t=1.130$ $p=.259$	
	여자	2950	3.58	.847		
학교급	중학교	2494	3.47	.913	$t=-9.249$ $p=.000$	
	고등학교	2922	3.69	.864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9	3.60	.895	$F=.732$ $p=.481$	
	중소도시	2576	3.58	.894		
	읍면지역	611	3.56	.888		
경제수준	상 ^a	1967	3.57	.911	$F=12.794$ $p=.000$	c)a,b
	중 ^b	2344	3.55	.878		
	하 ^c	1080	3.71	.879		
성격	조용함 ^a	676	3.55	.967	$F=1.003$ $p=.367$	
	보통 ^b	2055	3.58	.865		
	활발함 ^c	2650	3.60	.89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7)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과도한 업무시간

‘창업을 하면 많은 시간 일해야 한다’는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III-63>). 구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39,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3.29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청소년이 창업 시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표 III - 63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과다한 업무시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8	3.34	.862		
성별	남자	2468	3.39	.895	t=3.990 p=.000	
	여자	2950	3.29	.832		
학교급	중학교	2494	3.35	.875	t=.822 p=.411	
	고등학교	2924	3.33	.852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1	3.34	.882	F=.022 p=.978	
	중소도시	2577	3.34	.850		
	읍면지역	610	3.33	.843		
경제수준	상	1966	3.35	.886	F=1.138 p=.321	
	중	2346	3.32	.845		
	하	1081	3.36	.848		
성격	조용함	675	3.35	.902	F=.164 p=.849	
	보통	2056	3.33	.826		
	활발함	2652	3.34	.87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8)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많은 규제

표 III - 64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많은 규제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8	3.42	.827		
성별	남자	2467	3.44	.859	t=1.699 p=.089	
	여자	2951	3.40	.800		
학교급	중학교	2495	3.40	.837	t=-1.248 p=.212	
	고등학교	2923	3.43	.819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0	3.42	.830	F=.071 p=.932	
	중소도시	2577	3.41	.826		
	읍면지역	611	3.42	.822		
경제수준	상	1966	3.43	.848	F=6.684 p=.001	b>a
	중 ^a	2346	3.38	.806		
	하 ^b	1081	3.49	.827		
성격	조용함 ^a	676	3.39	.862	F=1.423 p=.241	
	보통 ^b	2056	3.41	.781		
	활발함 ^c	2651	3.44	.85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창업을 하려면 많은 규제가 따른다’의 항목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하위그룹(M=3.49), 상위그룹(M=3.43), 중간그룹(M=3.38)인 청소년 순으로 창업에는 많은 규제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하위그룹의 청소년은 중간그룹에 비해 이러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1$).

(9)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불확실한 미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항목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6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3.46)보다 고등학생(M=3.70)이 창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분석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하위그룹(M=3.72), 상위그룹(M=3.58), 중간그룹(M=3.54)의 순으로 창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하위그룹의 청소년이 중상위그룹의 청소년에 비해 이와 같은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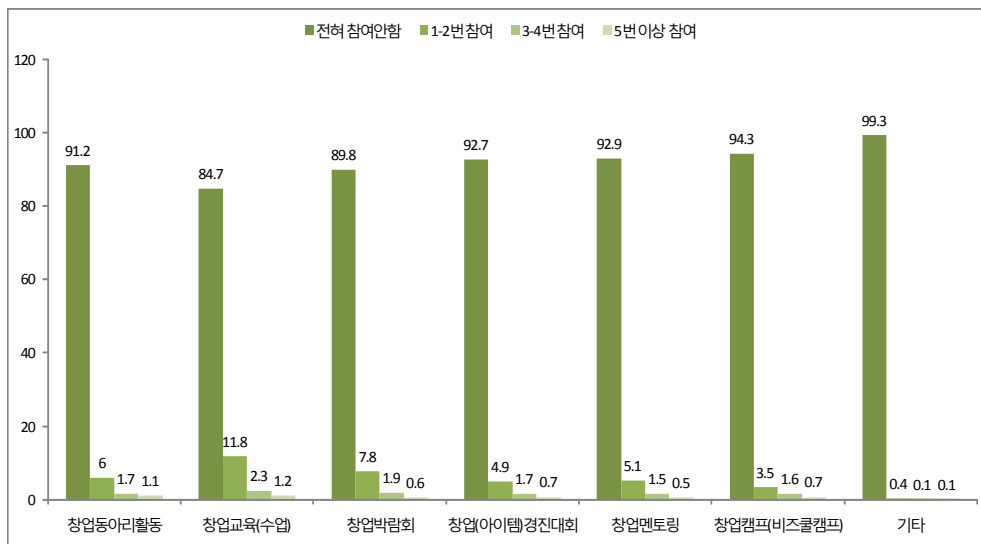
표 III - 65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불확실한 미래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9	3.59	1.000		
성별	남자	2469	3.60	1.026	t=1.050 p=.294	
	여자	2950	3.58	.979		
학교급	중학교	2495	3.46	1.027	t=-9.113 p=.000	
	고등학교	2924	3.70	.963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1	3.62	1.009	F=2.421 p=.089	
	중소도시	2577	3.56	.990		
	읍면지역	611	3.58	1.009		
경제수준	상 ^a	1967	3.58	1.025	F=11.938 p=.000	c)a,b
	중 ^b	2346	3.54	.976		
	하 ^c	1081	3.72	.992		
성격	조용함 ^a	676	3.67	.998	F=2.372 p=.093	
	보통 ^b	2057	3.59	.969		
	활발함 ^c	2651	3.57	1.02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10)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청소년들에게 창업관련 활동의 참여경험을 ‘전혀 참여안함’ ~ ‘5번 이상 참여’의 4점 척도로 질문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I-2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교육(수업)’의 참여율이 1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1~2번 참여’한 청소년이 1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창업박람회’ (10.3%), ‘창업동아리활동’ (8.8%), ‘창업(아이템)경진대회’ (7.3%), ‘창업멘토링’ (7.1%), ‘창업캠프(비즈쿨캠프)’ (5.8%)의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창업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10% 안팎에 머물렀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1~2번 참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창업관련 활동의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6】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1)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동아리활동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활동별 참여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첫 번째로, ‘창업동아리활동’의 참여경험을 살펴보았다(<표 III-66>). 전체 응답자의 91.2%는 창업동아리활동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번 참여’가 6.0%로 가장 많았고, ‘3~4번 참여’가 1.7%, ‘5번 이상 참여’가 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순위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여자(93.1%) 청소년이 남자(89.1%)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된 것에 비해, 참여빈도는 여자보다 남자청소년의 응답률이 0.8~1.9%의 차이로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90.3%)과 고등학생(94.2%)은 초등학교(85.7%)에 비해 창업동아리활동의 참여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0.5~5.8%의 더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90.1~93.6%로 유사하였다. 하지만 ‘1~2번 참여’한 경험은 상위(7.0%) 및 중간그룹(6.0%) 청소년이 하위그룹(3.7%)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5번 이상 참여’한 경험은 상위그룹(1.4%)의 응답률이 중간(0.8%) 및 하위그룹(0.9%)에 비해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p<.01$).

표 III - 66 창업 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동아리활동

							(단위: %)
구분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전체	통계치
전체		91.2	6.0	1.7	1.1	100.0	
성별	남자	89.1	7.0	2.4	1.5	100.0	$\chi^2=39.820$ $p=.000$
	여자	93.1	5.1	1.1	.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5.7	9.8	2.6	2.0	100.0	$\chi^2=82.938$ $p=.000$
	중학교	90.3	6.6	2.1	1.0	100.0	
	고등학교	94.2	4.0	1.0	.8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91.4	6.2	1.5	.8	100.0	$\chi^2=7.973$ $p=.240$
	중소도시	91.2	5.9	1.6	1.3	100.0	
	읍면지역	90.4	5.6	2.7	1.3	100.0	
경제수준	상	90.1	7.0	1.5	1.4	100.0	$\chi^2=21.567$ $p=.001$
	중	91.3	6.0	1.9	.8	100.0	
	하	93.6	3.7	1.7	.9	100.0	
성격	조용함	92.2	5.6	1.6	.7	100.0	$\chi^2=7.654$ $p=.256$
	보통	91.6	6.0	1.7	.7	100.0	
	활발함	91.0	5.9	1.6	1.4	100.0	

(2)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교육(수업)

‘창업교육(수업)’은 <표 III-67>과 같이, 전체 청소년 중 전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이 84.7%로 가장 많았고, 11.8%는 ‘1~2번 참여’ 하였으며, ‘3~4번 참여’ 한 청소년은 2.3%, ‘5번 이상 참여’ 한 청소년은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7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교육(수업)

(단위: %)

구분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전체	통계치
전체		84.7	11.8	2.3	1.2	100.0	
성별	남자	83.1	12.2	3.2	1.6	100.0	$\chi^2=27.878$ $p=.000$
	여자	86.1	11.5	1.6	.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1.2	14.5	2.7	1.6	100.0	$\chi^2=18.261$ $p=.006$
	중학교	85.6	11.3	2.3	.8	100.0	
	고등학교	85.3	11.2	2.1	1.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84.8	11.8	2.2	1.2	100.0	$\chi^2=5.121$ $p=.528$
	중소도시	84.0	12.4	2.4	1.2	100.0	
	읍면지역	87.2	9.6	2.2	1.0	100.0	
경제수준	상	82.4	13.8	2.4	1.4	100.0	$\chi^2=24.449$ $p=.000$
	중	86.2	10.5	2.5	.8	100.0	
	하	86.1	10.7	1.6	1.6	100.0	
성격	조용함	84.8	11.8	1.7	1.7	100.0	$\chi^2=4.564$ $p=.601$
	보통	84.9	11.5	2.5	1.0	100.0	
	활발함	84.6	12.1	2.1	1.2	100.0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수업)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참여율은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남자(83.1%)보다 여자(86.1%) 청소년이 ‘전혀 참여안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3% 더 높았으며, 참여빈도에 대한 응답률은 여자보다 남자청소년이 0.7~1.6%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경험의 순위는 동일하였으나 전혀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 중학생(85.6%)과 고등학생(85.3%)의 응답비율이 초등학생(81.2%)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으며, 특히 ‘1~2번 참여’한 경험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생(14.5%)이 중학생(11.3%)과 고등학생(11.2%)보다 3% 정도 더 높게

보고되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중간(86.2%) 및 하위그룹(86.1%) 청소년이 상위그룹(82.4%) 청소년보다 창업교육(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편, 참여경험이 있는 상위 및 중간그룹의 청소년들은 ‘1~2번 참여’ (상 13.8%, 중 10.5%), ‘3~4번 참여’ (상 2.4%, 중 2.5%), ‘5번 이상 참여’ (상 1.4%, 중 0.8%)의 순으로, 하위그룹은 ‘1~2번 참여’ (10.7%), ‘3~4번 참여’ 및 ‘5번 이상 참여’ (1.6%)의 순으로 응답하여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p<.001$).

(3)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박람회

‘창업박람회’의 참여경험은 <표 III-68>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전혀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번 참여’ (7.8%), ‘3~4번 참여’ (1.9%), ‘5번 이상 참여’ (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 - 68 창업 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박람회

(단위: %)

구분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전체	통계치
전체	89.8	7.8	1.9	.6	100.0	
성별	남자	88.0	8.3	2.7	1.0	100.0
	여자	91.4	7.3	1.1	.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6.3	9.9	2.9	.9	100.0
	중학교	89.8	7.0	2.4	.8	100.0
	고등학교	91.2	7.5	1.1	.2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88.5	9.0	2.0	.4	100.0
	중소도시	90.5	7.0	1.8	.7	100.0
	읍면지역	91.4	6.2	1.8	.6	100.0
경제수준	상	87.2	9.5	2.4	.9	100.0
	중	91.1	6.9	1.6	.4	100.0
	하	92.6	6.1	1.3	.0	100.0
성격	조용함	91.4	6.3	1.2	1.2	100.0
	보통	90.2	7.7	1.8	.4	100.0
	활발함	89.3	8.2	2.0	.5	100.0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남녀 청소년의 응답 순위는 동일하였으나,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91.4%) 청소년이 남자(88.0%)보다 더 높았고, 참여경험의 정도는 여자보다 남자청소년의 응답률이 1% 내외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도 응답 순위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전혀 참여 안함’으로 응답한 중학생(89.8%)과 고등학생(91.2%)의 비율이 초등학생(86.3%)보다 각각 3.5%, 4.9%씩 더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의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2번 참여’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9.9%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2~3% 정도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순위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그룹(87.2%)의 청소년보다 중간(91.1%) 및 하위그룹(92.6%)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2번 참여’한 경험은 상위그룹(9.5%)이 중간(6.9%) 및 하위그룹(6.1%)에 비해 3% 가량 더 높았으며, ‘5번 이상 참여’한 경험의 응답률은 약 2배 이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1$). 성격별 차이를 보면, 성격에 관계없이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은 89.3~91.4%로 유사하게 분석되었으나, 참여경험의 횟수에서는 조용한 성격의 청소년과 보통·활발한 성격의 청소년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조용한 청소년은 ‘1~2번 참여’ (6.3%), ‘3~4번 참여’ 및 ‘5번 이상 참여’ (1.2%)의 순으로, 보통 및 활발한 청소년은 ‘1~2번 참여’ (보통 7.7%, 활발한 8.2%), ‘3~4번 참여’ (보통 1.8%, 활발한 2.0%), ‘5번 이상 참여’ (보통 0.4%, 활발한 0.5%)의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4)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92.7%는 참여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번 참여’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번 참여’ (1.7%), ‘5번 이상 참여’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참여경험의 순위가 전체 순위와 동일하였지만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여자(94.6%) 청소년의 응답률이 남자(90.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경험의 정도는 대체로 남자청소년의 응답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2번 참여’한 경험은 2% 이상 더 높게 보고되었다($p<.001$).

표 III - 69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단위: %)

구분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전체	통계치
전체		92.7	4.9	1.7	.7	100.0	
성별	남자	90.5	6.1	2.4	1.0	100.0	$\chi^2=42.694$ $p=.000$
	여자	94.6	3.9	1.2	.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8.6	7.9	2.6	.9	100.0	$\chi^2=47.801$ $p=.000$
	중학교	92.6	4.5	2.1	.8	100.0	
	고등학교	94.4	4.1	1.1	.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92.5	5.3	1.7	.5	100.0	$\chi^2=4.225$ $p=.646$
	중소도시	92.7	4.8	1.7	.8	100.0	
	읍면지역	93.1	4.1	2.0	.8	100.0	
경제수준	상	91.0	6.0	2.0	1.0	100.0	$\chi^2=23.615$ $p=.001$
	중	93.8	4.1	1.5	.5	100.0	
	하	93.7	4.6	1.6	.2	100.0	
성격	조용함	94.9	3.9	.9	.3	100.0	$\chi^2=15.700$ $p=.015$
	보통	93.5	4.3	1.8	.5	100.0	
	활발함	91.7	5.6	1.8	.8	100.0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중학생(92.6%)과 고등학생(94.4%)이 초등학생(88.6%)에 비해 더 높았으나, 참여빈도에서는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 그 중 ‘1~2번 참여’ 한 경험은 초등학생(7.9%)이 중학생(4.5%) 및 고등학생(4.1%)보다 3% 이상의 높았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91.0~93.8%로 유사한 반면, 참여정도의 응답률은 상위그룹 청소년이 0.4~1.9%의 범위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2번 참여’ (6.0%)와 ‘5번 이상 참여’ (1.0%)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성격별로 보면, ‘전혀 참여안함’ 으로 응답한 비율은 조용(94.9%)하거나 보통(93.5%)인 청소년이 활발한(91.7%)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보통 및 활발한 청소년의 응답률이 조용한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았으며, ‘3~4번 참여’ 한 경험의 경우 2배 더 높게 조사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p<.05$).

(5)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멘토링

‘창업멘토링’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2번 참여’ (5.1%), ‘3~4번 참여’ (1.5%), ‘5번 이상 참여’ (0.5%)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표 III - 70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멘토링

(단위: %)

구분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전체	통계치
전체		92.9	5.1	1.5	.5	100.0	
성별	남자	91.0	6.0	2.1	.9	100.0	$\chi^2=41.750$ $p=.000$
	여자	94.6	4.2	1.0	.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8.1	8.5	2.7	.7	100.0	$\chi^2=71.711$ $p=.000$
	중학교	92.4	5.3	1.8	.6	100.0	
	고등학교	95.3	3.5	.8	.4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92.8	5.3	1.4	.5	100.0	$\chi^2=1.427$ $p=.964$
	중소도시	92.9	5.0	1.6	.5	100.0	
	읍면지역	93.2	4.6	1.7	.4	100.0	
경제수준	상	90.8	6.7	1.7	.8	100.0	$\chi^2=35.814$ $p=.000$
	중	94.4	3.8	1.5	.4	100.0	
	하	94.3	4.4	1.0	.3	100.0	
성격	조용함	93.9	4.7	1.2	.3	100.0	$\chi^2=2.436$ $p=.876$
	보통	93.1	4.9	1.5	.5	100.0	
	활발함	92.7	5.3	1.5	.6	100.0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멘토링의 참여경험을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별 순위가 대체로 유사하게 분석되었으나 성별 및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표 III-70>). 성별에 따라 보면,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여자(94.6%) 청소년이 남자(91.0%) 청소년보다 3.6%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참여빈도는 남자청소년의 응답비율이 여자청소년보다 0.7~1.8%의 차이로 약간씩 높게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92.4%)과 고등학생(95.3%)은 초등학생(88.1%)보다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4.3%, 7.2% 더 높게 조사된 반면, 참여경험의 횟수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1~2번 참여’ 한 비율은 초등학생(8.5%)이 중학생(5.3%)과 고등학생(3.5%)보다 비교적 높았고, 고등학생의 ‘3~4번 참여’ (0.8%)한 경험은 다른 교급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 결과에서는 창업멘토링에 ‘전혀 참여안함’으로 응답한 중간(94.4%) 및 하위그룹(94.3%) 청소년의 비율이 상위그룹(90.8%)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참여한 빈도는 상위그룹의 응답률이 0.2~2.9%의 범위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1$).

(6)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캠프(비즈쿨캠프)

다음의 <표 III-71>과 같이 ‘창업캠프(비즈쿨캠프)’의 참여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3%)이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번 참여’ (3.5%), ‘3~4번 참여’ (1.6%), ‘5번 이상 참여’ (0.7%)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I - 71 창업관련 활동 참여경험: 창업캠프(비즈쿨캠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전체	통계치
전체		94.3	3.5	1.6	.7	100.0	
성별	남자	92.3	4.4	2.2	1.1	100.0	$\chi^2=45.957$ $p=.000$
	여자	96.0	2.7	1.0	.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9.6	5.8	2.9	1.7	100.0	$\chi^2=93.819$ $p=.000$
	중학교	93.7	3.6	2.1	.6	100.0	
	고등학교	96.7	2.4	.5	.3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95.0	3.1	1.4	.6	100.0	$\chi^2=8.766$ $p=.187$
	중소도시	93.8	3.9	1.5	.7	100.0	
	읍면지역	93.5	3.1	2.4	1.0	100.0	
경제수준	상	93.2	4.0	1.8	1.0	100.0	$\chi^2=16.374$ $p=.012$
	중	94.7	3.4	1.5	.4	100.0	
	하	95.9	2.5	1.0	.5	100.0	
성격	조용함	96.2	2.2	1.0	.5	100.0	$\chi^2=6.660$ $p=.353$
	보통	94.0	3.7	1.7	.6	100.0	
	활발함	94.2	3.6	1.4	.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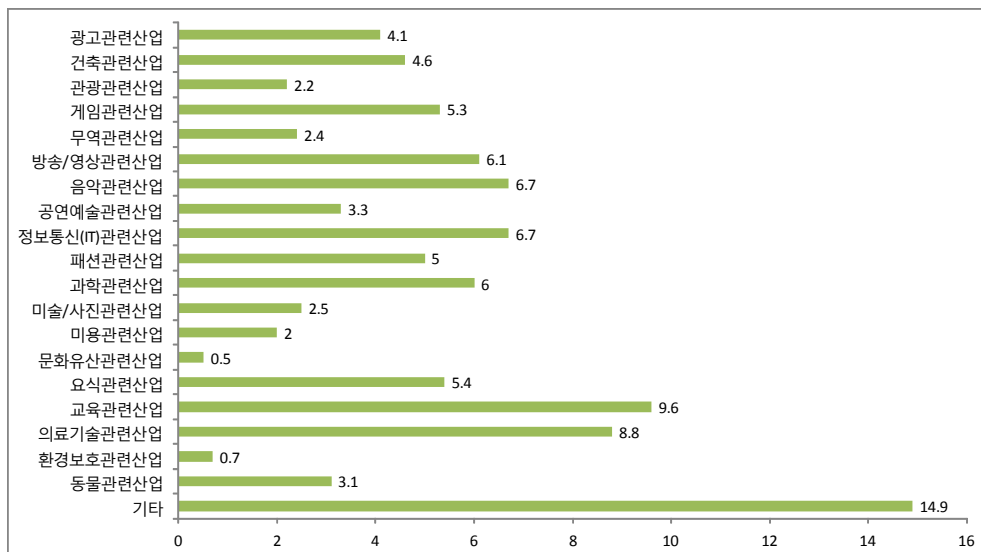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응답 순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전혀

참여안함’으로 응답한 여자(96.0%)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92.3%)보다 약 4% 더 높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참여정도에 대한 응답률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0.8~1.7%의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별로 보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89.6%)보다 중학생(93.7%) 및 고등학생(96.7%)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창업캠프(비즈쿨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2~95.9%로 유사했으나, 참여빈도는 상위그룹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특히 ‘1~2번 참여’ (4.0%)한 경우와 ‘5번 이상 참여’ (1.0%)한 경험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p<.05$).

11) 취업 및 창업하고 싶은 분야

(1) 취업하고 싶은 분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산업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20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27】 취업하고 싶은 분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기타’를 약 15%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기타의 세부 사항으로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금융관련’, ‘법조관련’, ‘스포츠관련’, ‘사회복지관련’, ‘군인’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육관련산업’ (9.6%), ‘의료기술관련산업’ (8.8%), ‘음악관련산업’과 ‘정보통신(IT)관련산업’ (6.7%), ‘방송 및 영상관련산업’ (6.1%), ‘과학관련산업’ (6.0%), ‘요식관련산업’ (5.4%), ‘게임관련산업’ (5.3%), ‘패션관련산업’ (5.0%)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한편, ‘문화유산관련산업’ (0.5%)과 ‘환경보호관련산업’ (0.7%)을 선호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성별과 학교급, 경제수준,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2>).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기타’ (18.1%), ‘정보통신(IT)관련산업’ (11.2%), ‘게임관련산업’ (10.4%)의 순으로, 여자청소년은 ‘교육관련산업’ (13.0%), ‘기타’ (12.2%), ‘의료기술관련산업’ (11.2%)의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응답하였다($p<.001$).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기타’ (중 14.1%, 고 15.5%)를 가장 선호하는 취업 분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중학생은 ‘교육관련산업’ (9.7%), ‘음악관련산업’ (9.1%)을 그 다음 순위로 제시한 반면, 고등학생은 ‘교육관련산업’과 ‘의료기술관련산업’ (9.5%)을 공통 2순위로, ‘정보통신(IT)관련산업’ (8.0%)을 4순위로 응답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기타’ (상 13.5%, 중 15.8%, 하 15.0%)를 1순위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인 청소년은 ‘의료기술관련산업’ (10.5%), ‘교육관련산업’ (10.2%)의 순으로, 중간그룹인 청소년은 ‘교육관련산업’ (9.8%), ‘의료기술관련산업’ (8.4%)의 순으로, 하위그룹인 청소년은 ‘음악관련산업’ (9.9%), ‘교육관련산업’ (8.1%)의 순으로 각각 2, 3위를 답했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조용한 성격의 청소년은 ‘기타’ (12.1%), ‘정보통신(IT)관련산업’ (10.1%), ‘과학관련산업’ (9.5%)의 순으로, 보통 및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은 ‘기타’ (보통 15.9%, 활발한 14.5%), ‘교육관련산업’ (보통 9.6%, 활발한 10.1%), ‘의료기술관련산업’ (보통 8.8%, 활발한 9.3%)의 순으로 가장 취직하고 싶은 분야라 응답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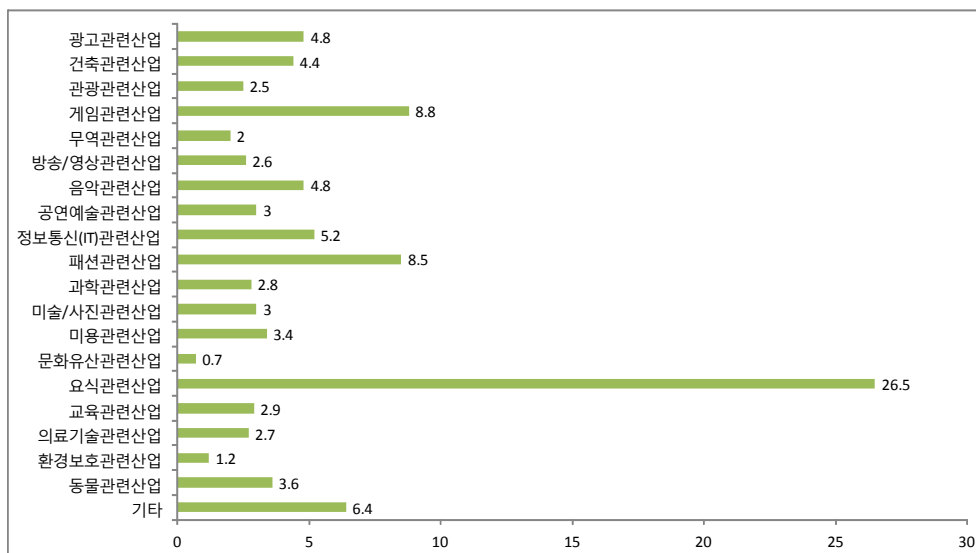
표 Ⅲ - 72 취업 하고 싶은 분야

		(단위: %)																전 체	통계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전체	전체	41	46	22	53	24	61	67	33	67	50	60	25	20	5	54	96	88	7
	남자	43	73	16	104	29	45	47	15	112	26	92	16	3	7	36	55	60	8
성별	여자	38	23	27	11	21	75	84	48	30	69	33	32	35	4	69	130	112	6
	중학교	31	41	14	72	15	62	91	31	52	56	57	25	19	5	65	97	81	4
학교급	고등학교	48	50	28	38	32	61	47	35	80	45	62	25	22	5	45	95	95	10
	특설시/광역시	46	45	20	50	33	68	66	34	59	52	59	24	19	6	56	94	85	6
지역	중소도시	37	46	23	56	20	59	67	35	73	46	53	28	21	5	51	100	90	7
	읍면지역	34	49	23	56	11	46	71	21	74	57	90	18	21	5	61	85	95	10
경제수준	상	46	46	25	58	25	65	52	30	76	49	71	20	17	6	38	102	105	6
	중	39	44	18	48	23	56	64	33	63	52	58	26	22	6	64	98	84	9
	하	33	52	24	53	27	66	99	39	63	48	44	33	23	4	61	81	68	6
	조용함	46	36	21	89	18	49	44	36	101	34	95	40	12	6	47	78	78	9
성격	보통	38	45	22	58	30	55	63	23	69	46	66	28	20	5	54	96	88	8
	활발함	40	51	21	41	22	70	76	40	58	57	46	19	22	6	56	101	93	6

① 광고관련산업, ② 건축관련산업, ③ 관광관련산업, ④ 게임관련산업, ⑤ 게임관련산업, ⑥ 방송 및 영상관련산업, ⑦ 음악관련산업, ⑧ 공연예술관련산업, ⑨ 정보통신(IT)관련산업, ⑩ 패션관련산업, ⑪ 과학관련산업, ⑫ 미술 · 사진관련산업, ⑬ 미용관련산업, ⑭ 문화유산관련산업, ⑮ 요식관련산업(카페, 음식점 등), ⑯ 교육관련산업, ⑰ 의료기술관련산업, ⑱ 환경보호관련산업, ⑲ 동물관련산업, ⑳ 기타

(2) 창업하고 싶은 분야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 가장 창업하고 싶은 산업분야를 질문한 결과, 보기로 제시한 20가지의 산업분야 중 ‘요식관련산업’이 26.5%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그 다음으로 ‘게임관련산업’ (8.8%), ‘패션관련산업’ (8.5%), ‘기타’ (6.4%), ‘정보통신(IT)관련산업’ (5.2%), ‘광고관련산업’ (4.8%), ‘음악관련산업’과 ‘건축관련산업’ (4.4%) 등의 순으로 창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 세부 응답에서는 ‘스포츠관련’, ‘금융관련’, ‘사회복지관련’, ‘농어촌관련’ 산업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화유산관련산업’ (0.7%) 및 ‘환경보호관련산업’ (1.2%)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III-28】 창업하고 싶은 분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창업하고 싶은 분야를 비교한 결과, <표 III-7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및 학교급, 경제수준, 성격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요식관련산업’ (20.0%), ‘게임관련산업’ (16.2%), ‘기타’ (9.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요식관련산업’ (31.9%), ‘패션관련산업’ (11.9%), ‘음악관련산업’ 및 ‘미용관련산업’ (5.7%)의 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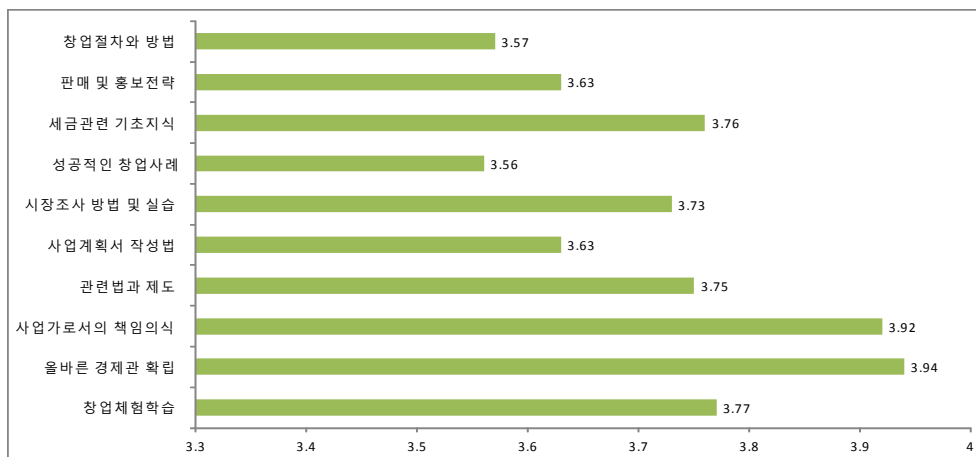
표 Ⅲ - 73 창업 하고 싶은 분야

(단 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전체	통계치
성별	전체	48	44	25	88	20	26	48	30	52	85	28	30	34	7	265	29	27	12	36	64	100
	남자	50	62	30	162	28	19	38	24	85	46	45	17	7	9	200	17	28	9	33	91	100
	여자	47	29	21	25	15	32	57	36	24	119	14	40	57	6	319	39	26	15	39	42	100
학교급	중학교	41	53	21	93	17	29	63	24	50	84	29	30	41	6	221	25	36	10	42	83	100
	고등학교	54	38	29	83	23	23	36	36	53	86	27	29	28	9	302	31	19	14	31	48	100
지역	특별시/광역시	54	48	25	90	23	29	48	32	49	83	27	32	30	9	250	28	32	10	30	71	100
	중소도시	45	38	26	85	19	25	51	29	55	90	28	29	36	7	272	30	24	12	39	60	100
	읍면지역	43	58	21	87	16	20	38	33	46	74	31	25	43	2	288	25	21	21	49	59	100
경제수준	상	57	44	31	88	27	30	50	34	59	89	33	26	30	8	216	35	35	10	38	59	100
	중	43	47	26	86	16	26	47	24	48	82	25	31	38	8	289	24	23	13	35	71	100
	하	43	42	11	88	19	19	48	38	47	87	25	36	35	6	302	29	21	16	36	53	100
성격	조용함	35	50	31	124	22	21	27	30	72	53	52	49	13	10	233	34	12	18	44	69	100
	보통	46	44	24	92	16	23	46	27	58	76	26	35	39	10	272	29	29	13	32	62	100
	활발함	53	44	25	75	24	30	55	33	42	101	22	21	36	5	269	28	29	10	38	60	100

① 광고관련산업, ② 건축관련산업, ③ 관광관련산업, ④ 게임관련산업, ⑤ 미용관련산업, ⑥ 방송 및 영상관련산업, ⑦ 음악관련산업, ⑧ 공연예술관련산업, ⑨ 정보통신(IT)관련산업, ⑩ 패션관련산업, ⑪ 과학관련산업, ⑫ 미술·사진관련산업, ⑬ 미용관련산업, ⑭ 미용관련산업, ⑮ 요리관련산업(카페, 음식점 등), ⑯ 교육관련산업, ⑰ 의료기술관련산업, ⑱ 환경보호관련산업, ⑲ 동물관련산업, ⑳ 기타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경우, ‘요식관련산업’ (22.1%), ‘게임관련산업’ (9.3%), ‘패션관련산업’ (8.4%)의 순으로 대답했으나, 고등학생은 ‘요식관련산업’ (30.2%), ‘패션관련산업’ (8.6%), ‘게임관련산업’ (8.3%)의 순으로 창업하고 싶은 분야를 답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창업을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요식관련산업’ (상 21.6%, 중 28.9%, 하 30.2%)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상위그룹 청소년은 ‘패션관련산업’ (8.9%), ‘게임관련산업’ (8.8%)의 순으로, 중·하위그룹 청소년은 ‘게임관련산업’ (중 8.6%, 하 8.8%), ‘패션관련산업’ (중 8.2%, 하 8.7%)의 순으로 각각 2, 3위를 응답했다($p<.001$). 성격에 따라서는 조용한 청소년의 경우, ‘요식관련산업’ (23.3%), ‘게임관련산업’ (12.4%), ‘정보통신(IT)관련산업’ (7.2%)의 순으로, 보통 성격의 청소년은 ‘요식관련산업’ (27.2%), ‘게임관련산업’ (9.2%), ‘패션관련산업’ (7.6%)의 순으로, 활발한 청소년은 ‘요식관련산업’ (26.9%), ‘패션관련산업’ (10.1%), ‘게임관련산업’ (7.5%)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p<.001$).

12)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그림 III-29】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창업교육의 내용을 다음의 10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의 내용 가운데 ‘올바른

경제관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이 평균 3.9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창업체험학습' (M=3.77), '세금관련 기초지식' (M=3.76), '관련법과 제도' (M=3.75),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M=3.73)의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 외의 '판매 및 홍보전략' (M=3.63), '사업계획서 작성법' (M=3.63), '창업절차와 방법' (M=3.57), '성공적인 창업사례' (M=3.56)와 같은 항목에서도 보통 이상의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1)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창업절차와 방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74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창업절차와 방법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8	3.57	.952		
성별	남자	2467	3.49	1.028	t=-5.411 p=.000	
	여자	2951	3.63	.879		
학교급	중학교	2494	3.44	.975	t=-8.731 p=.000	
	고등학교	2924	3.67	.920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2	3.58	.959	F=1.565 p=.209	
	중소도시	2575	3.57	.929		
	읍면지역	611	3.50	1.022		
경제수준	상 ^a	1968	3.54	.982	F=5.535 p=.004	c)a,b
	중 ^b	2345	3.56	.914		
	하 ^c	1081	3.65	.965		
성격	조용함	676	3.55	1.004	F=1.559 p=.210	
	보통	2056	3.60	.908		
	활발함	2652	3.55	.972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3.63) 청소년이 남자(M=3.49) 청소년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M=3.67)은 중학생(M=3.44)보다 창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하위그룹이 평균 3.65, 중간그룹이 평균 3.56, 상위그룹이 평균 3.54로, 하위그룹 청소년이 중간 및 상위그룹의 청소년보다 창업절차와 방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p<.01$).

(2)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판매 및 홍보전략

일반적 특성에 따라 ‘판매 및 홍보전략’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54,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3.71로, 여자가 남자청소년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고등학생($M=3.71$)이 중학생($M=3.55$)보다 판매 및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III - 75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판매 및 홍보전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5	3.63	.936		
성별	남자	2466	3.54	1.005	$t=-6.638$ $p=.000$	
	여자	2949	3.71	.866		
학교급	중학교	2493	3.55	.963	$t=-6.222$ $p=.000$	
	고등학교	2922	3.71	.905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0	3.64	.953	$F=.461$ $p=.630$	
	중소도시	2574	3.64	.909		
	읍면지역	611	3.60	.981		
경제수준	상	1967	3.62	.961	$F=2.941$ $p=.053$	
	중	2344	3.62	.913		
	하	1081	3.70	.933		
성격	조용함	674	3.59	.983	$F=.767$ $p=.465$	
	보통	2056	3.64	.892		
	활발함	2651	3.64	.956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세금관련 기초지식

‘세금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III-7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 및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자(M=3.67) 청소년에 비해 여자(M=3.84) 청소년이 세금관련 기초지식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M=3.88)이 중학생(M=3.62)보다 창업교육으로 세금관련 기초지식이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보면, 하위그룹(M=3.89), 중간그룹(M=3.74), 상위그룹(M=3.72)의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증의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이 하위그룹인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중간 및 상위그룹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001$).

표 III - 76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세금관련 기초지식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3	3.76	.925		
성별	남자	2464	3.67	.988	$t=-6.881$ $p=.000$	
	여자	2949	3.84	.862		
학교급	중학교	2490	3.62	.959	$t=-10.493$ $p=.000$	
	고등학교	2923	3.88	.878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1	3.77	.944	$F=.213$ $p=.808$	
	중소도시	2571	3.76	.895		
	읍면지역	611	3.75	.984		
경제수준	상 ^a	1966	3.72	.944	$F=12.227$ $p=.000$	c)a,b
	중 ^b	2343	3.74	.899		
	하 ^c	1081	3.89	.933		
성격	조용함	675	3.81	.975	$F=2.987$ $p=.051$	
	보통	2055	3.79	.876		
	활발함	2649	3.73	.947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성공적인 창업사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사례’의 필요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77>과 같으며, 성별과 성격 특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47,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3.64로, 여자청소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창업교육에서 성공적인 창업사례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활발한 성격의 인식수준은 평균 3.59, 보통 성격은 평균 3.55, 조용한 성격은 평균 3.47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활발한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조용한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표 Ⅲ - 77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성공적인 창업사례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2	3.56	.952		
성별	남자	2464	3.47	1.020	$t=-6.424$ $p=.000$	
	여자	2948	3.64	.884		
학교급	중학교	2491	3.54	.980	$t=-1.317$ $p=.188$	
	고등학교	2921	3.58	.927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9	3.56	.960	$F=.980$ $p=.375$	
	중소도시	2572	3.57	.936		
	읍면지역	611	3.51	.991		
경제수준	상	1965	3.59	.982	$F=1.545$ $p=.213$	
	중	2343	3.55	.921		
	하	1080	3.53	.959		
성격	조용함 ^a	674	3.47	.981	$F=4.770$ $p=.009$	b>a
	보통	2055	3.55	.926		
	활발함 ^b	2649	3.59	.963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5)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일반적 특성별로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여자($M=3.82$)가 남자($M=3.62$) 청소년보다($p<.001$), 고등학생($M=3.82$)이 중학생($M=3.62$)보다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의 필요성 대한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그룹($M=3.81$), 상위그룹($M=3.71$), 중간그룹($M=3.70$)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고, 특히 하위 그룹 청소년의 경우 다른 그룹의 청소년보다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1$).

표 III - 78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2	3.73	.956		
성별	남자	2463	3.62	1.020	t=-7.647 p=.000	
	여자	2949	3.82	.888		
학교급	중학교	2490	3.62	.984	t=-7.885 p=.000	
	고등학교	2922	3.82	.920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8	3.73	.969	F=1.243 p=.288	
	중소도시	2573	3.74	.930		
	읍면지역	611	3.67	1.009		
경제수준	상 ^a	1965	3.71	.990	F=5.573 p=.004	c)a,b
	중 ^b	2343	3.70	.921		
	하 ^c	1081	3.81	.959		
성격	조용함	675	3.70	.979	F=.689 p=.502	
	보통	2054	3.74	.919		
	활발함	2649	3.72	.978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6)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업계획서 작성법

표 III - 79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업계획서 작성법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6	3.63	.952		
성별	남자	2466	3.56	1.008	t=-4.786 p=.000	
	여자	2950	3.69	.898		
학교급	중학교	2494	3.52	.981	t=-7.705 p=.000	
	고등학교	2922	3.72	.916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0	3.65	.981	F=2.260 p=.104	
	중소도시	2575	3.64	.915		
	읍면지역	611	3.55	.991		
경제수준	상 ^a	1968	3.60	.977	F=3.463 p=.031	b)a
	중	2344	3.63	.909		
	하 ^b	1080	3.70	.986		
성격	조용함	675	3.66	.999	F=.334 p=.716	
	보통	2056	3.63	.901		
	활발함	2651	3.63	.977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M=3.69)가 남자(M=3.56) 청소년보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으며($p<.001$), 고등학생(M=3.72)이 중학생(M=3.52)보다 창업교육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하위그룹(M=3.70), 중간그룹(M=3.63), 상위그룹(M=3.60)의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사후검증의 결과, 하위그룹과 상위그룹 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05$).

(7)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관련법과 제도

표 III - 80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관련법과 제도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3	3.75	.959		
성별	남자	2465	3.68	1.022	$t=-4.732$ $p=.000$	
	여자	2948	3.80	.899		
학교급	중학교	2492	3.64	.987	$t=-7.823$ $p=.000$	
	고등학교	2921	3.84	.925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9	3.76	.986	$F=1.302$ $p=.272$	
	중소도시	2573	3.75	.918		
	읍면지역	611	3.69	1.026		
경제수준	상	1966	3.74	.983	$F=4.573$ $p=.010$	b>a
	중 ^a	2342	3.72	.928		
	하 ^b	1081	3.83	.975		
성격	조용함	674	3.79	1.017	$F=.953$ $p=.386$	
	보통	2056	3.75	.916		
	활발함	2649	3.73	.974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M=3.80) 청소년이 남자(M=3.68) 청소년보다 창업교육에서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p<.001$).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M=3.84$)이 중학생($M=3.64$)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하위그룹($M=3.83$), 상위그룹($M=3.74$), 중간그룹($M=3.72$)의 순으로 관련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했으며, 사후검증에서는 하위그룹과 중간그룹 청소년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05$).

(8)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의 필요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III-81). 구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3.78,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4.03으로,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M=4.02$)이 중학생($M=3.80$)에 비해 창업교육에서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p<.001$).

표 III - 81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5	3.92	.975		
성별	남자	2465	3.78	1.042	$t=-9.333$ $p=.000$	
	여자	2950	4.03	.900		
학교급	중학교	2493	3.80	1.013	$t=-8.268$ $p=.000$	
	고등학교	2922	4.02	.930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0	3.91	.986	$F=.908$ $p=.404$	
	중소도시	2574	3.93	.946		
	읍면지역	611	3.87	1.051		
경제수준	상	1967	3.92	.997	$F=2.311$ $p=.099$	
	중	2344	3.90	.939		
	하	1080	3.97	.993		
성격	조용함	675	3.92	1.032	$F=.255$ $p=.775$	
	보통	2055	3.93	.931		
	활발함	2651	3.91	.990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9)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올바른 경제관 확립

창업교육에서 ‘올바른 경제관 확립’이 필요한 정도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Ⅲ-82>와 같으며, 성별 및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자(M=4.04)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남자(M=3.81)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M=4.05)이 중학생(M=3.80)보다 올바른 경제관 확립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하위그룹(M=4.03), 상위그룹(M=3.94), 중간그룹(M=3.90)의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경제수준이 하위그룹인 청소년이 다른 그룹의 청소년들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1$).

표 Ⅲ-82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올바른 경제관 확립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14	3.94	.949		
성별	남자	2465	3.81	1.010	$t=-8.740$ $p=.000$	
	여자	2949	4.04	.882		
학교급	중학교	2491	3.80	.993	$t=-9.651$ $p=.000$	
	고등학교	2923	4.05	.894		
지역	특별시/광역시	2230	3.95	.964	$F=2.232$ $p=.107$	
	중소도시	2573	3.94	.916		
	읍면지역	611	3.86	1.026		
경제수준	상 ^a	1966	3.94	.976	$F=6.958$ $p=.001$	c)a,b
	중 ^b	2344	3.90	.929		
	하 ^c	1081	4.03	.929		
성격	조용함	675	3.94	.993	$F=.195$ $p=.823$	
	보통	2056	3.95	.901		
	활발함	2649	3.93	.970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10)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창업체험학습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체험학습’의 필요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

성격 특성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표 III - 83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창업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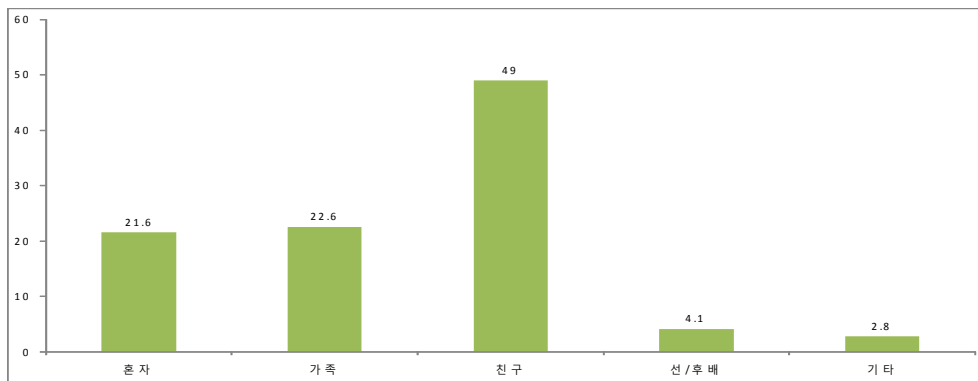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5408	3.77	.991		
성별	남자	2463	3.60	1.052	t=-11.672 p=.000	
	여자	2945	3.91	.913		
학교급	중학교	2490	3.69	1.016	t=-5.068 p=.000	
	고등학교	2918	3.83	.966		
지역	특별시/광역시	2229	3.75	1.005	F=2.113 P=.121	
	중소도시	2570	3.80	.967		
	읍면지역	609	3.72	1.038		
경제수준	상	1964	3.77	1.013	F=1.631 p=.196	
	중	2340	3.75	.970		
	하	1081	3.81	.991		
성격	조용함 ^a	673	3.64	1.023	F=8.585 p=.000	b,c>a
	보통 ^b	2054	3.76	.943		
	활발함 ^c	2648	3.81	1.016		

1) 전혀 필요치 않다(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필요한 편이다(4점), 매우 필요하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3.91)가 남자(M=3.60) 청소년에 비해 창업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M=3.83)이 중학생(M=3.69)보다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성격별로는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창업교육에서 창업체험학습이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활발(M=3.81)하거나 보통 성격(M=3.76)의 청소년이 조용한(M=3.64) 청소년보다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13)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들에게 향후 창업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정도(49.0%)가 ‘친구’를 선택했다. 그 다음 ‘가족’으로 답한 청소년이 22.6%, ‘혼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1.6%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선·후배’(4.1%)와 ‘기타’(2.8%)의 응답도 소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으로 친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0】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을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Ⅲ-84>).

표 Ⅲ-84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단위:%)
구분		혼자	가족	친구	선·후배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21.6	22.6	49.0	4.1	2.8	100.0	
성별	남자	21.2	18.2	53.4	4.5	2.7	100.0	$\chi^2=77.002$ $p=.000$
	여자	21.9	26.5	45.0	3.8	2.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8	28.2	57.8	4.4	2.8	100.0	$\chi^2=299.171$ $p=.000$
	중학교	19.0	21.7	53.1	3.9	2.2	100.0	
	고등학교	29.7	21.1	41.9	4.2	3.2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23.1	21.3	48.9	4.2	2.6	100.0	$\chi^2=16.768$ $p=.033$
	중소도시	20.1	23.3	49.2	4.4	3.0	100.0	
	읍면지역	22.5	24.5	48.0	2.5	2.5	100.0	
경제수준	상	19.0	22.6	51.3	4.7	2.4	100.0	$\chi^2=33.482$ $p=.000$
	중	22.5	22.7	48.6	3.5	2.6	100.0	
	하	25.2	22.3	44.5	4.4	3.7	100.0	
성격	조용함	25.5	19.6	46.1	5.3	3.6	100.0	$\chi^2=19.399$ $p=.013$
	보통	22.0	22.6	48.7	3.9	2.7	100.0	
	활발함	20.4	23.3	49.9	4.0	2.5	100.0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친구’ (53.4%), ‘혼자’ (21.2%), ‘가족’ (18.2%)의 순으로, 여자청소년은 ‘친구’ (45.0%), ‘가족’ (26.5%), ‘혼자’ (21.9%)의 순으로 창업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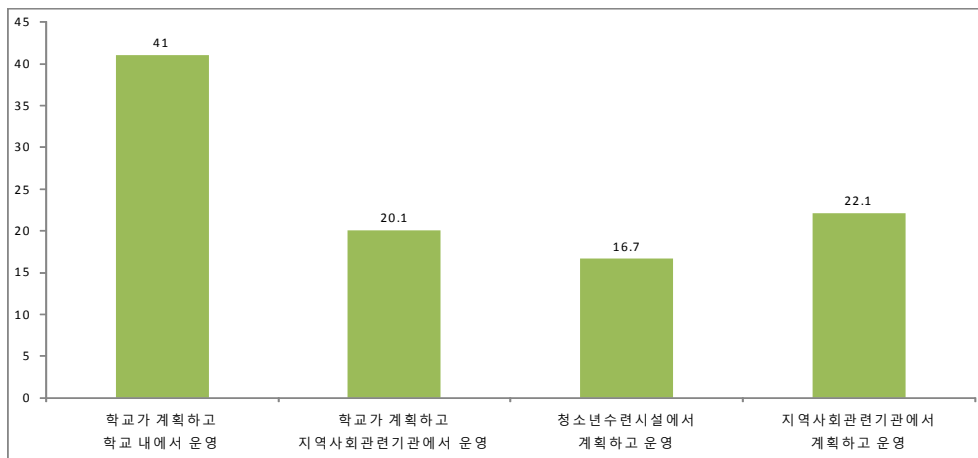
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 (초 57.8%, 중 53.1%), ‘가족’ (초 28.2%, 중 21.7%), ‘혼자’ (초 6.8%, 중 19.0%)의 순으로 생각한 반면, 고등학생은 ‘친구’ (41.9%), ‘혼자’ (29.7%), ‘가족’ (21.1%)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친구’ (48.9%), ‘혼자’ (23.1%), ‘가족’ (21.3%)의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친구’ (중소 49.2%, 읍면 48.0%), ‘가족’ (중소 23.3%, 읍면 24.5%), ‘혼자’ (중소 20.1%, 읍면 22.5%)의 순으로 보고하였다($p<.05$).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친구’ (상 51.3%, 중 48.6%, 하 44.5%)를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하지만 상위·중간그룹 청소년들은 ‘가족’ (상 22.6%, 중 22.7%), ‘혼자’ (상 19.0%, 중 22.5%)의 순으로, 하위그룹 청소년들은 ‘혼자’ (25.2%), ‘가족’ (22.3%)의 순으로 그 다음 2, 3순위를 제시하였다($p<.001$). 성격별 차이에서는 조용한 청소년은 ‘친구’ (46.1%), ‘혼자’ (25.5%), ‘가족’ (19.6%)의 순으로 향후 창업을 함께하고 싶어 했으나, 보통 또는 활발한 청소년은 ‘친구’ (보통 48.7%, 활발한 49.9%), ‘가족’ (보통 22.6%, 활발한 23.3%), ‘혼자’ (보통 22.0%, 활발한 20.4%)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관련인식

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기를 바라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획 및 운영의 주체를 학교, 지역사회관련기관,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22.1%),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20.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1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 -3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청소년이 바라는 계획 및 운영 주체의 순위는 전체 응답 순위와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의 응답률은 남자(47.1%)가 여자(35.7%) 청소년보다 11.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응답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초 48.9%, 고 33.3%),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초 19.0%, 고 28.0%),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초 17.1%, 고 25.1%)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46.5%),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20.9%),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16.8%)의 순으로 계획·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였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조용하거나 보통 성격의 청소년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조용한 40.0%, 보통 39.6%),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조용한 23.3%, 보통 24.5%),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조용한 22.7%, 보통 21.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활발한 청소년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42.3%),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20.3%),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18.7%)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격별 차이를 보고하였다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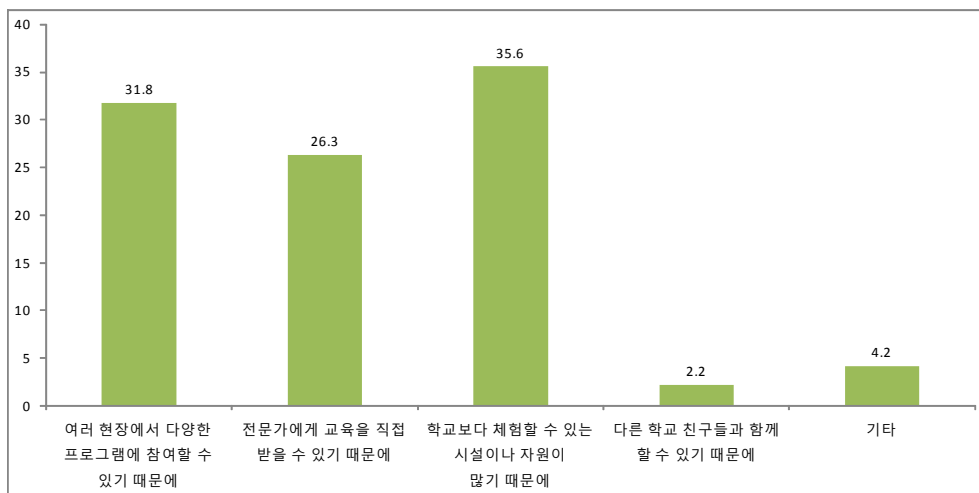
표 Ⅲ-85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통계치
전체		41.0	20.1	16.7	22.1	100.0	
성별	남자	47.1	18.8	14.9	19.3	100.0	$\chi^2=89.781$ $p=.000$
	여자	35.7	21.4	18.2	24.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8.9	17.1	15.0	19.0	100.0	$\chi^2=267.815$ $p=.000$
	중학교	46.5	15.8	20.9	16.8	100.0	
	고등학교	33.3	25.1	13.7	28.0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41.7	19.8	16.6	21.8	100.0	$\chi^2=5.940$ $p=.430$
	중소도시	40.7	20.9	16.3	22.2	100.0	
	읍면지역	40.2	17.9	18.8	23.1	100.0	
경제수준	상	42.1	19.6	17.1	21.2	100.0	$\chi^2=12.142$ $p=.059$
	중	40.8	20.0	17.1	22.0	100.0	
	하	38.8	22.0	14.6	24.5	100.0	
성격	조용함	40.0	22.7	14.0	23.3	100.0	$\chi^2=39.636$ $p=.000$
	보통	39.6	21.4	14.6	24.5	100.0	
	활발함	42.3	18.7	18.7	20.3	100.0	

①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②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③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④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2)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그림 Ⅲ-32】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학교 밖(지역사회관련기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35.6%),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31.8%),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6.3%) 학교 밖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기타’ (4.2%),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2.2%) 학교 밖 운영이 좋다는 의견도 소수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의 세부 응답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학교는 제약이 많아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학교수업도 많고 힘든데 추가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표 III - 86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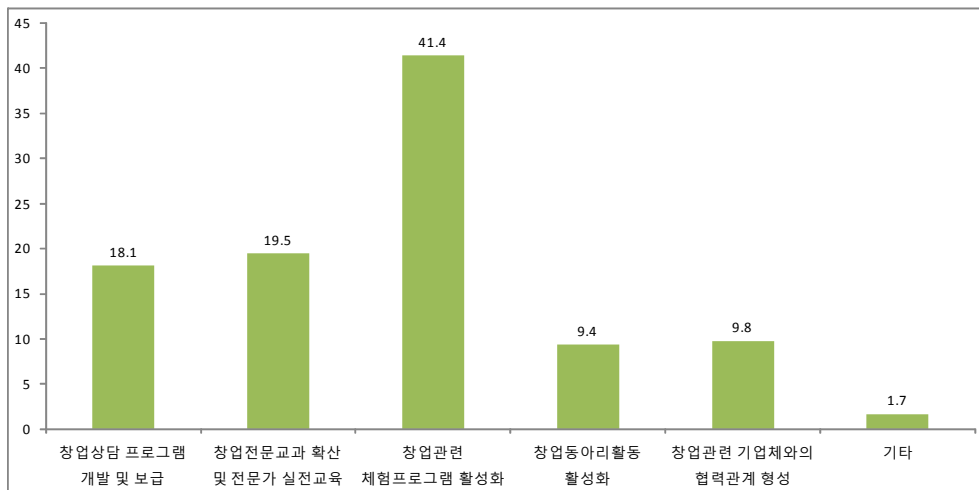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통계치
전체		31.8%	26.3%	35.6%	2.2%	4.2%	100.0%	
성별	남자	29.6%	28.1%	33.9%	3.6%	4.8%	100.0%	$\chi^2=40.050$ $p<.000$
	여자	33.4%	24.9%	36.8%	1.1%	3.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8.3%	26.9%	29.2%	2.5%	3.2%	100.0%	$\chi^2=60.686$ $p<.000$
	중학교	34.4%	24.9%	33.6%	3.5%	3.6%	100.0%	
	고등학교	27.9%	27.0%	39.0%	1.2%	4.9%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32.3%	25.9%	34.9%	1.8%	5.1%	100.0%	$\chi^2=11.901$ $p=.156$
	중소도시	32.0%	26.8%	35.3%	2.5%	3.4%	100.0%	
	읍면지역	29.0%	25.1%	39.3%	1.9%	4.7%	100.0%	
경제수준	상	31.5%	28.1%	33.8%	2.5%	4.1%	100.0%	$\chi^2=22.148$ $p=.005$
	중	33.8%	25.2%	35.6%	1.9%	3.5%	100.0%	
	하	27.7%	24.8%	39.7%	2.0%	5.9%	100.0%	
성격	조용함	30.2%	28.5%	33.7%	3.0%	4.5%	100.0%	$\chi^2=8.237$ $p=.411$
	보통	30.5%	27.0%	36.6%	1.8%	4.0%	100.0%	
	활발함	33.2%	25.0%	35.4%	2.2%	4.2%	100.0%	

①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③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④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⑤ 기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지역과 성격을 제외한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성별에서는 순위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의 이유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약 3% 가량 더 높게 응답했으며, 그 이외의 이유들에서는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 38.3%, 중 34.4%),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초 29.2%, 중 33.6%),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 26.9%, 24.9%)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이 많기 때문에’ (39.0%),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7.9%),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7.0%)의 순으로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p<.001$). 한편,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상위 및 중간그룹 청소년은 1, 2순위로 지목된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상 33.8%, 중 35.6%)와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 31.5%, 중 33.8%)의 응답률 차이가 2% 내외로 유사한 것에 반해, 하위그룹 청소년의 응답률은 각각 39.7%, 27.7%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p<.01$).

2)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그림 III-33】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향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41.4%)를 가장 필요하고 보았고, 그 다음으로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19.5%),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1%)을 선택했다. 이어서 ‘창업관련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9.8%), ‘창업동아리활동 활성화’ (9.4%), ‘기타’ (1.7%) 순으로 창업능력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 성격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은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35.3%),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1.3%),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20.0%)의 순으로, 여자청소년은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46.5%),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19.1%),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5.5%)의 순으로 창업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p < .001$).

표 III - 87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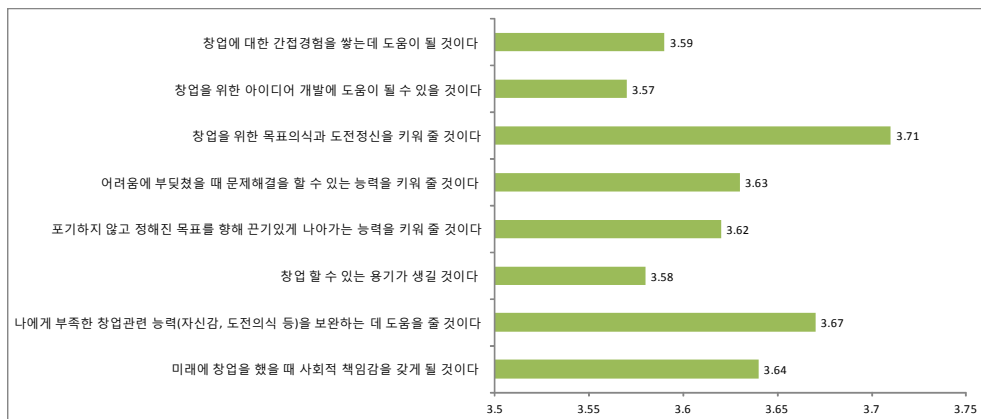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통계치
전체		18.1	19.5	41.4	9.4	9.8	1.7	100.0	
성별	남자	21.3	20.0	35.3	10.0	10.9	2.5	100.0	$\chi^2=90.592$ $p=.000$
	여자	15.5	19.1	46.5	8.9	9.0	1.0	100.0	
학교급	중학교	17.5	17.8	43.7	12.2	7.1	1.8	100.0	$\chi^2=87.836$ $p=.000$
	고등학교	18.7	21.0	39.4	7.0	12.2	1.7	1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18.8	20.1	40.2	8.8	10.6	1.6	100.0	$\chi^2=17.737$ $p=.060$
	중소도시	16.9	19.4	41.9	10.0	9.8	2.0	100.0	
	읍면지역	20.9	18.0	43.4	9.3	7.2	1.1	100.0	
경제수준	상	16.7	19.2	42.6	9.6	10.0	1.9	100.0	$\chi^2=16.889$ $p=.077$
	중	17.8	19.5	42.2	9.5	9.7	1.3	100.0	
	하	21.3	20.3	37.6	8.9	10.0	1.8	100.0	
성격	조용함	20.4	23.3	33.3	9.9	11.1	2.1	100.0	$\chi^2=35.388$ $p=.000$
	보통	19.3	19.0	41.9	8.1	9.8	1.9	100.0	
	활발함	16.7	19.0	43.1	10.2	9.6	1.3	100.0	

①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③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④ 창업 동아리활동 활성화, ⑤ 창업관련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⑥ 기타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1~3순위까지는 중·고등학생의 응답이 동일하였으나, 중학생은 ‘창업동아리활동 활성화’ (12.2%), ‘창업관련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7.1%)을 그 다음

순으로 제시한 반면, 고등학생은 ‘창업관련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12.2%), ‘창업동아리 활동 활성화’ (7.0%)를 4~5순위로 응답했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에서는 조용한 성격과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은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조용한 33.3%, 활발한 43.1%), ‘창업 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조용한 23.3%, 활발한 19.0%),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조용한 20.4%, 활발한 16.7%)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보통 성격의 청소년은 창업능력의 함양을 위해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41.9%),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9.3%),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19.0%)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p<.001$).

3)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림 Ⅲ-34】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창업을 위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것이다’의 평균점수가 3.71로 나타나 가장 큰 기대효과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나에게 부족한 창업관련 능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M=3.67$), ‘미래에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M=3.64$),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M=3.63$),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M=3.62$)의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M=3.59), ‘창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M=3.58),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3.57)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평균점수는 보통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는 보통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첫 번째 효과인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항목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88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8	3.59	.848		
성별	남자	3074	3.49	.905	t=-8.993 p=.000	
	여자	3504	3.68	.784		
학교급	초등학교 ^a	1179	3.48	.976	F=42.599 p=.000	c)a,b
	중학교 ^b	2482	3.51	.850		
	고등학교 ^c	2917	3.69	.775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693	3.63	.843	F=5.397 p=.005	a)b
	중소도시 ^b	3170	3.56	.845		
	읍면지역	715	3.57	.870		
경제수준	상	2601	3.60	.884	F=1.640 p=.194	
	중	2784	3.57	.804		
	하	1163	3.61	.862		
성격	조용함	770	3.60	.903	F=2.254 p=.105	
	보통	2428	3.56	.810		
	활발함	3339	3.61	.8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 따라 보면, 여자(M=3.68) 청소년은 남자(M=3.49) 청소년보다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p<.001$).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창업교육이 창업을 위한 간접경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고등학생(M=3.69)

은 초등학생(M=3.48)과 중학생(M=3.51)보다 간접경험의 도움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63), 읍면지역(M=3.57), 중소도시(M=3.56)의 순으로 간접경험의 효과를 보다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에 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2)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개발

일반적 특성별로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의 항목을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 - 89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 개발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8	3.57	.863		
성별	남자	3073	3.50	.926	$t=-5.351$ $p=.000$	
	여자	3505	3.62	.801		
학교급	초등학교 ^a	1179	3.67	.944	$F=9.692$ $p=.000$	a)b,c
	중학교 ^b	2481	3.54	.855		
	고등학교 ^c	2918	3.54	.833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693	3.60	.865	$F=3.310$ $p=.037$	a)b
	중소도시 ^b	3170	3.54	.861		
	읍면지역	715	3.55	.867		
경제수준	상 ^a	2601	3.62	.880	$F=9.088$ $p=.000$	a)b,c
	중 ^b	2785	3.54	.829		
	하 ^c	1162	3.52	.887		
성격	조용함 ^a	770	3.51	.900	$F=20.023$ $p=.000$	c)a,b
	보통 ^b	2428	3.50	.846		
	활발함 ^c	3339	3.63	.8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로는 남자(M=3.50)보다 여자(M=3.62) 청소년이($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M=3.54)보다 초등학생(M=3.67)이 아이디어 개발의 도움에 대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별 평균차이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60), 읍면지역(M=3.55), 중소도시(M=3.54) 순으로 아이디어 개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청소년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3.62$)인 청소년이 중간($M=3.54$) 및 하위그룹($M=3.52$)인 청소년보다 창업교육이 아이디어 개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p<.001$). 그리고 성격별로는 활발한($M=3.63$) 청소년이 조용($M=3.51$)하거나 보통 성격($M=3.50$)인 청소년에 비해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의 도움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3)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과 도전정신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을 위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것이다’의 항목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특성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II - 90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과 도전정신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0	3.71	.871		
성별	남자	3066	3.61	.931	$t=-8.497$ $p=.000$	
	여자	3504	3.80	.805		
학교급	초등학교 ^a	1177	3.76	.959	$F=14.212$ $p=.000$	a,c)b
	중학교 ^b	2477	3.64	.884		
	고등학교 ^c	2916	3.75	.816		
지역	특별시/광역시	2688	3.74	.871	$F=2.331$ $p=.097$	
	중소도시	3168	3.69	.871		
	읍면지역	714	3.70	.867		
경제수준	상 ^a	2596	3.77	.888	$F=9.562$ $p=.000$	a)b,c
	중 ^b	2783	3.67	.848		
	하 ^c	1161	3.69	.873		
성격	조용함 ^a	770	3.67	.926	$F=12.670$ $p=.000$	c)a,b
	보통 ^b	2426	3.65	.849		
	활발함 ^c	3333	3.76	.87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서는 여자($M=3.80$) 청소년이 남자($M=3.61$) 청소년보다 창업교육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76$) 및 고등학생($M=3.75$)이

중학생(M=3.64)보다 창업교육을 통해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위그룹(M=3.77), 하위그룹(M=3.69), 중간그룹(M=3.67)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상위그룹 청소년이 다른 그룹의 청소년보다 목표의식과 도전정신 함양의 효과를 유의하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p<.001$). 성격별 결과에서는 활발한 성격(M=3.76), 조용한 성격(M=3.67), 보통 성격(M=3.65)의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활발한 청소년이 다른 성격의 청소년에 비해 목표의식 및 도전정신의 함양에 대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4)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능력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에 대한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를 제외하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 - 91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능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6	3.63	.884		
성별	남자	3071	3.56	.942	$t=-6.001$ $p=.000$	
	여자	3505	3.69	.826		
학교급	초등학교 ^a	1178	3.76	.953	$F=15.378$ $p=.000$	a)b,c
	중학교 ^b	2480	3.61	.878		
	고등학교 ^c	2918	3.60	.856		
지역	특별시/광역시	2693	3.66	.883	$F=2.895$ $p=.055$	
	중소도시	3168	3.61	.885		
	읍면지역	715	3.61	.883		
경제수준	상 ^a	2601	3.70	.897	$F=14.630$ $p=.000$	a)b,c
	중 ^b	2783	3.58	.863		
	하 ^c	1162	3.58	.890		
성격	조용함 ^a	769	3.56	.921	$F=12.061$ $p=.000$	c)a,b
	보통 ^b	2427	3.58	.848		
	활발함 ^c	3339	3.68	.89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3.69)가 남자(M=3.56) 청소년보다($p<.001$), 학교급별 결과에서는 초등학교생(M=3.76)이 중학생(M=3.61)과 고등학생(M=3.60)보다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위그룹($M=3.70$)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간 및 하위그룹($M=3.58$)의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였다($p<.001$). 또한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한($M=3.68$) 청소년이 보통 성격($M=3.58$)과 조용한($M=3.56$) 청소년보다 창업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p<.001$).

(5)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의 항목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92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6	3.62	.894		
성별	남자	3073	3.55	.943	$t=-6.150$ $p=.000$	
	여자	3503	3.68	.844		
학교급	초등학교 ^a	1178	3.83	.947	$F=41.067$ $p=.000$	a>b,c
	중학교 ^b	2480	3.60	.894		
	고등학교 ^c	2918	3.56	.859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693	3.65	.873	$F=3.130$ $p=.044$	a>b
	중소도시 ^b	3169	3.59	.915		
	읍면지역	714	3.63	.876		
경제수준	상 ^a	2602	3.70	.915	$F=19.137$ $p=.000$	a>b,c
	중 ^b	2783	3.58	.857		
	하 ^c	1161	3.54	.912		
성격	조용함 ^a	768	3.51	.911	$F=18.448$ $p=.000$	c>a,b
	보통 ^b	2428	3.57	.866		
	활발함 ^c	3339	3.68	.905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우선, 성별로는 여자($M=3.68$) 청소년이 남자($M=3.55$) 청소년보다 창업교육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더 많이 키워줄 것으로 생각했으며($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교급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높게 보고되었다. 특히, 초등학생($M=3.83$)은 중학생($M=3.60$)과 고등학생($M=3.56$)보다 창업교육의 목표관련 능력에 관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65$), 읍면지역($M=3.63$), 중소도시($M=3.59$)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 창업교육이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 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중소도시의 청소년보다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창업교육의 이와 같은 효과를 더 높게 평가했으며, 사후검증 결과 상위그룹($M=3.70$) 청소년의 인식수준은 중간($M=3.58$) 및 하위그룹($M=3.54$)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성격별로 살펴보면, 활발할수록 창업교육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 함양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사후검증에서는 활발한($M=3.68$) 청소년이 보통 성격($M=3.57$)이거나 조용한($M=3.51$) 청소년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6)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할 수 있는 용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창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항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93>과 같이, 모든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표 III - 93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할 수 있는 용기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3	3.58	.921		
성별	남자	3070	3.49	.969	$t=-6.695$ $p=.000$	
	여자	3503	3.65	.870		
학교급	초등학교 ^a	1178	3.68	.994	$F=13.227$ $p=.000$	a)c>b
	중학교 ^b	2479	3.51	.918		
	고등학교 ^c	2916	3.59	.888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691	3.62	.920	$F=6.364$ $p=.002$	a>b
	중소도시 ^b	3167	3.54	.913		
	읍면지역	715	3.56	.955		
경제수준	상 ^a	2601	3.63	.958	$F=7.938$ $p=.000$	a>b,c
	중 ^b	2781	3.54	.875		
	하 ^c	1161	3.54	.928		
성격	조용함 ^a	769	3.46	.954	$F=13.785$ $p=.000$	c>a,b
	보통 ^b	2425	3.54	.892		
	활발함 ^c	3338	3.63	.928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즉, 남자의 평균은 3.49, 여자의 평균은 3.65로, 여자청소년이 창업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68$), 고등학생($M=3.59$), 중학생($M=3.51$)의 순으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러한 각 교급별 인식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62$), 읍면지역($M=3.56$), 중소도시($M=3.54$)에 거주하는 순으로 이와 같은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 청소년이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중소도시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그룹($M=3.63$) 청소년이 중간 및 하위그룹($M=3.54$)의 청소년보다($p<.001$), 성격에 따른 차이에서는 활발함($M=3.63$) 청소년이 보통 성격($M=3.54$)과 조용한 성격($M=3.46$)의 청소년보다 창업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7)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관련 능력

‘나에게 부족한 창업관련 능력(자신감, 도전의식 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의 항목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III-94>와 같다.

표 III-94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창업관련 능력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7	3.67	.889		
성별	남자	3072	3.59	.946	$t=-6.950$ $p=.000$	
	여자	3505	3.74	.829		
학교급	초등학교 ^a	1178	3.73	.969	$F=15.613$ $p=.000$	a,c>b
	중학교 ^b	2481	3.59	.897		
	고등학교 ^c	2918	3.71	.841		
지역	특별시/광역시	2693	3.70	.886	$F=2.288$ $p=.102$	
	중소도시	3169	3.65	.891		
	읍면지역	715	3.63	.885		
경제수준	상 ^a	2601	3.73	.901	$F=8.506$ $p=.000$	a>b
	중 ^b	2784	3.63	.862		
	하	1162	3.65	.908		
성격	조용함 ^a	769	3.58	.936	$F=15.109$ $p=.000$	c>a,b
	보통 ^b	2428	3.62	.853		
	활발함 ^c	3339	3.73	.897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지역을 제외한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성격 특성별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M=3.59) 청소년보다 여자(M=3.74) 청소년이($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3.59)보다 초등학생(M=3.73)과 고등학생(M=3.71)이 창업관련 능력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그룹(M=3.73), 하위그룹(M=3.65), 중간그룹(M=3.63) 청소년 순으로 창업교육이 창업관련 능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상위그룹의 청소년이 중간그룹의 청소년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창업교육의 이와 같은 효과를 더 높게 평가했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성격이 활발한(M=3.73) 청소년의 효과에 대한 인식수준이 보통 성격(M=3.62)과 조용한 성격(M=3.58)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p<.001$).

(8)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감

‘미래에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의 항목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표 III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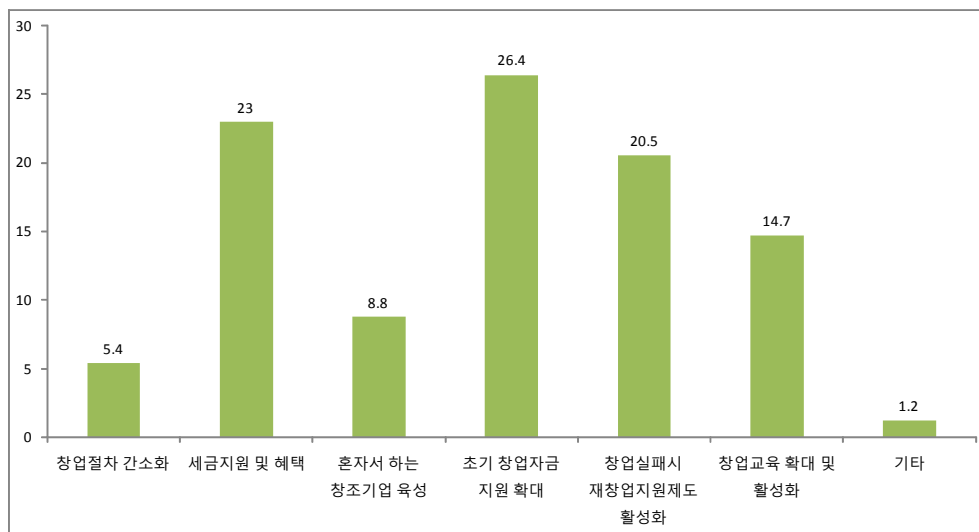
표 III - 95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감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74	3.64	.899		
성별	남자	3069	3.56	.961	$t=-6.489$ $p=.000$	
	여자	3505	3.71	.834		
학교급	초등학교 ^a	1176	3.75	.988	$F=12.924$ $p=.000$	a)b,c
	중학교 ^b	2481	3.58	.908		
	고등학교 ^c	2917	3.64	.847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693	3.68	.906	$F=5.633$ $p=.004$	a)b,c
	중소도시 ^b	3166	3.62	.885		
	읍면지역 ^c	715	3.58	.922		
경제수준	상 ^a	2601	3.71	.921	$F=12.402$ $p=.000$	a)b,c
	중 ^b	2782	3.60	.868		
	하 ^c	1161	3.59	.899		
성격	조용함 ^a	768	3.55	.950	$F=14.118$ $p=.000$	c)a,b
	보통 ^b	2428	3.59	.858		
	활발함 ^c	3337	3.70	.91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M=3.56)보다 여자(M=3.71) 청소년이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했다($p<.001$). 학교급별 결과에서는 초등학생(M=3.75)이 중학생(M=3.58)과 고등학생(M=3.64)보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68)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62)와 읍면지역(M=3.58)의 거주 청소년보다 사회적 책임감의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위그룹(M=3.71)인 청소년이 중간(M=3.60) 및 하위그룹(M=3.59)인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효과를 더 높게 평가했다($p<.001$). 성격에 따라 보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더 많이 기르게 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활발한(M=3.70) 청소년의 이러한 인식이 보통(M=3.59) 혹은 조용한(M=3.55)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01$).

4)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그림 III-35】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향후 창업을 위해 어떤 요소가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림 III-35]와 같이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26.4%)가 가장 시급하게 지원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금지원 및 혜택’ (23.0%),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화’ (20.5%), ‘창업교육 확대 및 활성화’ (14.7%)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혼자서 하는 창조기업 육성’ (8.8%), ‘창업절차 간소화’ (5.4%), ‘기타’ (1.2%)에 관한 의견도 소수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하게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성별과 학교급, 지역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96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통계치
전체	5.4	23.0	8.8	26.4	20.5	14.7	1.2	100.0	
성별	남자	6.1	25.9	9.3	26.4	19.8	10.6	1.8	$\chi^2=89.053$
	여자	4.8	20.4	8.4	26.4	21.1	18.1	.7	$p<.000$
학교급	중학교	5.7	28.7	8.2	23.3	18.1	14.7	1.4	$\chi^2=99.809$
	고등학교	5.2	18.1	9.4	29.0	22.5	14.7	1.1	$p<.000$
지역	특별시/광역시	6.3	23.2	8.9	26.5	21.3	12.7	1.0	$\chi^2=23.264$
	중소도시	4.8	22.8	8.5	26.0	20.5	16.1	1.4	$p<.026$
	읍면지역	5.1	22.7	9.8	27.7	17.2	16.0	1.5	
경제수준	상	4.7	22.4	8.9	25.8	21.2	15.5	1.5	$\chi^2=16.838$
	중	5.8	23.7	8.6	26.0	19.7	15.2	1.0	$p<.156$
	하	6.0	22.5	9.1	28.5	20.9	12.4	.7	
성격	조용함	6.8	23.2	10.2	23.9	21.2	13.1	1.6	$\chi^2=12.888$
	보통	5.4	22.0	8.9	26.9	20.8	14.7	1.2	$p<.377$
	활발함	5.0	23.7	8.4	26.6	20.1	15.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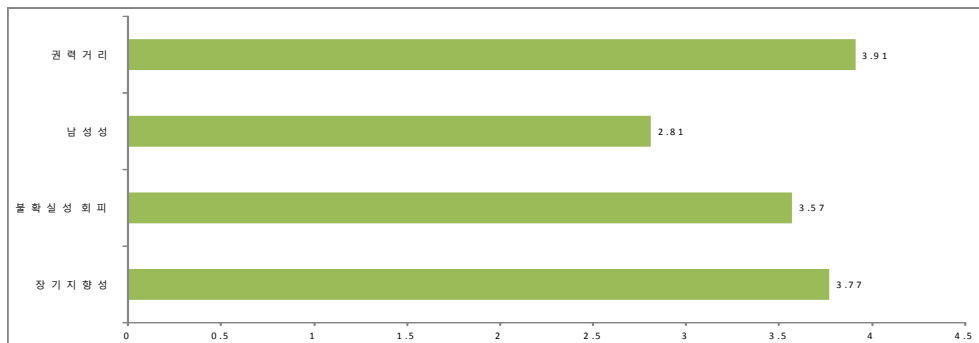
① 창업절차 간소화, ② 세금지원 및 혜택, ③ 혼자서 하는 창조기업 육성, ④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⑤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⑥ 창업교육 확대 및 활성화, ⑦ 기타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26.4%), ‘세금지원 및 혜택’ (25.9%),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19.8%)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여자청소년은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26.4%),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21.1%), ‘세금지원 및 혜택’ (20.4%)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세금지원 및 혜택’ (28.7%),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23.3%),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18.1%)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29.0%),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22.5%), ‘세금지원 및 혜택’ (18.1%)의 순으로 밝혀, 창업지원에 관한 중·고등학생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1$). 한편, 지역에 따른 응답은 전체 순위와 동일하였지만 3순위에 해당하는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의 응답률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청소년이 21.3%, 중소도시의 청소년이 20.5%, 읍면지역의 청소년이 17.2%로 차이가 있었고, ‘창업교육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응답 또한 12.7%~16.1%의 비율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p<.05$).

4. 문화가치수준

기업가정신 수준을 문화적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해 문화가치의 네 가지 차원인 ‘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에 대한 문화가치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권력거리’의 평균점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지향성’(M=3.77)과 ‘불확실성 회피’(M=3.57)가 그 다음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한편, ‘남성성’은 평균 2.8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Ⅲ-36】 문화가치수준(영역별)

1) 권력거리

권력거리의 평균차이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3.96) 청소년이 남자(M=3.85) 청소년에 비해 권력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M=4.01), 고등학교(M=3.95), 중학교(M=3.83)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더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p<.001$). 지역별 차이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96) 청소년이 중소도시(M=3.89)와 읍면지역(M=3.87)의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그룹($M=3.99$)의 청소년이 중간($M=3.85$) 및 하위 그룹($M=3.89$)의 청소년보다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활발한 성격($M=3.97$)의 청소년이 보통 성격($M=3.86$)과 조용한 성격($M=3.84$)의 청소년에 비해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여자청소년/ 초등학교생/ 특별시 및 광역시거주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제적이고 가부장적인 수직적 관계에 대해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기존의 틀을 가능한 지속하려는 심리가 강해 창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 97 권력거리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25	3.91	.663		
성별	남자	3056	3.85	.714	$t=-6.583$ $p=.000$	
	여자	3469	3.96	.612		
학교급	초등학교 ^a	1169	4.01	.719	$F=37.282$ $p=.000$	a)c>b
	중학교 ^b	2452	3.83	.688		
	고등학교 ^c	2904	3.95	.609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685	3.96	.662	$F=9.539$ $p=.000$	a)b,c
	중소도시 ^b	3140	3.89	.653		
	읍면지역 ^c	700	3.87	.710		
경제수준	상 ^a	2583	3.99	.668	$F=28.328$ $p=.000$	a)b,c
	중 ^b	2756	3.85	.659		
	하 ^c	1158	3.89	.636		
성격	조용함 ^a	762	3.84	.704	$F=27.090$ $p=.000$	c)a,b
	보통 ^b	2402	3.86	.633		
	활발함 ^c	3322	3.97	.667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남성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격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M=2.91$)가 여자($M=2.72$) 청소년보다 남성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학교급에 따른 결과에서는 고등학생($M=2.87$), 중학생($M=2.82$), 초등학생($M=2.63$)의 순으로 남성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읍면지역($M=2.86$), 특별시 및 광역시($M=2.83$), 중소도시($M=2.79$)에 거주하

는 청소년의 순으로 남성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특히 읍면지역의 청소년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 이러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위그룹($M=2.84$), 하위그룹($M=2.81$), 중간그룹($M=2.78$)의 청소년 순으로 남성성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사후검증의 결과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인 청소년이 중간그룹인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p<.01$).

따라서, 남자청소년/ 고등학생/ 읍면지역거주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성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다고 인식하며, 경쟁력, 야망, 권력과 같은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 98 남성성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5	2.81	.664		
성별	남자	3086	2.91	.703	$t=11.521$ $p=.000$	
	여자	3509	2.72	.615		
학교급	초등학교 ^a	1184	2.63	.749	$F=59.116$ $p=.000$	c>b>a
	중학교 ^b	2487	2.82	.676		
	고등학교 ^c	2924	2.87	.603		
지역	특별시/광역시	2709	2.83	.698	$F=4.783$ $p=.008$	b>a
	중소도시 ^a	3171	2.79	.634		
	읍면지역 ^b	715	2.86	.659		
경제수준	상 ^a	2611	2.84	.696	$F=5.523$ $p=.004$	a>b
	중 ^b	2789	2.78	.645		
	하	1166	2.81	.628		
성격	조용함	772	2.82	.715	$F=.772$ $p=.462$	
	보통	2434	2.80	.613		
	활발함	3349	2.82	.68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불확실성 회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자($M=3.59$) 청소년이 여자($M=3.55$) 청소년보다($p<.01$),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M=3.74$)이 중학생($M=3.54$)과 고등학생($M=3.53$)보다 불확실성 회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p<.001$). 지역별로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61$),

읍면지역(M=3.55), 중소도시(M=3.54)의 순으로 불확실성 회피의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사는 청소년보다 이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그룹(M=3.65)에 속하는 청소년이 다른 그룹(M=3.51)의 청소년보다($p<.001$), 성격에 따라서는 활발한(M=3.62) 청소년이 조용한 성격(M=3.54)과 보통 성격(M=3.51)의 청소년보다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분석되었다($p<.001$).

따라서, 남자청소년/ 초등학생/ 특별시 및 광역시거주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도전정신이나 모험정신이 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 99 불확실성 회피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92	3.57	.645		
성별	남자	3083	3.59	.685	t=2.942 p=.003	
	여자	3509	3.55	.608		
학교급	초등학교 ^a	1181	3.74	.738	F=49.089 p=.000	a>b,c
	중학교 ^b	2487	3.54	.628		
	고등학교 ^c	2924	3.53	.608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8	3.61	.663	F=8.745 p=.000	a>b
	중소도시 ^b	3169	3.54	.621		
	읍면지역	715	3.55	.676		
경제수준	상 ^a	2609	3.65	.673	F=38.398 p=.000	a>b,c
	중 ^b	2788	3.51	.610		
	하 ^c	1166	3.51	.636		
성격	조용함 ^a	772	3.54	.669	F=20.259 p=.000	c>a,b
	보통 ^b	2433	3.51	.616		
	활발함 ^c	3347	3.62	.655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4) 장기지향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장기지향성’의 통계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M=3.73) 청소년보다 여자(M=3.81) 청소년의 장기지향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p<.001$). 학교급별 차이에서는 초등학생(M=3.98)이

중·고등학생(M=3.73)보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82)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74)와 읍면지역(M=3.72)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장기지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위그룹(M=3.87), 중간그룹(M=3.73), 하위그룹(M=3.66)의 순으로,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지향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p<.001$). 그리고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활발할수록 장기지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발한(M=3.84) 청소년이 보통(M=3.71) 및 조용한(M=3.69) 청소년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따라서, 여자청소년/ 초등학생/ 특별시 및 광역시거주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인내, 근검정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100 장기지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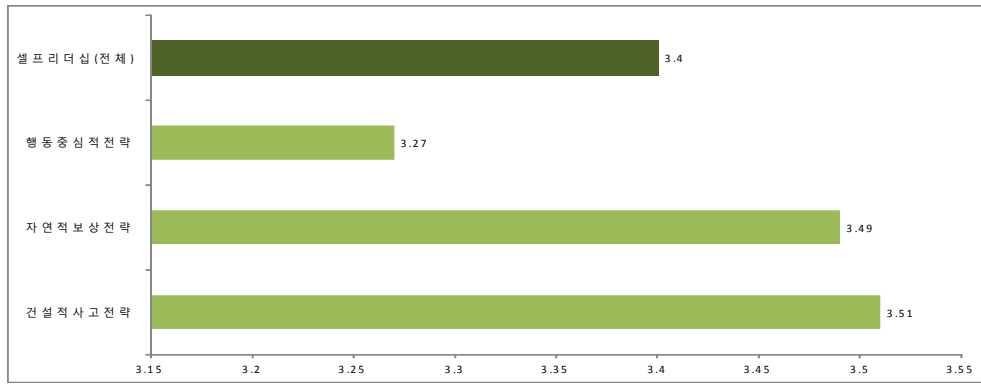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9	3.77	.659		
성별	남자	3084	3.73	.703	$t=-4.958$ $p=.000$	
	여자	3505	3.81	.616		
학교급	초등학교 ^a	1177	3.98	.680	$F=71.897$ $p=.000$	a)b,c
	중학교 ^b	2487	3.73	.688		
	고등학교 ^c	2925	3.73	.608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7	3.82	.670	$F=11.970$ $p=.000$	a)b,c
	중소도시 ^b	3170	3.74	.637		
	읍면지역 ^c	712	3.72	.704		
경제수준	상 ^a	2609	3.87	.659	$F=54.839$ $p=.000$	a)b>c
	중 ^b	2787	3.73	.633		
	하 ^c	1166	3.66	.684		
성격	조용함 ^a	772	3.69	.719	$F=33.625$ $p=.000$	c)a,b
	보통 ^b	2433	3.71	.626		
	활발함 ^c	3346	3.84	.6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5. 셀프리더십수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셀프리더십 수준은 평균 3.40으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건설적사고전략’이 평균 3.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연적보상전략’의 평균은 3.49였으며, ‘행동중심전략’은 평균 3.2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Ⅲ-37】 셀프리더십수준

표 Ⅲ-101 셀프리더십: 전체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7	3.40	.703		
성별	남자	3082	3.36	.712	t=-4.667 p=.000	
	여자	3505	3.44	.693		
학교급	초등학교 ^a	1176	3.54	.774	F=30.665 p=.000	a>b,c
	중학교 ^b	2487	3.39	.714		
	고등학교 ^c	2924	3.35	.655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6	3.47	.710	F=22.750 p=.000	a>b,c
	중소도시 ^b	3169	3.35	.688		
	읍면지역 ^c	712	3.36	.719		
경제수준	상 ^a	2608	3.57	.694	F=128.834 p=.000	a>b>c
	중 ^b	2786	3.31	.672		
	하 ^c	1166	3.24	.713		
성격	조용함 ^a	772	3.28	.710	F=70.053 p=.000	c>a,b
	보통 ^b	2432	3.30	.683		
	활발함 ^c	3345	3.50	.700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전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자(M=3.44)가 남자(M=3.36)

청소년보다($p<.001$), 학교급별 결과에서는 초등학생($M=3.54$)이 중학생($M=3.39$) 및 고등학생($M=3.35$)보다 셀프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47$)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3.35$)나 읍면지역($M=3.36$)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셀프리더십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즉 상위그룹($M=3.57$), 중간그룹($M=3.31$), 하위그룹($M=3.24$)의 순으로 셀프리더십이 통계적으로 더 높았으며($p<.001$), 성격별로는 활발한($M=3.50$) 청소년이 보통 성격($M=3.30$)과 조용한 성격($M=3.28$)의 청소년보다 이러한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1)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전략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 하위영역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표 III - 102 셀프리더십: 행동 중심 전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7	3.27	.824		
성별	남자	3082	3.20	$t=-6.170$ $p=.000$	
	여자	3505	3.33		
학교급	초등학교 ^a	1176	3.40	$F=18.297$ $p=.000$	a)b,c
	중학교 ^b	2487	3.26		
	고등학교 ^c	2924	3.22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6	3.34	$F=15.100$ $p=.000$	a)b,c
	중소도시 ^b	3169	3.22		
	읍면지역 ^c	712	3.23		
경제수준	상 ^a	2608	3.45	$F=119.222$ $p=.000$	a)b>c
	중 ^b	2786	3.19		
	하 ^c	1166	3.06		
성격	조용함 ^a	772	3.15	$F=36.961$ $p=.000$	c)a,b
	보통 ^b	2432	3.19		
	활발함 ^c	3345	3.35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별의 결과에서는 여자($M=3.33$) 청소년이 남자($M=3.20$)에 비해 행동중심전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행동중심전략을

더 높게 보고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M=3.40)이 중학생(M=3.26)과 고등학생(M=3.22)보다 그러한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별로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34)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행동중심전략 수준이 중소도시(M=3.22)와 읍면지역(M=3.23)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위그룹(M=3.45), 중간그룹(M=3.19), 하위그룹(M=3.06)의 순으로, 즉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행동중심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p<.001$). 또한 성격이 활발한(M=3.35) 청소년의 행동중심전략은 보통(M=3.19) 및 조용한(M=3.15)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p<.001$).

2) 셀프리더십: 자연적보상전략

표 III -103 셀프리더십: 자연적보상전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7	3.49	.790		
성별	남자	3082	3.48	.813	$t=-1.145$ $p=.252$	
	여자	3505	3.50	.769		
학교급	초등학교 ^a	1176	3.63	.866	$F=26.045$ $p=.000$	a)b)c
	중학교 ^b	2487	3.49	.797		
	고등학교 ^c	2924	3.43	.744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6	3.56	.785	$F=17.522$ $p=.000$	a)b,c
	중소도시 ^b	3169	3.44	.788		
	읍면지역 ^c	712	3.44	.798		
경제수준	상 ^a	2608	3.63	.784	$F=76.649$ $p=.000$	a)b,c
	중 ^b	2786	3.40	.762		
	하 ^c	1166	3.37	.814		
성격	조용함 ^a	772	3.38	.820	$F=68.861$ $p=.000$	c)a,b
	보통 ^b	2432	3.37	.763		
	활발함 ^c	3345	3.60	.78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전략’을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즉 초등학생(M=3.63), 중학생(M=3.49), 고등학생(M=3.43)의 순으로 자연적보상전략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M=3.56) 거주

청소년이 다른 지역(M=3.44)의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위그룹(M=3.63)의 청소년이 중간(M=3.40) 및 하위그룹(M=3.37)인 청소년보다 자연적보상전략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분석되었다($p<.001$). 성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활발한 성격(M=3.60) 청소년이 조용(M=3.38)하거나 보통 성격(M=3.37)인 청소년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연적보상전략을 보고하였다($p<.001$).

3) 셀프리더십: 건설적사고전략

셀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전략’ 하위영역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로 보면, 여자(M=3.54) 청소년이 남자(M=3.48)보다 건설적사고전략의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M=3.68)이 중학생(M=3.49)과 고등학교(M=3.47)에 비해 자신의 건설적사고전략을 더 높게 평가했다($p<.001$).

표 Ⅲ - 104 셀프리더십: 건설적 사고 전략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6587	3.51	.883		
성별	남자	3082	3.48	.880	$t=-2.816$ $p=.005$	
	여자	3505	3.54	.884		
학교급	초등학교 ^a	1176	3.68	.910	$F=24.237$ $p=.000$	a)b,c
	중학교 ^b	2487	3.49	.881		
	고등학교 ^c	2924	3.47	.866		
지역	특별시/광역시 ^a	2706	3.59	.874	$F=16.492$ $p=.000$	a)b,c
	중소도시 ^b	3169	3.46	.882		
	읍면지역 ^c	712	3.48	.902		
경제수준	상 ^a	2608	3.67	.868	$F=68.677$ $p=.000$	a)b,c
	중 ^b	2786	3.42	.852		
	하 ^c	1166	3.39	.929		
성격	조용함 ^a	772	3.37	.902	$F=55.791$ $p=.000$	c)a,b
	보통 ^b	2432	3.41	.864		
	활발함 ^c	3345	3.63	.87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한 후 평균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M=3.59) 거주 청소년의 건설적사고전략은 중소도시(M=3.46)와 읍면지역(M=3.48)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분석되었다($p<.00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특히 상위그룹(M=3.67)인 청소년이 중간그룹(M=3.42)과 하위그룹(M=3.39)의 청소년보다 건설적사고전략 셀프리더십을 더 높게 평가했으며($p<.001$),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특히 활발한 성격(M=3.63)의 청소년이 보통(M=3.41) 및 조용한 성격(M=3.37)의 청소년보다 이와 같은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문화가치 · 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문화가치(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셀프리더십(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 적률상관)을 실시했다. 그리고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에서 입력(Enter)방식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 문화가치 ·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문화가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105>와 같다. 문화가치 중에 남성성을 제외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그리고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은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 이의 하위영역인 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과 상관관계수 .142~.520 범위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01$). 즉,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수준이 높고,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셀프리더십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성과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상관관계수가 각각 .039, .026으로 그 관계가 매우 약했다. 한편, 문화가치와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수는 .60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없었다.

표 III -105 문화가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구분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문화가치				셀프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1												
②	.835**	1											
③	.564**	.362**	1										
④	.675**	.522**	.256*	1									
⑤	.747**	.585**	.378*	.460**	1								
⑥	.854**	.579**	.354*	.413**	.529**	1							
⑦	.376**	.307**	.316*	.142**	.318**	.324*	1						
⑧	.006	.039**	-.023	.026*	.002	-.018	.088**	1					
⑨	.352**	.303**	.251*	.161**	.305**	.294*	.555**	.237**	1				
⑩	.448**	.373**	.282*	.192**	.362**	.411*	.516**	.018	.500**	1			
⑪	.511**	.473**	.237*	.251**	.419**	.453*	.300**	.067**	.333**	.420**	1		
⑫	.514**	.445**	.252*	.314**	.381**	.460*	.348**	.043**	.344**	.424**	.538**	1	
⑬	.520**	.459**	.256*	.308**	.396**	.458*	.347**	.031*	.323**	.431**	.524**	.585**	1

* p<.05, ** p<.01

①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전체), ② 성취욕구, ③ 자기통제능력, ④ 위험감수성, ⑤ 창의력, ⑥ 자기유능감, ⑦ 권력거리, ⑧ 남성성, ⑨ 불확실성 회피, ⑩ 장기지향성, ⑪ 행동중심적전략, ⑫ 자연적보상전략, ⑬ 건설적사고전략

2) 문화가치 ·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II-106>과 같이 회귀모형은 $F=651.895$,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권력거리($\beta=.093$, $p<.001$), 남성성($\beta=-.047$, $p<.001$), 불확실성 회피($\beta=.050$, $p<.001$), 장기지향성($\beta=.119$, $p<.001$), 그리고 행동중심적전략($\beta=.214$, $p<.001$), 자연적보상전략($\beta=.181$, $p<.001$),

건설적사고전략($\beta=.203$, $p<.001$)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분석되었다. 즉, 문화가치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과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성 수준은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공차한계(Tolerance)는 .560~.929, 분산팽창요인(VIF)은 1.077~1.78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III -106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Tolerance	VIF
(상수)		1.544	.041		37.301***		
문화가치	권력거리	.076	.010	.093	7.590***	.605	1.654
	남성성	-.039	.008	-.047	-4.766***	.929	1.077
	불확실성 회피	.043	.011	.050	4.024***	.580	1.724
	장기지향성	.098	.010	.119	9.555***	.585	1.708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전략	.142	.008	.214	17.730***	.618	1.619
	자연적보상전략	.125	.009	.181	14.272***	.560	1.787
	건설적사고전략	.125	.008	.203	16.165***	.573	1.744
R ² =.412, Adj R ² =.412, F=651.895***							

*** $p<.001$

(1)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성취욕구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역량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성취욕구를 중심으로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성취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8%이며, $F=432.299$, $p<.001$ 로 통계적으로 적합한 예측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권력거리($\beta=.057$, $p<.001$), 불확실성 회피($\beta=.042$, $p<.01$), 장기지향성($\beta=.081$, $p<.001$), 행동중심적전략($\beta=.233$, $p<.001$), 자연적보상전략($\beta=.143$, $p<.001$), 건설적사고전략($\beta=.185$, $p<.001$)이 성취욕구의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취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07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성취욕구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1.488	.052		28.820***
문화가치	권력거리	.054	.013	.057	4.336***
	남성성	-.006	.010	-.006	-.548
	불확실성 회피	.042	.013	.042	3.148**
	장기지향성	.078	.013	.081	6.040***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전략	.179	.010	.233	17.866***
	자연적보상전략	.115	.011	.143	10.450***
	건설적사고전략	.132	.010	.185	13.659***
$R^2=.318$, Adj $R^2=.317$, $F=432.299$ ***					

** p<.01, *** p<.001

(2)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역량의 자기통제능력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6.316$, $p<.001$). 즉, 자기통제능력에 권력거리($\beta=.183$, $p<.001$), 불확실성 회피($\beta=.059$, $p<.001$), 장기지향성($\beta=.076$, $p<.001$), 행동중심적전략($\beta=.064$, $p<.001$), 자연적보상전략($\beta=.061$, $p<.001$), 건설적사고전략($\beta=.073$, $p<.001$)은 정적인 영향을, 반대로 남성성($\beta=-.065$, $p<.0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II -108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2.070	.068		30.472***
문화가치	권력거리	.205	.016	.183	12.408***
	남성성	-.073	.013	-.065	-5.491***
	불확실성 회피	.068	.017	.059	3.891***
	장기지향성	.085	.017	.076	5.048***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전략	.057	.013	.064	4.352***
	자연적보상전략	.058	.014	.061	4.004***
	건설적사고전략	.061	.013	.073	4.799***
$R^2=.144$, Adj $R^2=.143$, $F=156.316$ ***					

*** p<.001

(3)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역량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행동중심적전략($\beta=.061$, $p<.001$), 자연적보상전략($\beta=.172$, $p<.001$), 건설적사고전략($\beta=.166$, $p<.001$)이 위험감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133.269$, $p<.001$). 이는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셀프리더십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위험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이 12.5%로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

표 III -109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1.704	.079		21.530***
문화가치	권력거리	-.026	.019	-.020	-1.359
	남성성	.002	.015	.001	.120
	불확실성 회피	.036	.020	.027	1.776
	장기지향성	.027	.020	.021	1.353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전략	.063	.015	.061	4.136***
	자연적보상전략	.186	.017	.172	11.071***
	건설적사고전략	.160	.015	.166	10.811***

$R^2=.125$, Adj $R^2=.125$, $F=133.269$ ***

*** $p<.001$

(4)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역량의 하위영역인 창의력을 중심으로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III-11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6.1%, $F=328.588$, $p<.001$ 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권력거리($\beta=.092$, $p<.001$), 남성성($\beta=-.050$, $p<.001$), 불확실성 회피($\beta=.071$, $p<.001$), 장기지향성($\beta=.091$, $p<.001$), 행동중심적전략($\beta=.209$, $p<.001$), 자연적보상전략($\beta=.094$, $p<.001$), 건설적사고전략($\beta=.13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성을 제외한 문화가치와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창의력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남성성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창의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 110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1.460	.060		24.172***
문화가치	권력거리	.098	.015	.092	6.691***
	남성성	-.054	.012	-.050	-4.564***
	불확실성 회피	.079	.015	.071	5.086***
	장기지향성	.098	.015	.091	6.508***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전략	.181	.012	.209	15.438***
	자연적보상전략	.085	.013	.094	6.598***
	건설적사고전략	.112	.011	.139	9.862***
$R^2=.261$, Adj $R^2=.261$, $F=328.588$ ***					

*** p<.001

(5)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역량의 자기유능감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은 32.7%이며, $F=450.684$, $p<.001$ 로 문화가치 중 불확실성 회피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 - 111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1.345	.058		23.317***
문화가치	권력거리	.076	.014	.071	5.430***
	남성성	-.061	.011	-.058	-5.446***
	불확실성 회피	.021	.015	.019	1.445
	장기지향성	.149	.014	.138	10.363***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전략	.163	.011	.189	14.579***
	자연적보상전략	.153	.012	.170	12.499***
	건설적사고전략	.137	.011	.171	12.691***
$R^2=.327$, Adj $R^2=.326$, $F=450.684$ ***					

*** p<.001

즉, 청소년의 자기유능감에 권력거리($\beta=.071$, $p<.001$), 장기지향성($\beta=.138$, $p<.001$), 행동중심적전략($\beta=.189$, $p<.001$), 자연적보상전략($\beta=.170$, $p<.001$), 건설적사고전략($\beta=.171$, $p<.001$)은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남성성($\beta=-.058$, $p<.0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소결 및 시사점

1) 소결

본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관련인식,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 인식: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미지로 도전정신(30.6%)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9.5%)는 기업가정신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88.3%)은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73.0%)에서 교육을 받았고, 진로·직업체험기관(34.6%)이나 청소년시설(18.5%) 등에서의 참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54.9%)이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반응했다.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3/4이상(76.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주된 이유로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1.1%)로 응답했다. 반대로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39.3%)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M=3.86), 체험활동 중심(M=3.78)의 지도 등을 강조했으며, 교육 시작 시기는 중학교(43.7%)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교육내용으로는 도전정신(M=4.1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M=4.10), 문제해결기술(M=4.09), 리더십(M=4.08),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M=4.02), 기업체험(M=3.94),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M=3.93),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M=3.91), 경제교육(M=3.86)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기업가정신교육의 활성화방안으로는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38.4%)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이어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1%),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21.9%)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개인적 역량 수준은 보통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것(M=3.60)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능력(M=3.83), 자기유능감(M=3.65), 창의력(M=3.62), 성취욕구(M=3.58), 위험감수성(M=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3.73~4.22 사이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책임감, 사람들의 행복, 환경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취업과 관련하여 과반수이상(54.1%)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15.9%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 취업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83.8%)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창업도 고려하는지 알아본 결과,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57.3%)이 약간 더 많았다. 그 이유로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31.2%)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27.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의향이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61.2%)를 창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국내의 창업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41.1%)이 높았으며,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견(39.5%)도 많았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창업 시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M=3.89), 높은 실패 위험(M=3.68), 심한경쟁(M=3.59), 불확실한 미래(M=3.59), 세금부담(M=3.54), 사원 확보의 어려움(M=3.43), 많은 규제(M=3.42), 과도한 업무시간(M=3.34)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청소년들의 창업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10% 안팎에 머물렀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1~2번 참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는 등 창업캠프(비즈쿨캠프), 창업멘토링,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활동 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창업관심의 평균점수는 2.62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도전의식의 평균점수는 3.11의 보통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창업태도(M=2.59), 창업역량(M=2.40)도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교육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 이상(37.2%)이 중학교, 1/3 정도(33.7%)는 고등학교를 가장 적정시기로 답했다. 창업교육의 내용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올바른 경제관 확립(M=3.94),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M=3.92), 창업체험학습(M=3.77), 세금관련 기초지식(M=3.76), 관련법과 제도

(M=3.75),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M=3.73), 판매 및 홍보전략(M=3.63), 사업계획서 작성법(M=3.63), 창업절차와 방법(M=3.57), 성공적인 창업사례(M=3.56)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49.0%)와 함께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공무원 등 기타(14.9%), 교육관련산업(9.6%), 의료기술관련산업(8.8%) 등이었으며, 가장 창업하고 싶은 분야는 요식관련산업(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관련인식: 청소년들은 창업교육이 목표의식과 도전정신(M=3.71), 창업관련 능력(M=3.67), 사회적 책임감(M=3.64), 문제해결능력(M=3.63),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M=3.62),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M=3.59), 창업할 수 있는 용기(M=3.58), 아이디어 개발(M=3.57)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기업가정신교육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1.0%, 지역사회관련기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8.9%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많고(35.6%),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31.8%),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26.3%) 등으로 답했다. 한편,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41.4%)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향후 원활한 창업을 위해서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26.4%), 세금지원 및 혜택(23.0%), 창업 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20.5%), 창업교육 확대 및 활성화(14.7%)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문화가치(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는 권력거리가 평균 3.91, 장기지향성이 평균 3.77, 불확실성 회피가 평균 3.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은 평균 2.8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셀프리더십 수준은 평균 3.40이며, 하위영역인 건설적사고전략은 평균 3.51, 자연적보상전략은 평균 3.49, 행동중심전략은 평균 3.27로 조사되었다. 문화가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과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성 수준은 낮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 역량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성취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취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은 정적인 영향을, 반대로 남성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이 위험감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섯째,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성을 제외한 문화가치와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창의력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남성성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창의력이 높게 나타났다.

2) 시사점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가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의 청소년이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청소년들의 ¾이상이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나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하며,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하거나,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또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순위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은 과반수정도가 중학교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4, 5, 6학년 순인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사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들 과반수정도는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을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내 모든 교사대상 관련연수 참여 기회제공 및 확대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나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도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각 교과목과 연계한 관련활동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교육의 기본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이 위험감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남성성을 제외한 문화가치수준과 셀프리더십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창의력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이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IV 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IV 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⁴⁾

1.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 본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 인식, 취업 및 창업교육 관련 인식,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관련인식,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 및 연상이미지 :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9.5%)는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도전정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 참여경험 : 대다수의 청소년(88.3%)은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그룹에 속하는 청소년집단의 교육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장소** : 교육을 받은 장소는 ‘학교’가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로·직업체험기관’, ‘청소년시설’, ‘금융기관’, ‘사교육기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 교육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62로 나타났으며,

4) 이 장은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한 것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¾이상(76.2%)이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1.1%)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전意識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교육 결과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 초등학생/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청소년/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기업가정신교육이 장래의 꿈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 체험활동 중심으로,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과 체험성을 강조했다.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과반수정도(43.7%)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4, 5, 6학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 기업가정신교육내용으로는 ‘도전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기술’, ‘리더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수준: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능력’, ‘자기유능감’, ‘창의력’,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청소년, 초등학생,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개인적 역량수준이 상대적으로

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라는 항목을 평균 4.22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은 이윤 추구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고객 제일주의이다’,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순이었으나, 모든 항목에서 3.73~4.22 사이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책임감, 사람들의 행복, 환경보호,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인식

미래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 과반수 정도(46.2%)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취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도 37.6%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미래 취업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래 희망직업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인식:** 과반수이상(54.1%)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회사)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12.8%),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3.1%)의 부정적인 인식도 15.9%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향: 42.7%의 청소년들이 미래 창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청소년/ 초등학교생/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창업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는 ⅔정도(61.2%)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창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창업하는 데는 돈(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순으로 응답했다.

창업관심수준: 창업관심수준은 2.62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남자청소년/ 초등학생/ 성격이 활발한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창업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금 나쁘다(30.0%), 매우 나쁘다(11.1%)). 그러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창업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의 창업화 환경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40% 정도가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아이디어 창업화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 과반수정도(49.0%)의 청소년들은 향후 창업을 한다면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 ‘혼자’, ‘선·후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태도수준: 창업태도수준 평균점수는 2.59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청소년/ 학교급이 낮을수록/ 특별시 및 광역시거주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창업태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역량수준:** 창업역량 평균점수는 2.40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청소년/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한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창업역량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창업관련활동 참여수준:** 창업관련활동 중 참여수준이 가장 높은 활동은 ‘창업교육(수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활동’,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멘토링’, ‘창업캠프(비즈쿨캠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창업관련활동참여율은 전반적으로 10% 안팎에 머물렀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1~2번 참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창업관련 활동의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 시작 시기: 창업교육 시작 시기로는 중학교’(37.2%)나 ‘고등학교’(33.7%)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계획·운영 주체에 대한

인식: 과반수정도(41.0%로)의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순으로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는 보통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창업을 위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것이다’, ‘나에게 부족한 창업관련 능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래에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중·고등학생): 창업교육 내용으로는 ‘올바른 경제관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 ‘창업체험 학습’, ‘세금관련 기초지식’, ‘관련법과 제도’,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중·고등학생):** 창업 장애요소로는 ‘창업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창업은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 ‘창업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창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창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클 것이다’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인식은 평균 2.94점으로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고 싶은 분야(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산업분야는 ‘교육관련산업’, ‘의료기술관련산업’, ‘음악관련산업’ / ‘정보통신(IT)관련산업’, ‘방송 및 영상관련산업’, ‘과학관련산업’, ‘요식관련산업’, ‘게임관련산업’, ‘패션관련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하고 싶은 분야(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창업하고 싶은 산업분야는 ‘요식관련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관련산업’, ‘패션관련산업’, ‘정보통신(IT)관련산업’, ‘광고관련산업’, ‘음악관련산업’ / ‘건축관련산업’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방안(중·고등학생): 향후 청소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창업관련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창업동아리활동 활성화’ (9.4%) 순으로 창업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창업지원 요소에 대한 인식(중·고등학생):** 향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세금 지원 및 혜택’,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창업교육 확대 및 활성화’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혼자서 하는 창조기업 육성’, ‘창업절차 간소화’ (5.4%), 등의 의견도 소수 확인되었다.

3)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 및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의 관계

문화가치수준: 문화가치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의 4가지 범주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권력거리’의 평균점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지향성’ (M=3.77)과 ‘불확실성 회피’ (M=3.57)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성’은 평균 2.8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셀프리더십 수준:** 셀프리더십수준은 평균 3.40으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건설적사고전략’, ‘자연적보상전략’, ‘행동중심전략’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수준과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문화가치 중 남성성을 제외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그리고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은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과 이의 하위영역인 성취욕구, 자기통제능력, 위험감수성, 창의력, 자기유능감과 상관계수 .142~.520 범위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수준이 높고, 행동중심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셀프리더십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그 관계가 매우 약한 반면, 문화가치와 셀프리더십수준간의 상관계수는 .60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문화가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F=651.895$,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이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분석되었다. 즉, 문화가치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과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성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창의력이 높게 나타났다.

2. 정책제언

1) 초등학교에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⁵⁾

초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1-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과반수정도(49.5%)가 기업가정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본 적은 있다’는 청소년이 33.7%, ‘기업가정신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는 청소년도 14.2%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가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단 2.6%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쿨 운영 5년차인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역량이란 용어와 개념이 생소한 경우가 많아 비즈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보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골든벨, OX퀴즈활동,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등의 교내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마인드 인식과 홍보의 기회를 마련해 주거나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동영상이나 플래시 홍보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발표자료 중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초등학교’ (김선순, 2014, pp.3-15)의 내용과 관련설문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정책 제언 1-2: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38.4%)와 더불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2.1%)을 두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급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교재나 자료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담당교사가 이를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를 함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지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초등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교육과, 어린이 경제/금융 기초이론 교육 등 실생활과 연계한 실전적 비즈니스 체험학습 교육이나 롤플레이팅 형태의 실전경영체험활동 등 초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1-3: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담당교사제 운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 ‘기업가정신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고 있어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전문성과 체험성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비즈쿨 업무담당자가 바뀌게 될 때 마다 업무추진하는 데 혼란이 많아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지속적인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에 따라 창업동아리가 해마다 바뀌는 실정이며, 동아리활동내용에도 한계가 있어 담당교사제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1-4: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

교실 부족으로 동아리실 없이 방과후 동아리 운영시간에만 비는 교실을 이용하여 활동하므로 지도교사도 청소년들도 떠돌이 생활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렵다. 따라서 동아리활동 후 상설전시판매가 가능한 동아리실 지원 등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유시장 참가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판매에 뛰어들면서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불량제품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수익계산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저절로

회계를 알게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며 실제로 기업가정신을 배워나가게 된다. 청소년 자유시장과 같이 청소년들이 실제 동아리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를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학교에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⁶⁾

중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2-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기업가정신교육이 다루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교과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지식 이해로 습득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청소년중심활동과 협력적인 배움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여 기업의 구성원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도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하며,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던 창의·인성교육, 융합(STEAM)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기업가정신 요소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2-2: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혁신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소는 ¾정도(73.0%)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의식, 지식주입식 수업은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에 매우 부족하다. 참여와 배움중심의 수업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교육에 적합한

6)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발표자료 중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중학교’ (이승택, 2014, pp.19-30)의 내용과 관련설문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현장을 만들고, 교사교육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창조적 도전과 혁신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 제언 2-3: 동아리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활성화

기존의 청소년 창업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학교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교육 사례가 적은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교육은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아리활동에서 활용할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또한 필요하다.

3) 고등학교에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⁷⁾

고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3-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각 지역단위로 지도자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계나 하계 방학연수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면 사이버 연수과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인증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정책 제언 3-2: 비즈쿨 선도학교 역할 재정립

지역적으로 비즈쿨에 대한 지도교사의 관심과 열정어린 활동으로 비즈쿨 희망 학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비즈쿨 신규 학교에 대해서는 회계 집행 관련 안내와 연간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된 멘토가 필요하다. 신규 비즈쿨 학교는 1-3년간은 암흑기로서 프로그램 진행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선도학교의 멘토 역할이다. 선도학교의

7)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발표자료 중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고등학교’ (이금택, 2014, pp.35-48)의 내용과 관련설문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역할은 지역학교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조언과 협조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대 역할을 해야 한다. 선도학교는 여러 번의 협의회와 단위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 비즈쿨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학생 숙소 마련과 진행되는 동안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해외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및 교사, 학생 예산 지원 등 지역에서의 비즈쿨 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을 등을 말한다. 선도학교의 역할은 전국 단위 행사에서 술선수범하는 모습과 양과 질적인 모든 면에서 단위학교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명분만의 선도학교보다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비즈쿨 교육의 희생, 봉사정신이 무장된 선봉대 역할이 요구된다.

정책 제언 3-3: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삼위일체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이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 (22.1%),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 운영’ (20.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 (16.7%)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교와 연계된 캠프 및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형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즈쿨 고등학교 초청 대학교 캠프에 참가하면 대학생 프로그램에 들러리 역할을 하여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다. 대학생의 멘토를 통한 비즈쿨 교육의 활성화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만족감을 더해 줄 것이다. 더욱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비즈쿨 활동은 더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대학생프로그램에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두 가지 형태,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형 창업활동은 현재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제언 3-4: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강화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 미래 사회의 책임자이자 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미래 CEO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비즈쿨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학습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 각 행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즈쿨 지도교사의 인센티브 부여:** 학교에서 비즈쿨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교육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학교단위로 신청을 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2002년 도입된 비즈쿨 운영은 중소기업청 사업이지만 사·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비즈쿨 운영학교와 시범학교로 구분되어 시행하였다. 운영학교는 일반 운영학교로서 공사립학교를 불문하고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수 부여가 없다. 그러나 비즈쿨 시범학교는 공립학교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수가 부여되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몇 년 지속된 시범학교 시스템은 없어지고 공사립 모두 비즈쿨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졌다.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있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는 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없었다. 청소년들에게 열정어린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도전정신과 인내력을 키워주는 비즈쿨 활동이 지도교사에게도 보람은 있지만, 과중한 업무 중에도 곳곳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담당교사의 연차에 맞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⁸⁾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4-1: 청소년활동과 학교 행사활동 연계를 통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활동 활성화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을 지역사회관련

8)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발표자료 중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홍윤경, 2014, pp.83-105)의 내용과 관련설문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선호한다. 특히 중학생들의 1/4 정도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시설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을 현재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교육, 봉사활동, 자유학기제 관련활동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로 구성한다면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인 창비어천가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던 한 아이템에서 그것을 컨설턴트와 함께 고민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제품을 발표하는 것까지 실제로 창업 직전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본 청소년들은 그 이후에도 꾸준한 참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다. 즉,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책 제언 4-2: 문화가치·셀프리더십수준 제고를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설문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은 도전정신이나 창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이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창업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권순택 (2004). 차별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헤르트 홉스테드(Greet Hofstede)의 문화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9, 43-76.
- 김선순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초등학교**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경, 김명희 (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창조경제 종합연구 13-01-23).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연정, 노병수 (2012).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6), 23-31.
- 남정인 (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춘애 (2012). **비즈쿨 교육특성, 사회적지지 및 교육기반특성이 학습성과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병수 (2011).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준호 (2011). **문화콘텐츠 창작가들의 창업태도 및 1인창업전문기업 육성 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동, 김안국, 황규희, 이종선, 이봉주 (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기본연구보고 2010-1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반성식, 김상표,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2010).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09 한국보고서**. 서울: 중소기업청.
- 배종태 (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2009년 경영관련통합 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경영학회.

-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11-128.
- 송영수 (2010).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서울: 자유기업원.
- 안선영, 김희진 (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연구보고 11-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금택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고등학교**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승택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중학교**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화 (2013). **지식창조사회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와 효과: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세미나 자료집 13-S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미란 (2011). 와인소비자의 문화적 가치와 와인선택속성, 만족도 관계연구: Hofstede이론의 적용. **외식경영연구**, 14(1), 223-242.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09). **기업가정신 역량 평가지표 개발**. 서울: 창업진흥원.
- 하규수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서울: 창업진흥원.
- 홍윤경 (2014).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http://www.korea.kr/common/searchPrint.do>(정책브리핑.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발표) 2014년 3월 21일 인출.
- <http://www.venturesquare.net/42675>(벤처스퀘어; 기업가정신교육설계(벤처정책연구보고서 요약본). 2014년 2월 26일 인출

부 록

1. 설문조사지: 초등학생용
2. 설문조사지: 중고등학생용

부록1. 설문조사지: 초등학생용

ID	과제	교급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의견조사 (초등학생용)

이 설문지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수행기관	(주)임소스코리아	담당자	이영민 과장/심정은 연구원 (02)6464-5133/5132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5가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⑤'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B, 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C, 로 가세요

☞ 나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또는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기업가정신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받은 곳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② 청소년시설 ③ 학원 등 사교육기관
④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 ⑤ 은행 등 금융기관 ⑥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
⑦ 진로·직업체험기관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교육받은 곳을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학교와 학원에서 교육 받은 적이 있어 ①번과 ③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1. 다음은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안에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문 1. '기업가정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③ 기업가정신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④ 기업가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 2. '기업가정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도전정신 ⑤ 열정
② 책임감 ⑥ 성공
③ 창의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④ 끈기

☞ '기업가정신'이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알아차려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세나 정신'을 의미합니다.

☞ '기업가정신교육'이란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과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기업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경제교육, 리더캠프, 기업가정신캠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3.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 3-2』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4』로 가세요

문 3-1. [기업가정신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받은 곳은 모두 ○표 해 주십시오

교육장소	교육받은 적이 있다	교육받은 적이 없다
1) 학교	1	2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1	2
3) 학원 등 사교육기관	1	2
4)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	1	2
5) 은행 등 금융기관	1	2
6)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	1	2
7) 진로·직업체험기관	1	2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문 3-2.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④ 약간 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만족
③ 보통

문 4. '기업가정신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다 → 『문 4-1』로 가세요
 ② 필요없다 → 『문 4-2』로 가세요

문 4-1.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②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4-2.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② 직장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③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④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5.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기업가정신교육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2) 기업가정신교육은 학교수업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5
3) 기업가정신교육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	1	2	3	4	5
4) 기업가정신교육은 수업내용이 중요하다	1	2	3	4	5
5) 기업가정신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5

문 6.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1,2,3학년
 ② 초등학교 4,5,6학년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졸업 이후

문 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려고(달성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내가 맡은 일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3) 나는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힐수록 모든 힘을 다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5
5) 실패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 인생의 성공은 운보다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1	2	3	4	5
7) 나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성공확률이 50%일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것이다	1	2	3	4	5
9)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면 항상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끈기를 가지고 시도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12) 나는 누구보다 가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14)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15)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편이다	1	2	3	4	5

문 8. 다음의 기업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1	2	3	4	5
2)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1	2	3	4	5
3)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1	2	3	4	5
4)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것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1	2	3	4	5
5)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신(마음)이다	1	2	3	4	5
6)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1	2	3	4	5
7)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문 9. 다음의 기업가정신교육 내용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기업가정신교육 내용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경제교육	1	2	3	4	5
2) 리더십	1	2	3	4	5
3)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방법)	1	2	3	4	5
4)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방법)	1	2	3	4	5
5)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1	2	3	4	5
6) 기업체험	1	2	3	4	5
7)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방법)	1	2	3	4	5
8) 도전정신(어려운 일을 이루거나, 기록을 깨기 위해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마음가짐)	1	2	3	4	5
9)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1	2	3	4	5
10) 성공한 기업인의 경험담 듣기	1	2	3	4	5

문 10.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②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 ③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④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교육 의무화
- ⑤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II. 다음은 창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안에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창업'이란 '남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회사를 차려서 스스로 사업을 일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창업교육'이란 '예비창업자로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창업이론교육, 창업아이템 경진교육, 창업교육캠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11. 미래에 취업(직업을 얻어 직장에 나가는 것)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운 것이다
- ② 조금 어려운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쉬운 것이다
- ⑤ 매우 쉬운 것이다

문 12.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회사)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④ 그럴 것이다
②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⑤ 매우 그럴 것이다
③ 보통이다

문 13.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창업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3-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13-2』로 가세요

문 13-1. [창업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②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③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④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⑤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3-2.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②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③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④ 창업하는 데는 돈(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⑤ 리더십과 도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⑥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4.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2) 나는 창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1	2	3	4	5
3) 나는 주변사람들과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1	2	3	4	5
4) 나는 창업만 한다면 잘 운영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창업 후 성공하기 위한 열정이 있다	1	2	3	4	5

문 19.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2)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창업을 위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키워 줄 것이다	1	2	3	4	5
4)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것이다	1	2	3	4	5
5)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을 키워 줄 것이다	1	2	3	4	5
6) 창업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1	2	3	4	5
7) 나에게 부족한 창업관련 능력(자신감, 도전의식 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2	3	4	5
8) 미래에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1	2	3	4	5

문 20.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면 언제부터 받고 싶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 | |
|----------------|----------|
| ① 초등학교 1,2,3학년 | ④ 고등학교 |
| ② 초등학교 4,5,6학년 | ⑤ 대학교 |
| ③ 중학교 | ⑥ 대학졸업이후 |

문 21.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누구와 가장 함께 하고 싶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 | |
|------|--------------------|
| ① 혼자 | ④ 선·후배 |
| ② 가족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③ 친구 | |

문 22.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 | |
|------------------------------------|-------------------|
| ①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 - 「문 22-1」로 가세요 |
| ② 학교가 계획하고 기업이나 전문기관(창업진흥원 등)에서 운영 | |
| ③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에서 계획하고 운영 | |
| ④ 기업이나 전문기관(창업진흥원 등)에서 계획하고 운영 | |

문 22-1.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 |
|-----------------------------------|
| ①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
| ②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 ③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
| ④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III. 다음은 문화기초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안에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문 23.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다	1	2	3	4	5
2) 어른에 대한 공경은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며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1	2	3	4	5
3) 직장 상사(윗사람)와의 원활한(좋은) 관계는 중요하다	1	2	3	4	5
4) 학생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선생님을 항상 존경해야 한다	1	2	3	4	5

문 24.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과 월급(매달 받는 돈)은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2)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구매한다	1	2	3	4	5
3) 국산보다 수입품을 더 선호한다	1	2	3	4	5
4) 남녀간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 25.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회사의 규칙(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2) 회사에 대한 충성은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다	1	2	3	4	5
3) 나는 규모가 큰 회사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4) 나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려 노력한다	1	2	3	4	5

문 26.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성은 필요하다	1	2	3	4	5
2)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미래에 내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IV. 다음은 개인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번호 하나에 ○표 해 주십시오.

문 2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나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머리 속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	1	2	3	4	5
3) 나는 내 스스로 세운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해 본다(자세하게 나누어 작성해 본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내 주변에 두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나는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쓰기 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1	2	3	4	5
7)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8)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본다(생각해 본다)	1	2	3	4	5
9) 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1	2	3	4	5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은?

- ① 조용한 편 ② 보통 ③ 활발한 편

배경문항 2. 학생의 학업 성적(2014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2	3	4	5

배경문항 3. 부모님은 학생의 의견을?

- ① 전혀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
② 존중해 주시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
⑤ 매우 존중해 주신다

배경문항 4.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배경문항 5. 귀하의 부모님은 사업 또는 자영업(가게 등)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2. 어머니	0	1	2	3

배경문항 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예 :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설문조사지: 중·고등학생용

ID

과제	교급
----	----

 -

학교	
----	--

 -

학급

 -

설문지연번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의견조사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지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수행기관	(주)입소스코리아	담당자	이영민 과장/심정은 연구원 (02)6464-5133/5132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5가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⑤'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 B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또는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기업가정신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받은 곳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② 청소년시설 ③ **학원 등 사교육기관**
 ④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⑤ 은행 등 금융기관 ⑥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
 ⑦ **진로·직업체험기관**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교육받은 곳을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학교와 학원에서 교육 받은 적이 있어 ①번과 ③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 4. '기업가정신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다 → 『문 4-1』로 가세요
 ② 필요없다 → 『문 4-2』로 가세요

문 4-1.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②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4-2.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② 직장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③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④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5.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기업가정신교육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2) 기업가정신교육은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	1	2	3	4	5
3)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	1	2	3	4	5
4) 기업가정신교육은 수업내용이 중요하다	1	2	3	4	5
5) 기업가정신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5

문 6. 기업가정신교육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1,2,3학년
 ② 초등학교 4,5,6학년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졸업 이후

문 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려고(달성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내가 맡은 일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3) 나는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힐수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5
5) 실패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 인생의 성공은 운보다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1	2	3	4	5
7) 나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성공확률이 50%일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것이다	1	2	3	4	5
9)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면 항상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끈기를 가지고 시도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12) 나는 누구보다 가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14)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15)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편이다	1	2	3	4	5

문 8. 다음의 기업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1	2	3	4	5
2)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1	2	3	4	5
3)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1	2	3	4	5
4)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1	2	3	4	5
5)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고객 제일주의이다	1	2	3	4	5
6)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1	2	3	4	5
7)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문 9. 다음의 기업가정신교육 내용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기업가정신교육 내용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경제교육	1	2	3	4	5
2) 리더십	1	2	3	4	5
3) 문제해결기술	1	2	3	4	5
4)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방법)	1	2	3	4	5
5) 기업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1	2	3	4	5
6) 기업체험	1	2	3	4	5
7)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및 방법	1	2	3	4	5
8) 도전정신(어려운 일을 이루거나, 기록을 깨기 위해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마음가짐)	1	2	3	4	5
9) 사회적 네트워킹 능력	1	2	3	4	5
10) 성공 기업인 초청특강	1	2	3	4	5

문 10.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②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
- ③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④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교육 의무화
- ⑤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II. 다음은 창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안에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창업'이란 '남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회사를 차려서 스스로 사업을 일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창업교육'이란 '예비창업자로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창업 이론교육, 창업아이템 경진교육, 창업교육캠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11. 미래에 취업(직업을 얻어 직장에 나가는 것)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울 것이다
- ② 조금 어려울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쉬울 것이다
- ⑤ 매우 쉬울 것이다

문 12.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회사)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④ 그럴 것이다
②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⑤ 매우 그럴 것이다
③ 보통이다

문 13.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창업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3-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13-2』로 가세요

문13-1. [창업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②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
③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④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⑤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3-2.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② 창업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③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④ 창업하는 데는 돈(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⑤ 리더십과 도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⑥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4.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2) 나는 창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1	2	3	4	5
3) 나는 주변사람들과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1	2	3	4	5
4) 나는 창업만 한다면 사업운영은 자신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성공하기 위한 열정이 있다	1	2	3	4	5

문 15.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위한 환경(예: 창업관련 지원제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④ 좋은 편이다
② 조금 나쁘다 ⑤ 매우 좋다
③ 보통이다

문 16.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가능하지 않다
- ② 가능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가능한 편이다
- ⑤ 매우 가능하다

문 1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2) 창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1	2	3	4	5
3) 나는 창업 절차 및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창업은 어려움도 있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5) 나는 창업은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취업을 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7) 나는 평소 창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적극적이다	1	2	3	4	5
8) 나는 현재 창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창업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창업을 한다면 성공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문 18.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창업은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	1	2	3	4	5
2) 창업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1	2	3	4	5
3) 창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클 것이다	1	2	3	4	5
4) 창업할 때 능력있는 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5) 우리 사회에는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1	2	3	4	5
6) 창업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1	2	3	4	5
7) 창업을 하면 많은 시간 일해야 한다	1	2	3	4	5
8) 창업을 하려면 많은 규제가 따른다	1	2	3	4	5
9) 창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5

문 19. 다음의 창업관련 활동 중 참여경험이 있는 것은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참여안함	1-2번 참여	3-4번 참여	5번 이상 참여
1) 창업동아리활동	1	2	3	4
2) 창업교육(수업)	1	2	3	4
3) 창업박람회	1	2	3	4
4) 창업(아이템)경진대회	1	2	3	4
5) 창업멘토링	1	2	3	4
6) 창업캠프(비즈쿨캠프)	1	2	3	4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문 20. 다음의 창업교육 내용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창업절차와 방법	1	2	3	4	5
2) 판매 및 홍보전략	1	2	3	4	5
3) 세금관련 기초지식	1	2	3	4	5
4) 성공적인 창업사례	1	2	3	4	5
5)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1	2	3	4	5
6) 사업계획서 작성법	1	2	3	4	5
7) 관련법과 제도	1	2	3	4	5
8)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	1	2	3	4	5
9) 올바른 경제관 확립	1	2	3	4	5
10) 창업체험학습	1	2	3	4	5

문 21. 창업교육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2)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창업을 위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키워 줄 것이다	1	2	3	4	5
4)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것이다	1	2	3	4	5
5)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을 키워 줄 것이다	1	2	3	4	5
6) 창업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1	2	3	4	5
7) 나에게 부족한 창업관련 능력(자신감, 도전의식 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2	3	4	5
8) 미래에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1	2	3	4	5

문 22. **창업교육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 | |
|----------------|----------|
| ① 초등학교 1,2,3학년 | ④ 고등학교 |
| ② 초등학교 4,5,6학년 | ⑤ 대학교 |
| ③ 중학교 | ⑥ 대학졸업이후 |

문 23. 다음의 보기는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 **가장 취직하고 싶은 산업분야와 가장 창업하고 싶은 산업분야**를 보기에서 **우선순위(1순위, 2순위)**로 골라 해당번호를 **하나씩** 적어 주십시오. 취직이나 창업하고 싶은 분야가 **다음 보기 중에 없는 경우**, 직업명을 직접 **기타** 칸에 적어 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기타
가장 취직하고 싶은 분야			
가장 창업하고 싶은 분야			

보기: 산업분야		
① 광고관련산업	⑧ 공연예술관련산업	⑮ 요식관련산업(카페, 음식점 등)
② 건축관련산업	⑨ 정보통신(IT)관련산업	⑯ 교육관련산업
③ 관광관련산업	⑩ 패션관련산업	⑰ 의료기술관련산업
④ 게임관련산업	⑪ 과학관련산업	⑱ 환경보호관련산업
⑤ 무역관련산업	⑫ 미술·사진관련산업	⑲ 동물관련산업
⑥ 방송 및 영상관련산업	⑬ 미용관련산업	⑳ 기타(공직자, 공무원 등)
⑦ 음악관련산업	⑭ 문화유산관련산업	

문 24.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누구와 가장 함께 하고 싶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혼자
- ② 가족
- ③ 친구
- ④ 선·후배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25. 청소년들이 향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창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② 창업전문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교육
- ③ 창업관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④ 창업 동아리 활동 활성화
- ⑤ 창업관련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26. 청소년들이 향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창업절차 간소화
- ② 세금지원 및 혜택
- ③ 혼자서 하는 창조기업 육성
- ④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 ⑤ 창업실패시 재창업지원제도 활성화
- ⑥ 창업교육 확대 및 활성화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27.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 문 28번으로**
- ②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관련기관
(시도교육연수원, 창업진흥원, 기업 등)에서 운영
- ③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계획하고 운영
- ④ 지역사회관련기관
(시도교육연수원, 창업진흥원, 기업 등)에서 계획하고 운영

**→ 『문 27-1』로
가세요**

문27-1.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전문가에게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③ 학교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 ④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III. 다음은 문화기초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안에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문 28.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다	1	2	3	4	5
2) 어른에 대한 공경은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며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1	2	3	4	5
3) 직속 상사와의 원활한 관계는 중요하다	1	2	3	4	5
4) 학생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선생님을 항상 존경해야 한다	1	2	3	4	5

문 29.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에서 승진과 급여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2)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구매한다	1	2	3	4	5
3) 국산보다 수입품을 더 선호한다	1	2	3	4	5
4) 남녀간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 3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회사의 규칙(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2) 회사에 대한 충성은 미덕이다	1	2	3	4	5
3) 나는 규모가 큰 회사를 더 선호한다	1	2	3	4	5
4) 나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려 노력한다	1	2	3	4	5

문 31.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성은 필요하다	1	2	3	4	5
2)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미래에 내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IV. 다음은 개인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번호 하나에 ○표 해 주십시오.

문 32.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나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머리 속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	1	2	3	4	5
3) 나는 내 스스로 세운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해 본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내 주변에 두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나는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쓰기 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1	2	3	4	5
7)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8)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본다	1	2	3	4	5
9) 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1	2	3	4	5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은?

- ① 조용한 편 ② 보통 ③ 활발한 편

배경문항 2. 학생의 학업 성적(2014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2	3	4	5

배경문항 3. 부모님은 학생의 의견을?

- ① 전혀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
② 존중해 주시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
⑤ 매우 존중해 주신다

배경문항 4.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배경문항 5. 귀하의 부모님은 사업 또는 자영업(가게 등)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2. 어머니	0	1	2	3

배경문항 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예 :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initiated in order to provide basic documents for preparing policy to cultivate youth entrepreneurship and youth start-up competency through analyzing youth perception and related educational participation regard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empirical research, and conducted and analyzed a survey with youth regarding the perception and the need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This study also analyzed related policy plans through a specialized workshop and the policy advisory council.

Implications drawn through the survey's results suggests the following needs: (1) interest and public relations regard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2)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grams related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3) cultivating experts i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4) strengthening connections with related centers in community and forming consultation groups in order to cultivate entrepreneurship and keep start-up competency through experiential activities that are systematical and effective; (5)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law and institutions to have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urses as required education; (6) expanding training program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among teachers; (7) forming and invigorating experiential activities connected with curriculums in school grade levels; (8)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grams that enhance cultural values and levels of self-leadership.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to address the needs outlined above, various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which include the follow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Four-Plans for elementary schools through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regard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lated programs, managing head teachers for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supporting club activities for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Three-Plans for middle schools through developing standard curricula and text book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innovating teachers and teaching method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and invigorat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focused on club activities,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Four-Plans for high schools through enlarg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leaders, reestablishing leading schools of Bizcool,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grams with high school-college-community, expanding and strengthening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Two-Plans for invigorat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xperimental activities through youth activities and school event activities, developing and invigorating youth activities programs to improve cultural value and levels of self-leadership.

Keywords : youth entrepreneurship, youth start-up competency

◆ 전문가워크숍 발표자 ◆

- 김선순 야탑초등학교 교사
이금택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이승택 천안동성중학교 교사
하규수 호서대학교 교수
홍윤경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과장

◆ 자문위원 ◆

-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김옥환 신월초등학교 교사
김정주 모든학교체험활동연구소 소장
김지수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혁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김혜진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지도자
이만희 서울시교육청장학사/비즈쿨담당
이요행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임경희 순천대학교 교수
장경아 선일중학교 교사
정윤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조봉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황보운 호서대학교 교수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 · 김지연 · 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 · 김혁진 · 김범구 · 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 · 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 · 이종원 · 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 · 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 · 강태훈 · 류성창 · 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희진 · 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 · 김동일 · 김태완 · 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 · 윤철경 · 최금해 · 김옥태
- 14-R49 2014년 포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 · 조혜영 · 김용훈
- 14-R52 신고 · 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 · 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 · 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 · 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9-11-5654-035-9 94330

979-11-5654-033-5 (세트)